책을 내면서

편집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동화들을 종합하여 《백두산3대장군동화전집》(1~5권)을 내놓게 됩니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에 편집부는 대원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그대로 옮긴 동화들이 들어있는 《백두산3대장군동화전집》 1, 2권을 먼저 내보냅니다.

2권에는 《빛을 뿌리는 보검》, 《세 포수》, 《날개달린 룡마》를 비롯하여 10편의 동화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동화들에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고향마을을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리며 슬기와 용맹을 키워 원쑤놈들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고귀한 가르치심이 담겨져있습니다.

청소년학생들은 《백두산3대장군동화전집》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한편한편에 깃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높은 뜻을 가슴깊이 새기게 될것입니다.

편집부는 청소년학생들이 학습과 조직생활을 더 잘하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결사옹위하는 근위대, 결사대로,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억세게 준비해가리라 굳게 믿습니다.

편집부

차 례

1. 놀고먹던 꿀꿀이 ………………………………… (3)

2. 세 포수 ……………………………………………(31)

3. 빛을 뿌리는 보검 ………………………………(51)

4. 선비와 세 아들 …………………………………(67)

5. 사람과 재물 ……………………………………(81)

6. 두 장군이야기 …………………………………(95)

7. 이마 벗어진 앵무새 ……………………………(113)

8. 미련한 곰 ………………………………………(133)

9. 날개달린 룡마 …………………………………(156)

10. 의로운 신하 ……………………………………(194)

옛날 어느 산기슭에 아담한 초가집 한채가 있었습니다.

뒤동산에는 푸른 숲이 우거지고 집앞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고있었습니다.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 집에는 여러가지 집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이였습니다.

먼동이 트자 때를 기다리고있던 수닭이 홰를 치며 《꼬끼요-》하고 기운차게 울었습니다.

부지런한 집짐승들은 모두 떨쳐일어나 서둘러 일나갈 차비를 하였습니다.

《음메-》

황소가 먼저 방울을 울리며 외양간을 나섰습니다.

달구지를 끌고 콩밭으로 나가던 황소는 꿀꿀이네 나무우리를 넌지시 넘겨다보며 말했습니다.

《꿀꿀아, 너도 좀 일어나보렴.》

그러나 꿀꿀이는 쿨쿨 잠만 자고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짐을 실어오려고 장거리로 떠나던 말이 나무우리를 기웃이 들여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꿀꿀아, 이젠 그만 자거라. 누가 코를 떼여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꿀꿀이는 끙-하고 돌아눕더니 다시 코를 골았습

니다.
집두리를 돌아보러 나가던 멍멍이가 꿀꿀이네 판자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잠꾸러기야, 일어나라. 그렇게 잠만 자다가 눈이 영 붙어버리고말겠다.》
그러나 꿀꿀이는 슬며시 눈을 뜨고 끔뻑거려보더니 《뭐, 내 눈이 붙는다구? 흥, 그럼 먹을것도 못보게.》하고 코웃음을 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야웅이는 곡식낟가리에 쥐가 드는지 살피러 가다가 나무우리를 훽 날아넘으며 쏘아붙이였습니다.
《꿀꿀아, 네 코고는 소리에 쥐들이 북을 치며 달려들어도 모르겠구나.》
《이것들이 시끄럽게는 구네.》
꿀꿀이는 얼굴을 찡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벌레잡이 나가던 닭들도 《저렇게 자다가는 까마귀한테 아침먹이 다 뗴우겠다.》하고 깔깔 웃어댔습니다.
《뭐? 내걸 누가 먹는다구?》
꿀꿀이는 북데기를 뒤집어쓴채 눈이 둥그래가지고 구유부터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다가가 꾸르륵 첩첩—요란한 소리를 내며 뜨물을 먹었습니다.
구유바닥까지 반반히 핥아먹었으나 함지박만큼 큰 배를 채울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큰길쪽에서 퉁방울소리와 함께 황소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봄 여름 땀흘려 가꿔온 보람
얼씨구 좋아라 풍년이로세
알알이 여문 이삭 실어들이세
절씨구 좋아라 신바람나네

꿀꿀이는 나무벽을 짚고 일어서서 콩단을 산더미처럼 싣고 들어오는 황소를 넘겨다보았습니다.

《흐흐, 저 콩! 진작 실어올노릇이지. 젠장, 걸음이 저렇게 느리다구야. 좀 빨랑빨랑 오지 못하구.》

꿀꿀이는 군침을 꿀꺽 삼키고나서 우리를 후닥닥 뛰여넘었습니다.

그리고 뒤마당으로 돌아가는 황소를 따라가서 달구지에 훌 매달려 콩꼬투리를 우적우적 뜯어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문앞에서 이것을 본 멍멍이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야, 꿀꿀아, 이건 뭐야. 저리 비켜!》하고 꿀꿀이를 밀쳤습니다.

비칠거리던 꿀꿀이는 얼른 몸을 가누고 멍멍이를 흘겨보며 《저건 밤에도 안자구 낮에도 안자구 제길…》하고 볼이 부어 투덜댔습니다.

꿀꿀이는 할수없이 어디 또 먹을것이 없는가 해서 두리번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야, 호박!》하고 담장을 쳐다보았습니다.

호박넝쿨이 얼기설기 얽히여 뻗어올라간 담장에는 호박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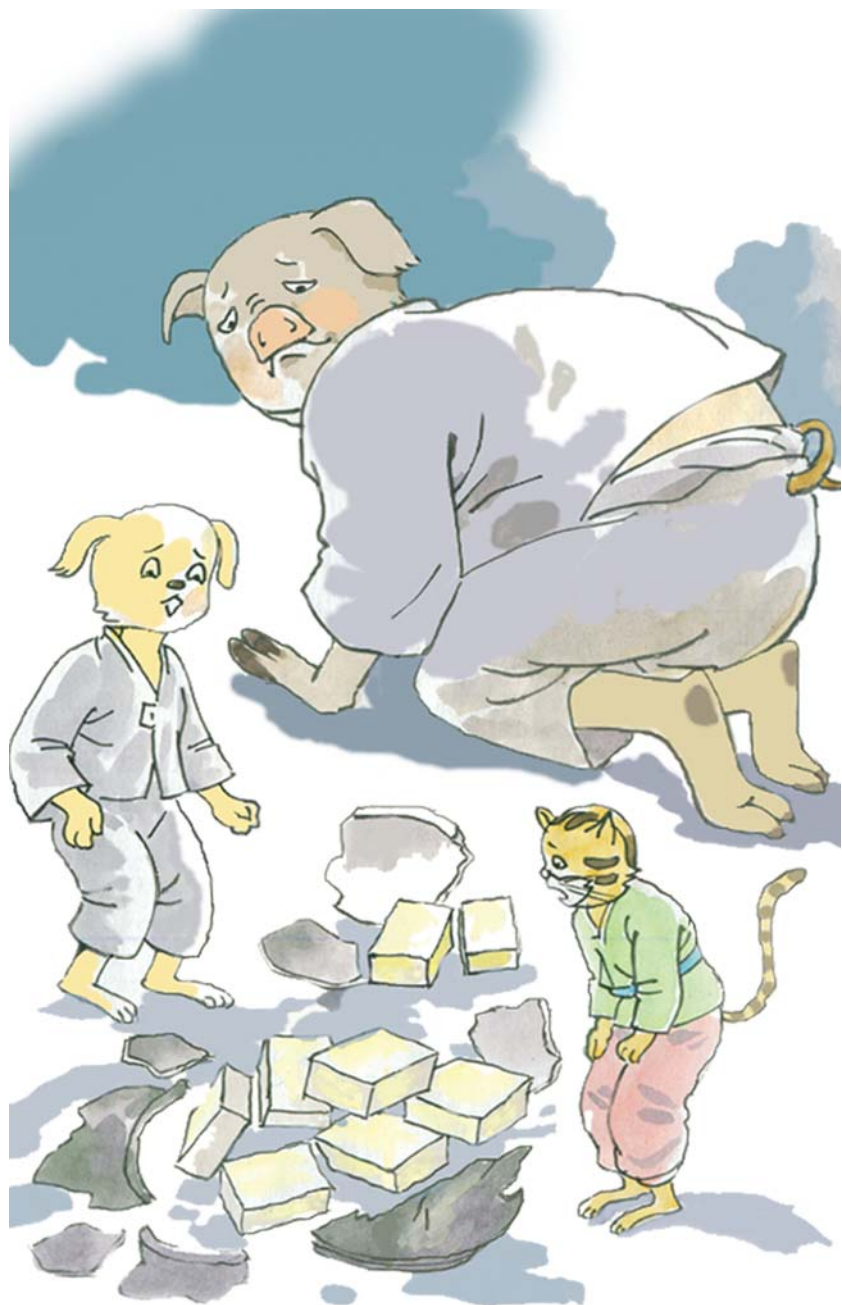
꿀꿀이는 장독대에 올라서서 호박넝쿨을 와락와락 끌어당겼습니다.

넝쿨이 툭툭 끊어지면서 동이만한 호박 하나가 지끈— 하고 꿀꿀이의 머리우에 굴러떨어졌습니다.

꿀꿀이의 눈에서는 불이 번쩍 일었습니다.

《아이쿠!》

꿀꿀이는 머리를 썩썩 문질렀습니다.

이때 조그마한 호박 하나가 또 떨어지는 바람에 앞에 있는 항아리뚜껑이 훌렁 벗겨졌습니다. 항아리속에는 허연 두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허, 두부!》
꿀꿀이는 너무도 좋아서 입을 헤 벌리고 항아리속에 머리를 쑥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어깨가 걸려서 주둥이가 두부에 가닿지 않았습니다.
꿀꿀이는 발뒤축을 들고 둔한 몸뚱이를 버둥거리며 어깨를 힘껏 들이밀었습니다.
그바람에 기우뚱거리던 두부항아리가 앞으로 넘어지며 와지끈 깨지고말았습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멍멍이와 야웅이가 뛰여나왔습니다.
멍멍이와 야웅이는 꿀꿀이가 저지른 일이 하도 어이가 없어 한동안 말도 못하고 흙범벅이 된 두부를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넌 돌아다니면서 한다는짓이 그게 뭐냐! 참 한심하구나.》
멍멍이는 입이 쓰거워 고개를 돌리고 야웅이는 수염만 쓸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였습니다.
하루종일 일을 하다가 들어와 금방 여물을 달게 먹고난 황소는 외양간의 푹신한 자리에 누워 오늘 실어들인 곡식단이 얼마나 되는지 속으로 세여보면서 새김질을 하고있었습니다.
이때 대문간에 앉아있던 멍멍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두귀를 곧추 세웠습니다.
황소도 새김질을 그만두고 귀를 기울이였습니다.
왈랑절랑…
멀리서 방울소리가 울려왔던것입니다.
《말아저씨가 와요!》
멍멍이가 몹시 반가운듯 꼬리를 흔들며 큰길로 달려나갔

습니다.
《음, 이제야 오는구나!》
황소도 방울소리를 떨렁 울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바깥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뚜거덕뚜거덕…
말이 멍멍이를 앞세우고 기운차게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먼길에 수고했네!》
황소가 반갑게 말을 맞이했습니다.
《뭐 수고랄게 있나.》
말은 아무렇지도 않다는듯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멍멍이가 말이 싣고온 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황소아저씨, 여기 잔치감도 있어요!》
《잔치감이라니?》
황소는 처음 듣는 소리라 눈이 둥그래서 말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장에 가서야 들었는데 며칠뒤에 주인의 생일잔치가 있다는구만.》
《하, 이거, 우리 주인집에 경사가 났네그려!》하고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이때 야웅이가 방에서 깡충 뛰여나와 사방을 둘러보다가 기뻐서 벙글거리는 그들한테로 달려왔습니다.
야웅이는 먼길을 다녀온 말에게 인사할 생각도 못하고 《방금 주인이 그러는데 놀고먹는 짐승을 하나 골라서 잔치상반찬감으로 올리겠대요.》하고 소곤거렸습니다.
《엉?…》
모두 눈이 둥그래서 야웅이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도 못

했습니다.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만 도간도간 들려올뿐이였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겠나?》
말이 언제나 생각이 깊은 황소한테 물었습니다.
황소는 눈을 끔뻑끔뻑하며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아무래도 다 모여서 의논해봐야겠다.》하고 멍멍이와 야웅이더러 꿀꿀이와 수닭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야웅이는 꿀꿀이한테 달려갔습니다.
아직 초저녁인데도 꿀꿀이는 더부룩한 북데기속에 묻혀 쿨쿨 코를 골고있었습니다.
《꿀꿀아, 꿀꿀아!》
야웅이는 우리에 들어가 두손으로 꿀꿀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꿀꿀이는 야웅이의 손을 탁 뿌리쳤습니다.
《남이 자는데 이건 뭐야. 아침부터 잠을 설쳤는데, 시끄럽게.》
그리고는 돌아누워서 일부러 더 크게 코를 골았습니다.
《야 꿀꿀아, 좀 일어나서 내 말을 들어봐.》
야웅이는 꿀꿀이를 다시 힘껏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꿀꿀이는 들은척도 안했습니다.
《아이참, 주인집 잔치때문에 데리러 왔는데…》
야웅이는 애가 타서 꿀꿀이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눈을 지리감고 자는척 하던 꿀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잔치?!》
꿀꿀이는 잔치라는 말에 귀가 번쩍 띄였던것입니다.
《잔치라면 진작 그렇게 말할것이지 원!》
꿀꿀이는 좋아서 꼬리를 흔들며 엉뎅이를 철썩철썩 치는것이였습니다.
꿀꿀이는 푸짐히 얻어먹을 생각을 하며 저도모르게 군침

을 꿀꺽 삼켰습니다.

《괜히 기뻐만 하지 말고 어서 가자!》

야웅이는 이렇게 말하며 먼저 나무우리를 나섰습니다.

《먹을 판이 생겼는데 이런 때 기뻐안하구 언제 기뻐해. 하기야 너처럼 조막만한 배를 가지구야 기뻐할나위도 없지. 맛을 보기도 전에 배가 차서 숨이 가쁠테니까.》

꿀꿀이는 함지박만한 제 배를 슬슬 쓸어보며 배가 작은 야웅이를 비웃었습니다.

《내 배가 복배지. 어서 실컷 먹어보자!》

꿀꿀이는 벌써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 야웅이를 따라잡으려고 짧은 다리를 부지런히 놀렸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멈칫 서더니 부리나케 우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판에 먹고만 올수야 없지.》

꿀꿀이는 낑낑거리며 쪽배만한 구유를 메고나왔습니다.

생겼구나 생겼구나
먹을 일이 생겼구나
오늘은 복받은 날
한밥 먹고 노는 날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실컷 먹고 한짐 잔뜩 얻어메고올 생각을 하니 저절로 흥겨운 코노래가 흘러나오고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쪽배만한 구유를 멘 꿀꿀이는 남산만한 배를 내밀고 뚱기적거리며 대문안으로 들어서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짐승들이 이상해서 《아니, 꿀꿀아, 너 구유는 왜 메고 왔니?》하고 물었습니다.

《잔치에 왔다가 먹고만 가겠니. 한구유 가지고가야지!》

꿀꿀이는 한쪽으로 처져내린 구유를 추켜올려 바로 멨습니다.

야웅이는 꿀꿀이의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넌 잔치라니까 먹는 일이 생긴줄 아니?》

《그럼 잔치에 와서 구경만 하겠니?》

꿀꿀이는 어서 실컷 먹고싶어 대문을 한쪽어깨로 낑 떠밀었습니다.

《꿀꿀아, 덤비지 말고 여기 와서 앉아라. 잔치는 며칠뒤에 있다.》

황소가 방울을 울리며 꿀꿀이를 불러세웠습니다.

《며칠뒤에?… 그런걸 왜 남이 잠도 못자게 오라가라 하는거야.》

꿀꿀이는 야웅이를 흘겨보며 구유를 쿵― 하고 땅바닥에 놓았습니다.

《좀 의논할 일이 있어서 오라고 했지.》

황소가 야웅이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짐승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젠 다 모였으니 누가 주인집 잔치상에 올라야 하겠는지 의논해보자.》

이때 꿀꿀이가 반색을 하며 한걸음 썩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의논할게 있니? 뻔한걸 가지구. 잔치에야 내가 가야지.》

《뭐 네가?》

모두들 눈이 둥그래서 꿀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 않구 누가 가겠니? 너희들이야 일하느라고 바쁠게 아니냐.》

야웅이가 듣다못해 깨우쳐주었습니다.

《꿀꿀아! 내 말 좀 들어. 주인이 놀고먹는 짐승을 하나 골라서 잔치상반찬감으로 올리겠다는거야!》

《뭐? 바 반찬감으로?…》

꿀꿀이는 야웅이의 말을 듣고서야 말을 더듬으며 뒤걸음치다가 제 구유에 걸채여 펄썩 주저앉고말았습니다.

그 꼴이 하도 망측했으나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겨 입을 다물고있었습니다.

마당에도 외양간에도 밝은 달빛이 소리없이 흘러들고 하늘높이 떼지어 날아가는 기러기소리만 기럭기럭 들려왔습니다.

갑갑증이 나는지 말이 절렁— 하고 방울소리를 울리며 자

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원 참, 모두 생각들만 하고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구나. 이야기들을 하자구.》
그러자 멍멍이가 말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왕 먼저 말꼭지를 뗐으니 누가 놀고먹는지 한마디 하세요. 말아저씨야 일도 아주 잘하시지 않아요.》
《나야 뭘 크게 한 일이 있나. 그저 무거운 곡식단이나 실어나르구 연자방아나 돌리군 했지. 그리구 주인을 태우고 장거리에 갔다오기도 하구…》
말은 이렇게 몇마디 하고는 다른 짐승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때 고요하던 연자방아간에서 귀뚤귀뚤— 하고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짐승들의 눈앞에는 무거운 연자돌을 밤늦도록 빙빙 돌리던 말아저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참, 우리 말아저씨는 황소아저씨와 함께 힘든 일을 하는 상일군이지. 그러기에 우리 주인이 말아저씨에게 저렇게 방울을 많이 달아준게 아니요.》
멍멍이가 말의 목에 주렁주렁 매달린 방울들을 가리키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말아저씨는 일솜씨도 아주 빠르지요.》
야웅이의 이 말에 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말구 정말 힘든 일만 도맡아하는 황소의 이야기를 듣자.》
그러자 황소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도맡아한다구 그러나. 난 별로 자랑할만한 일을 못했네. 해마다 봄이 오면 밭을 갈고 여름이 되면 후치질을 했지.
그리고 가을에는 낟알을 실어들이고 겨울엔 두엄을 냈을 뿐이지.

내딴에는 놀지 않고 일을 하느라고 했지만 말처럼 일손이 빠르지는 못하지. 그래서 나는 어뜩새벽에 일어나 일을 시작하구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때에야 일손을 떼군 했지.》

이때 구름속에 잠겨있던 둥근달이 얼굴을 내밀고 마당에 덩실하게 솟아있는 곡식낟가리들을 밝게 비쳐주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이슬방울이 반짝반짝 빛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모두다 환한 빛을 뿌리는듯한 곡식낟가리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낟가리에 스며있는 황소의 귀중한 땀방울들이 달빛을 함뿍 받아안고 빛을 뿌리고있는것 같았습니다.

《참, 우리 황소아저씨는 일도 많이 하지요. 그러기에 주인이 퉁방울도 달아주고 이마에 둥글한 엽전까지 달아주었지요.》

꼬끼요수닭이 황소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렴요. 황소아저씨처럼 제 힘을 다 바쳐 일하는 일군이 세상에 어디 또 있을라구요. 오늘도 보니 달구지짐이 산더미만 하더라니까요.》

멍멍이가 하는 말에 모두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그런데 꿀꿀이는 눈만 껌벅이다가 고개를 외로 돌리며 《흥, 잘들 주어댄다. 그만큼 먹는건 모르는 모양이지. 아마 내 열갑절은 더 먹을거야. 글쎄 온밤 눈을 감고 자면서도 입을 쉬지 않고 놀리니 일한것보다 먹는것이 더 많을거야 뻔하지.》하고 속으로 코방귀를 뀌며 혼자 투덜거렸습니다.

《넌 뭘 입속으로 중얼거리니?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내놓고 말하려무나.》

옆에 있던 야웅이가 꿀꿀이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그바람에 꿀꿀이는 흠칫 놀라며 입을 다물고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야웅이가 한마디하고싶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키가 너무 작아서 절구통우에 깡충 뛰여올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마당가에 쌓아놓은 조낟가리밑에서 바스락소리가 났습니다.
모두 숨소리를 죽이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쥐로구나.》
그들은 일시에 절구통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달려갔는지 조낟가리앞에서 야웅이의 야무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꼼짝말앗.》
야웅이의 두눈에서는 시퍼런 불줄기가 펄펄 쏟아져나왔습니다.
그 불빛앞에 쥐 세마리가 부들부들 떨고있었습니다.
《네놈들 훔쳐먹으라고 쌓아놓은 낟알인줄 아니? 이놈들!》
야웅이는 벼락같이 소리치며 달려들어 노끈으로 쥐를 꽁꽁 묶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야웅이솜씨가 이만저만 아니군. 저걸 좀 보지. 두놈은 아직 묶지도 않았는데 뛸 생각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군.》
황소가 야웅이의 고함소리에 넋을 잃고 쩔쩔매는 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뛸 생각이 다 뭐야요. 야웅소리만 쳐도 털이 곤두서고 팔다리가 굳어져서 꼼짝도 못하는데요.》
황소와 멍멍이가 말하는 사이에 야웅이는 세놈을 다 묶어놓았습니다.
《이리 왓!》
야웅이는 한줄에 묶은 놈들을 끌어다 대추나무밑둥에 매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절구통우에 뛰여올라 생글생글 웃으며 《기다리게 해서 안됐군요.》하고 말하였습니다.

《안되긴 뭐가 안돼. 참 네가 큰일을 했다. 저 쥐무리들을 잡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봐라. 그러면 이 집 낟알이 한알도 남아있지 않을거다.

그러니 너는 우리들이 못하는 큰일을 하고있는셈이야.》

《그 말이 옳네. 몸은 비록 작지만 아주 큰일을 하고있지. 그러기에 주인은 야웅이가 하는 일이 고마와서 자기네가 사는 방에 함께 데리고 살지 않나.》

황소와 말이 칭찬해주는 바람에 야웅이는 절구통우에 올라와있는것이 어색해졌습니다.

그러나 할 말이 있어서 올라섰다가 그냥 내려갈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큰일이야 황소아저씨와 말아저씨가 도맡아해주기때문에 전 그저 쥐나 잡지요. 그게 내가 맡은 일이니까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절구통에서 훌딱 뛰여내렸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야웅이의 말과 행동이 너무도 기특해서 모두 머리를 끄덕이며 《야웅이는 우리 집에 없어서는 안될 아주 귀중한 일군이지!》하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꿀꿀이는 도리머리를 흔들며 《체, 주인집 기름단지나 엎지르고다니는게 무슨 귀중한 일군이야.》하고 투덜거렸습니다.

멍멍이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 일어났습니다.

《꿀꿀아, 너 두부를 훔쳐먹으려다가 항아리를 깨먹은 생각은 나지 않니? 야웅이가 기름단지를 엎지른건 쥐를 잡으려다가 그런거야.》

모두 그 말이 옳다고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그러자 꿀꿀이는 할 말이 없어서 《그바람에 기름 한 방울없는 뜨물을 먹느라고 입맛이 떨어져 그런다.》하고 딴전을 부렸습니다.

이때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던 수닭이 《그렇다면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네 뜨물에 기름을 한 둬방울 쳐달래자꾸나.》하고 말하는 바람에 모두 웃고말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멎자 멍멍이가 일어서서 《난 아까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을 지키는것밖에 없습니다.》하고 말하고는 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닭은 한마디만 하고 물러앉는 멍멍이를 의아하게 바라보다가 깃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네가 한 일이 왜 그것뿐이냐? 네가 우리를 살려준 일도 있지 않니? 사실 네가 아니였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기나 하겠니.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죽어도 멍멍이를 잊을수 없어.》하고 산에서 내려온 삵에게 물려가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멍멍이가 쏜살같이 달려와 그놈을 물어메치지 않았더라면 수닭은 정말 큰일날번 하였습니다.

《아무렴, 그렇구말구. 그러나 수닭만 고맙다고 할 일이 아니야. 우리들이 밤마다 편안히 잘수 있는것도 다 멍멍이 덕이지. 그러니 멍멍이는 이 집의 복동이야.》

황소가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모두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이때 먼산 숲속에서 부엉부엉— 하고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밤도 퍼그나 깊었는데 이젠 그만하고 자지들 않겠소?》하고 퉁겨주는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있는 동안에 꿀꿀이는 어쩐지 저

만이 놀고먹는 짐승같이 생각되여 속으로 슬그머니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저 얼굴 둘러보며 눈치만 슬슬 살피다가 남산만한 배를 그러안고 일어서서 한마디 하였습니다.

《그러니 별수없이 꼬끼요수닭이나 꼬꼬댁암닭이 잔치상에 올라야 되겠군그래.》

그러자 야웅이가 발딱 일어나 꿀꿀이를 쏘아보며 따졌습니다.

《아니 뭐라구?… 왜 꼬끼요수닭이나 꼬꼬댁암닭이 잔치상에 올라야 한단 말이냐?》

꿀꿀이는 웬 참견이냐는듯 흘깃 야웅이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거야 뭐, 우리들가운데 놀고먹는게 꼬끼요수닭과 꼬꼬댁암닭밖에 더 있니? 해나는 날이나 비오는 날이나 몸치장이나 하고 이리저리 쏘다니기만 하더구나.》

《꿀꿀아, 그것도 말이라고 하니? 그래 넌 새벽마다 꼬끼요—하고 우는 수닭의 씩씩한 목소리를 못들었단 말이냐?》

멍멍이는 꿀꿀이가 하는 말이 몹시 거슬려 컹—하고 마른기침을 하며 한마디 핀잔을 주었습니다.

꿀꿀이는 흥—하고 코방귀를 뀌였습니다.

《남의 단잠이나 깨우는 그 듣기싫은 째진 소리…》

꿀꿀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만만해보이는 수닭을 잔치상에 올리려고 긴 주둥이를 내두르며 고아댔습니다.

그리고는 황소와 말의 눈치를 슬슬 살피면서 꼬끼요수닭을 헐뜯었습니다.

《황소아저씨나 말아저씨가 푹 쉬여야겠는데 저 철딱서니없는 수닭은 뭐가 그리 장하다고 꼭두새벽부터 남의 단

잠을 설치게 한단 말이야.》
모두는 어처구니가 없어 꿀꿀이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어리석은 꿀꿀이는 제 말이 옳아서 그런줄 알고 더 걸고들 궁리만 하였습니다.
이때 말이 발까지 쿵 구르며 꿀꿀이를 꾸짖었습니다.
《너 아무말이나 하면 되는줄 아니? 남에게 등을 대고 일 잘하는 닭을 함부로 헐뜯어서는 못써!》
《나… 난 아저씨들을 위해서 하… 하는 말인데…》
제편을 들어줄줄 알았던 말이 뜻밖에도 꾸지람을 하는 바람에 꿀꿀이는 속이 뜨끔했으나 우정 우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황소가 퉁방울소리를 떨렁 울리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말은 모두 일을 해보지 못한 건달놈의 수작이다.
수닭은 남들이 다 단잠을 자는데 자지 않고 때를 기다리다가 새벽이 되면 꼬끼요, 꼬끼요 때를 알려준단다.
그게 쉬운 일이겠니? 너는 수닭의 목소리를 째진 목소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렁찬 노래소리로 듣는다.
힘을 돋구어주는 그 소리를 듣고 집안이 떨쳐일어나 보람찬 하루일을 시작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듣기 싫은 소리라구?…》
황소가 이렇게 내리엮는 바람에 꿀꿀이의 고개는 푹 수그러지고 입은 척 붙어버리고말았습니다.
《뭐 그리구 또 꼬꼬댁암닭이 잔치상에 올라야 한다구? 날마다 알을 낳아주는 착실한 살림군을 네 마음대로 잔치상에 올려?》
그러자 꿀꿀이의 고개는 더욱더 수그러지고 이제는 곁눈질도 못했습니다.

말이 모두를 둘러보며 몇마디 더 했습니다.

《저 곡식낟가리들과 고간에는 주인과 우리를 일찍 깨워준 수닭의 공로도 깃들어있다.

그러니 시간을 알려주는 꼬끼요수닭과 많은 알을 낳아주는 꼬꼬댁암닭을 어떻게 잔치상에 올린단 말이냐? 그럴수 없다!》

꿀꿀이는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때 야웅이가 꿀꿀이에게 한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얘, 꿀꿀아, 어디 네가 한 일을 좀 말해보려무나.》

그러나 꿀꿀이는 척 붙어버린 입을 다시는 열지 못했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날마다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쿨쿨 낮잠이나 자다가 남이 벌어들인거나 쳡쳡 먹으며 살아오던 꿀꿀이가 부지런히 일하는 그들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주인의 잔치상에 오를 짐승이 누구라는건 뻔하게 되였구나.》

황소의 말에 모두들 머리를 끄덕이며 자기네 보금자리로 흩어져갔습니다. 텅빈 마당 한구석에는 꿀꿀이만 혼자 남았습니다.

둥근달도 긴긴세월 게으르게 보람없이 살아온 꿀꿀이를 쌀쌀하게 내려다보며 차거운 빛을 뿌려주었습니다.

《아이구, 내 신세야! 한평생 빈둥빈둥 놀고먹는게 늘어진 상팔자인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꼴이 되였담. 결국 잔치상에 오를 놈은 나밖에 없구나! 으흐흑…》

꿀꿀이는 눈물을 뚝뚝 떨구며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때늦은 한탄이였습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솔개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생김새가 서로 다른 세 포수가 살았습니다.

한사람은 수수대처럼 키가 큰 키다리포수였고 다른 사람은 몸이 절구통같은 뚱뚱한 포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난쟁이포수였습니다.

힘과 재주가 남다른데다 총까지 잘 쏘는 그들은 날마다 숲속으로 들어가 노루나 사슴같은 짐승들을 잡아 어깨우에 둘러메고 내려오군 하였습니다.

그들은 잡아온 짐승을 한마리도 남에게 거저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꼭 돈을 받고 팔군 하였습니다.

돈을 모아 저마끔 기와집도 짓고 재물도 사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였습니다.

세 포수는 그동안 잡은 짐승가죽을 팔려고 고개너머 고을로 갔습니다.

관가앞을 지나던 그들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관가벽에 커다란 방(광고)이 나붙었는데 그앞에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있었습니다.

(무슨 방이 나붙었을가?)

세 포수는 호기심이 나서 사람들이 있는쪽으로 스적스적

걸어갔습니다.
사람들틈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 방을 읽어보던 세 포수는 눈이 번쩍 띄였습니다.
거기엔 호랑이를 잡아다 바치는 사람에게 높은 벼슬과 재물을 준다는 글이 씌여져있었습니다.
세 포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호랑이를 잡아다 바치고 벼슬과 재물을 얻어 남부럽지 않게 살고싶은 욕심이 났던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호랑이를 잡을 생각을 하니 막막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숱한 짐승들을 잡으면서도 호랑이는 한번도 보지 못했던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등뒤에서 이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 내가 포수라면 제꺽 호랑이를 잡아다 바칠텐데 포수가 못된게 한이로군!》
세 포수는 얼핏 고개를 돌려 말소리의 임자를 찾아보았습니다.
약초구럭을 멘 늙수그레한 사람이 아쉬운 표정을 짓고 서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어디에 있소?》
세 포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아래우를 흘깃 바라보고난 그는 《임자들은 포수들인가?》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렇수다.》
《그렇다면 사슴골에 사는 할아버지를 찾아가게. 얼마전에 약초캐러 갔다가 호랑이를 보았다네.》
《그게 정말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끄덕하였습니다.
세 포수의 얼굴은 금시에 환해졌습니다.
《사슴골할아버지라…》

키다리포수는 눈을 끔벅끔벅하다가 팔러왔던 짐승가죽들을 그대로 둘러멘채 집으로 바삐 걸어갔습니다.

먼저 가서 호랑이를 잡을 생각이 났던것입니다.

(엉?)

뒤늦게야 키다리포수의 속심을 알아챈 두 포수도 팔들을 휘저으며 부랴부랴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슴골할아버지네 집에 제일먼저 들어선것은 키다리포수였습니다.

《할아버지, 호랑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키다리포수는 사슴골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약초뿌리들을 손질하던 사슴골할아버지는 키다리포수의 아래우를 두어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난 모르네.》

《모르다니요? 약초캐러 갔다가…》

《글쎄 모른다질 않나.》

사슴골할아버지는 두말도 못하게 딱 잡아뗐습니다.

그때 뚱뚱보포수가 씨근거리며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할아버지, 호랑이가 있는 곳을 좀 대주십시오.》

뚱뚱보포수는 백발수염을 길게 내리드리운 사슴골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슴골할아버지는 뚱뚱보포수와 키다리포수를 번갈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할듯 하더니 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난 모르네.》

키다리포수와 뚱뚱보포수는 어리벙벙해진 눈길로 서로 얼굴들을 마주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난쟁이포수가 또 뛰여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호랑이를 잡을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사슴골할아버지는 손에서 약초뿌리를 놓고 자리에서 움쭉 일어섰습니다.

세 포수를 한사람한사람 둘러보고난 사슴골할아버지는 《호랑이를 잡겠다고 나선걸 보니 모두 한다 하는 포수들 같은데 어디 임자들의 힘과 재주를 좀 보세.》 하며 마당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저길 보게.》

세 포수는 사슴골할아버지가 가리키는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스라한 잣나무꼭대기에 잣송이 세개가 매달려 바람에 흔들거리고있었습니다.

《저 잣송이를 쏘아 떨구어보게.》

사슴골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간 《땅!》 세방의 총소리가 동시에 나며 잣송이들이 칼에 잘리운듯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슴골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끄덕하였습니다.

《명포수들이군. 거 솜씨가 이만저만 아닐세.》

《뭐 그쯤 가지구 솜씨라고 할것까지야 없지요. 내 진짜 솜씨를 한번 보여드리지요.》

뚱뚱보포수가 떡메같은 주먹을 슬슬 쓸며 박우물쪽으

로 걸어갔습니다.
박우물옆에 놓여있는 바위앞으로 다가간 뚱뚱보포수는 《얏!》하며 주먹으로 바위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쩡!—
집채같은 바위가 박타개듯 두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뚱뚱보포수는 보란듯이 사슴골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음, 과시 힘이 장사로군!》

사슴골할아버지는 수염을 내리쓸었습니다.
《내 힘에 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하며 이번엔 키다리포수가 나섰습니다.
집뒤에 솟아있는 박달나무앞으로 다가간 키다리포수는 나무밑둥을 거머쥐더니 읏!— 하고 기운을 썼습니다. 어찌나 손아귀힘이 센지 아름드리 박달나무가 우지직— 소리를 내며 비틀어졌습니다.
《됐네, 그만하게.》
사슴골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난쟁이포수한테로 돌아섰습니다.
순간 《얏!》 하는 소리가 나며 난쟁이포수가 온데간

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사슴골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두릿거렸습니다.

그때 머리우에서 《할아버지, 여기를 보십시오.》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슴골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새 올라갔는지 박넝쿨이 무성한 지붕우에 난쟁이포수가 두손을 허리에 짚고서서 장한듯이 내려다보고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올라왔던김에 박 한통 따드릴가요?》

《그렇게 하게.》

난쟁이포수는 박을 한통 따들고 마당에 사뿐히 뛰여내렸습니다.

사슴골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세 포수를 바라보다 드디여 입을 열었습니다.

《나삐들 생각말게. 사실 난 호랑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구있네.

그 호랑인 황소보다두 큰 놈일세. 이제까지 모른다고 한건 괜히 서뿔리 대주었다가 호랑이밥이나 되지 않을가 걱정해서였네.

임자들의 힘과 재주를 합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호랑이를 잡을수 있을걸세. 그래, 그렇게 할텐가?》

그러자 세 포수는 저마끔 앞을 다투어 말하였습니다.

《예, 힘과 재주를 합쳐 잡겠으니 그 호랑이가 있는 곳만 대주십시오.》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는데 두말할거 있겠습니까? 어서 대주십시오.》

《그럼 내 말을 잘 듣게.》

사슴골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범골로 가는 길을 자세히 가리켜주었습니다.

사슴골할아버지와 헤여진 세 포수는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면서 범골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범골을 헤매도 사슴골할아버지가 말하던 호랑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숲속을 헤매던 세 포수는 큰 바위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범골에 있다던 호랑이가 왜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군. 사슴골할아버지가 헛말을 한게 아닌가?》

난쟁이포수가 두 포수를 돌아보며 말하였습니다.

《그러게말일세. 그사이 노루나 사슴을 잡았으면 한밑천 뽑았을텐데…》

뚱뚱보포수가 투덜댔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던 키다리포수가 자리에서 움쭉 일어나더니 앞에 쌓여있는 가랑잎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움푹 들어간 가랑잎을 들여다보던 세 포수는 무릎들을 철썩 쳤습니다.

큼직한 호랑이발자국이 나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난 세 포수는 내기라도 하듯 부지런히 호랑이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숲을 지나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세 포수앞에 커다란 바위굴이 나졌습니다.

(음, 호랑이가 저 바위굴안에 들었구나.)

세 포수는 호랑이굴에서 멀지 않은 바위뒤에 엎드려 총들을 겨누고 이제나저제나 호랑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호랑이굴을 지켜보는 세 포수의 머리엔 문득 (굴에 든 호랑이야 혼자서도 얼마든지 잡을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를 독차지하고싶은 욕심이 났습니다.
그들은 사슴골할아버지와 한 약속은 어느새 감감 잊고 저마끔 궁리를 짜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조용한 호랑이굴을 바라보며 눈을 꺼벅꺼벅하고있던 키다리포수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이거 호랑이가 없는 빈 굴을 지키고있지 않는지 모르겠군.》 하며 두 포수의 눈치를 슬쩍 살폈습니다.
자기 말을 듣고 호랑이를 찾아 딴 곳으로 자리를 뜨지 않을가 해서였습니다.
(흥! 호랑이를 혼자 잡고싶어 속다른 소릴 하는구나. 그런 말을 한다구 여기서 떠날줄 알구. …)
뚱뚱보포수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나서 《내 말이 그 말일세. 여기서 호랑이를 잡기는 코집이 틀렸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있던 난쟁이포수가 두 포수를 돌아보며 《빈 굴은 내가 지킬테니 임자들은 다른 곳에 가서 호랑이를 찾아보지 않겠나?》 하였습니다.
(엉?)
두 포수는 그만 말문이 막혀 입을 꾹 다물고말았습니다.
세 포수는 말없이 눈들을 부릅뜨고 호랑이굴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풀숲에서 찌르륵거리는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려올뿐이였습니다.
(이거 정말 빈 굴을 지키고있는게 아니야?)
세 포수가 고개를 기웃거릴 때였습니다.
별안간 산 아래쪽에서 나무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

니다.
소리나는쪽을 바라보니 큰 사슴 한마리가 나무가지에 뿔이 걸려 허둥대고있었습니다.
(엉? 저게 웬떡이야!)
세 포수는 총들을 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뚱뚱보포수가 먼저 산밑으로 냅다 뛰여갔습니다.
키다리포수도 사슴을 먼저 차지하려고 긴 다리를 번개같이 놀리며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뛰여가려던 난쟁이포수는 흠칫 멈춰섰습니다.
호랑이굴에서 무엇이 언뜻하였습니다.
난쟁이포수는 얼핏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리가 늘씬한 황소만한 호랑이가 굴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다시 굴속으로 들어가고있었습니다.
《아차!》
난쟁이포수는 혀를 깨물었습니다.
사슴때문에 호랑이를 놓친 생각을 하니 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차 히벌쭉 웃었습니다.
(굴속에 있는 저 호랑인 이젠 올데갈데없이 잡아놓은 호랑이다!)
난쟁이포수는 호랑이가 다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래쪽에서 사슴을 놓쳐버린 두 포수가 투덜대며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쟁이포수는 이마살을 찌프렸습니다.
(제길할것, 좀더 있다가 올라올것이지. 저것들이 호랑이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할텐데…)
난쟁이포수의 머리에 피뜩 한가지 수가 떠올랐습니다.
난쟁이포수는 더 생각할 사이도 없이 두 포수가 놓고

간 총을 바위뒤 풀숲에 감쪽같이 숨겨놓았습니다.
두 포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눈들이 휘둥그래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내 총이 어디 갔나?》
《내 총두 없어졌네.》
난쟁이포수는 못들은체 하고 호랑이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닌보살하고있는 난쟁이포수를 바라보던 두 포수는 약속이나 한듯 서로 얼굴들을 마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사납게 번뜩거렸습니다.
(네놈이 호랑이를 혼자 잡을 욕심에 총을 감췄구나!)
난쟁이포수를 노려보던 두 포수는 《이 죽일놈!》하고 버럭 소리를 치며 난쟁이포수한테 덤벼들었습니다.
난쟁이포수는 날쌔게 몸을 빼려고 하였으나 뚱뚱보포수의 손에 붙잡히고말았습니다.
뚱뚱보포수는 난쟁이포수가 어쩔 사이없이 그를 머리우로 버쩍 쳐들었습니다.
《아, 이러지 말게. 사실은 그런게 아니라…》
난쟁이포수는 뭐라고 말하려고 하였으나 더 말할 사이가 없었습니다.
《에잇!》 하는 소리가 나며 그의 몸은 돌멩이처럼 골짜기를 날아지나 가시나무숲에 처박혔습니다.
씨근거리며 돌아서던 뚱뚱보포수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큰 너럭바위우에 황소만한 호랑이가 허리를 길게 펴고 누워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총, 총이 어디 있어?》
뚱뚱보포수는 허둥대며 총을 찾았습니다.
총은 키다리포수의 손에 쥐여져있었습니다.

《여보게, 그 총을 이리 주게!》
뚱뚱보포수는 키다리포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총을 주다니?》
키다리포수는 뚱뚱보포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아섰습니다.
키다리포수도 호랑이를 보았던것입니다.
《총을 이리 주지 못하겠나?》
뚱뚱보포수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왜 큰소린가. 저 호랑인 내결세.》
《뭐라구?》
《호랑이발자국을 처음 본건 내가 아닌가. 저 호랑인 내가 잡아야겠네.》
《에끼, 이 욕심이 산같은 놈!》
뚱뚱보포수는 더 참지 못하고 와락 덤벼들며 총을 덥석 쥐였습니다.
《이걸 놓지 못하겠나!》
《정 이럴텐가!》
두 포수는 저마다 총을 빼앗겠다고 씨근거리며 밀고당겼습니다.
그때 두 포수의 머리우에서 무엇이 언뜻하였습니다.
그들은 얼결에 몸을 피하였습니다.
딱!
서까래같은 몽둥이가 총대에 떨어졌습니다.
난쟁이포수가 달려든것이였습니다.
우지끈!
총대가 꺾어졌습니다.
《이놈!》
《이 쌍놈!》
《개같은 놈!》
성이 꼭두까지 치밀어오른 세 포수는 주먹들을 휘두르며

서로 치고받았습니다.

너럭바위우에 누워있던 호랑이는 무슨 일인가 해서 머리를 쳐들고 물끄러미 건너다보았습니다.

바위가 부서지고 나무가 와지끈— 부러졌습니다.

《에끼, 이 벼슬에 환장이 된 놈!》

《에끼, 이 재물밖에 모르는 놈!》

《에끼, 이 천벌을 받을 놈!》

그들은 맞붙었다가는 떨어지고 떨어졌다가는 다시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들이 땅바닥에 벌렁 넘어져 헐떡거릴 때였습니다.

《따웅!—》

벽력같은 호랑이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세 포수의 싸움을 지켜보던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시뻘건 입을 쩍 벌리고 한걸음두걸음 다가왔습니다.

《아이쿠!》

그들은 호랑이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땅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바위를 깨고 아름드리나무를 비틀며 지붕을 날아넘던 그들의 힘과 재주는 서로 싸우느라고 이미 다 없어진 뒤였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던 세 포수는 고스란히 호랑이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 백두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산골마을에 쇠돌이라는 총각이 살고있었습니다.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누이동생과 함께 살고있는 쇠돌이는 마을뒤산에서 늘 무술훈련을 하였습니다.

몇해전 마을에 달려든 이웃나라 도적패당들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잃은 아버지의 원쑤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도적무리들은 가끔 마을에 쳐들어와 쌀과 소, 닭을 비롯한 재물들을 마구 빼앗고 고운 처녀들을 제놈들의 소굴로 끌어가군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만 할뿐 어찌지 못하고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말타기와 창다루기, 활쏘기와 칼쓰기 등 무술에 능한 도적들을 도저히 당해낼수가 없었던것입니다.

도적과 맞받아 싸우다가 부상당한 쇠돌이 아버지는 림종의 시각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쇠돌아, 무술훈련을 잘해서 기어이 저 도적들을 한놈도 남기지 말고 쳐없애다오.》

그날부터 쇠돌이는 뒤산에 올라가 초막을 짓고 살면서 첫닭이 우는 이른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제 혼자 무술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쇠돌이는 앓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동

생이 못내 그리워 자정이 넘어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열에 떠 신음소리를 내던 어머니는 쇠돌이를 보자 대뜸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사내대장부가 사사로운 일에 마음을 쓰면 큰뜻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당장 되돌아가지 못하겠느냐?》
쇠돌이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람의 백가지 행실가운데서 효가 으뜸이라 하였는데 앓는 어머님께 약 한첩 달여드리지 못하는 이 불효를 어찌하리까?》
《네 아버지의 유언을 벌써 잊었느뇨? 아비의 뜻을 받드는것이 효이고 마을과 나라를 위하는것이 바로 충이거늘 딴생각말고 어서 되돌아가거라.》
《오빠, 어머님 병구완은 제가 잘해드릴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무술훈련이나 잘하오이다.》
누이동생까지 이렇게 말하자 쇠돌이는 앓는 어머니의 이마도 한번 짚어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되돌아서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쇠돌이는 그길로 뒤산에 올라 또다시 무술훈련을 하였습니다.
그의 눈에선 불찌가 튕기고 온몸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리 훈련을 해도 좀처럼 그의 무술은 늘지 않았습니다.
쇠돌이는 맥이 빠져 너럭바위우에 털썩 주저앉아 아지랑이 아물거리는 먼산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웬일인지 바람도 불지 않는데 갑자기 쏴― 쏴― 숲이 설레이였습니다.
눈이 휘둥그래진 쇠돌이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웬일일가?

쇠돌이는 의아해서 머리를 기웃거리는데 쏴— 쏴— 하는 숲의 설레임소리와 함께 간간이 자기를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각님! 총각님! 쏴—쏴—》

쇠돌이는 바싹 귀를 강구었습니다.

그러자 전보다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총각님! 쇠돌이총각님! 쏴— 쏴— 백두산으로 가세요! 쏴— 쏴—》

《뭐? 백두산?》

쇠돌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손을 오그려 귀에 가져다대였습니다.

《쇠돌이총각님!… 백두산으로 가세요. … 백두산도사한테서 무술을 배우세요. …》

이것은 분명 고향의 숲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였습니다.

(백두산으로 가자. 백두산도사한테서 무술을 배우자. 내가 무술이 늘지 않는것은 배워주는 훌륭한 선생이 없기때문이다.)

쇠돌이는 더 생각해볼 겨를이 없이 백두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느고 골짜기를 가로질러 사흘낮, 사흘밤을 달려 그는 드디여 눈덮인 백두산마루에 올랐습니다.

쇠돌이는 거기서 《도사할아버지— 도사할아버지—》 하고 세번 힘껏 소리쳐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난데없는 안개가 뽀얗게 그를 둘러쌌습니다.

조금 있더니 《누가 나를 찾는고?》 하는 말소리와 함께 안개가 가뭇없이 사라지고 머리칼과 눈섭 그리고 긴 수염이 눈처럼 새하얀 백발할아버지가 쇠돌이앞에 서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백두산도사였습니다.

《도사할아버지!》

쇠돌이는 땅에 넙적 꿇어엎디여 자기가 찾아온 사연을 죄다 말하였습니다.

《음, 무술을 배우겠단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하라는대로 다할수 있는고?》

《무술만 배워주신다면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소이다.》

《한번 다진 장부의 맹약 산처럼 무겁거늘 내 임자의 갸륵한 마음을 기특히 여겨 무술과 함께 도술도 익히도록 해주겠은즉 이제부터 한치의 드팀도 없이 내 말을 따를지어다.》

《하늘과 땅에 대고 세번 맹세하나이다.》

다음날 아침, 도사할아버지는 쇠돌이에게 도를 닦으려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끼 백두산의 산나물과 짐승고기를 모두 날것으로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 음식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쇠돌이는 난생 처음 먹어보는 날음식이여서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으나 억지로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백두산의 풀과 짐승고기와 백두산의 물을 먹고 마시며 그는 도사할아버지에게서 칼쓰는 법과 창다루는 법 그리고 활쏘기와 말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배웠던지 쇠돌이의 무술은 하루가 다르게 늘었습니다.

석달열흘이 지나자 쇠돌이는 눈을 싸매고 천걸음앞에 있는 소나무가지에 달린 솔방울을 활로 쏘아떨구었고 창을 던져 고개너머에 있는 메돼지의 숨통을 면바로 찌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손으로 북을 치면서 다른 손에 든 칼로 량

옆의 풀을 휘둘러베였는데 마치 자를 대고 그은것처럼 일매지게 가쯘히 잘라놓았습니다.

《그만하면 무술은 괜찮게 익혔은즉 이제부터는 도술을 닦도록 하게.》

도사할아버지는 쇠돌이를 칭찬하고나서 그에게 한발이나 되는 장검을 주었습니다.

《이 칼은 백두산의 쇠돌로 만들고 백두산의 바위에 갈아 날을 세운 세상에 둘도 없는 보검이니라. 저기 바위벼랑우에서 흘러내리는 폭포를 자세히 들여다보느라면 물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을것인즉 그때 〈물이 끊어졌다!〉 하고 소리치면서 이 칼로 번개치듯 그 물을 썩둑 자르게. 그러면 알도리가 있느니라.》

칼을 받아든 쇠돌이는 《알겠소이다.》 하고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대답하고는 폭포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장쾌하게 쏟아져내리는 폭포앞에 버티고 서서 물기둥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쇠돌이는 조금도 눈길을 딴데 팔지 않고 온몸이 흠뻑 젖었으나 그냥 폭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번도 물이 끊어지는 순간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까딱않고 해종일 폭포를 들여다보느라니 쇠돌이는 지칠대로 지쳤으나 마음을 가다듬고 해가 지면 달빛아래서 폭포를 들여다보았고 그 달마저 사라지면 별빛아래서 폭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폭포를 들여다보는 쇠돌이의 눈앞에는 병약한 어머니의 얼굴도 떠올랐고 사랑하는 누이동생의 얼굴도 언뜻언뜻 떠오르군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귀가를 스치는 바람결에 앓는 어머니의 신음소리도 들려왔고 오빠를 찾는 동생의 애절한 목소리도 들

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쇠돌이는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집에 가보고싶은 생각이 자꾸만 지꿎게 갈마들군 하였습니다.

쇠돌이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폭포를 그냥그냥 들여다보았으나 세차게 쾅쾅 쏟아져내리는 물은 순간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돌로 만든 조각처럼 끔짝않고 서서 폭포를 지켜보는지 아흐레째 되는 날 쇠돌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도사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도사할아버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폭포는 순간도 끊어지는 때가 없소이다. 어찌 쉽없이 흘러내리는 폭포물이 끊어질 때가 있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쇠돌이를 도사할아버지는 엄한 눈길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이 끊어질 때가 없다고? 그것은 필시 임자가 딴생각을 하고있는것이 분명하니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집중해서 폭포물만 들여다보면 반드시 물이 끊어지는것을 볼수 있을것인즉 그것을 보기 전에는 다시 나를 찾지 말아라.》

쇠돌이는 폭포앞으로 되돌아가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심을 먹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끝없이 흘러내리는 물을 들여다보는 쇠돌이에겐 이 세상에 오직 자기와 폭포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노을이 하늘을 곱게 물들인 아침이였습니다. 그는 드디여 흘러내리는 물이 딱 끊어지는 순간을 발견하였습니다.

쇠돌이는 《물이 끊어졌다.―》 하고 크게 소리치며 칼을 높이 들어 멎어선 물기둥을 가로 썩 베여버렸습니다.

그러자 바위가 무너져내리는듯 짱— 짜르릉— 하는 요란한 소리가 하늘땅을 울리였습니다.

어찌나 번개치듯 빨리 베였던지 그의 보검엔 물이 한방울도 묻지 않았습니다.

더욱 신기한것은 물을 베자 쇠돌이의 칼에서 눈부신 빛발이 뿜어져나왔습니다.

그 빛발은 백두산의 봉우리들을 밝게 비쳤습니다.

그 빛을 보고 도사할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도사할아버지는 호탕하게 껄껄 웃으며 《됐네, 됐어. 백두산보검이 빛을 뿌리는것을 보니 임자의 가슴속에 오직 원쑤칠 마음만이 가득차있음이 분명할세. 명심하게. 도술의 비결은 바로 마음이고 정신일세.》 하면서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보검쓰는 법을 배워주겠네. 이 보검은 보통 칼과는 다른것이니 다루는 법도 같지 않다네.》

그날부터 도사할아버지는 보검쓰는 법을 배워주기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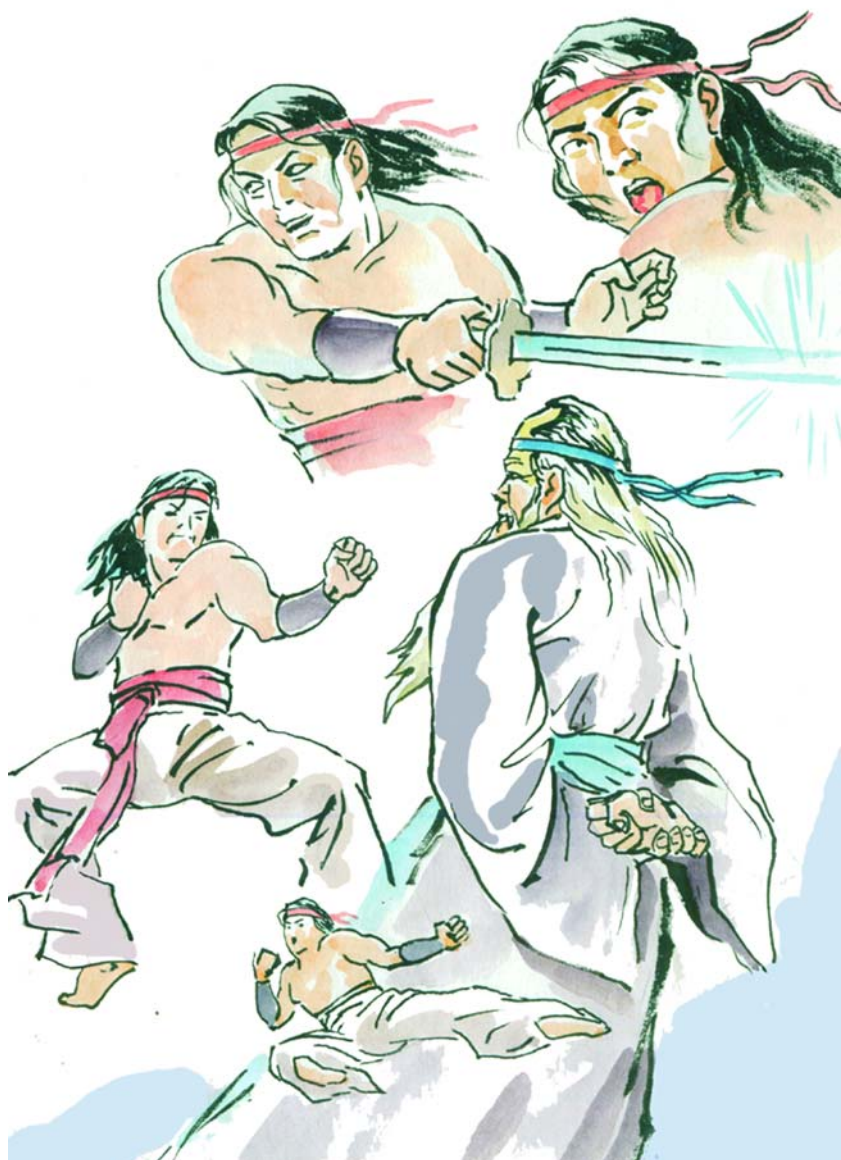
보검자루를 쥐는 방법과 휘두르는 방법 그리고 찌르고 내려치는 방법 등 하나하나 동작을 시켜가며 검술훈련을 주었습니다.

쇠돌이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대로 하루도 번지지 않고 매일 반복훈련을 하여 동작을 익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날이 가고 달이 지나면서 쇠돌이의 팔에 장수힘이 생기여 그가 보검을 한번 휘두르면 박달나무도 풀대처럼 가볍게 베여졌습니다.

쇠돌이의 보검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밝은 빛을 뿌리였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무서울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훈련을 하던 쇠돌이는 수림속에서 들

려오는 새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명소리를 따라 숲속에 달려가보니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범도 아니고 곰도 아닌 웬 흉물스럽게 생긴 짐승이 아름답게 생긴 처녀앞에서 사나운 이발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있었습니다.
위험한 순간, 쇠돌이는 보검을 빼들고 도사할아버지가 배워준 검술대로 날쌔게 그놈의 염통을 찔렀습니다.
그놈은 산이 떠나갈듯 괴상한 비명을 지르며 열길이나 올리뛰였다가 땅에 쿵하고 떨어지더니 그자리에 푹 꼬꾸라지고말았습니다.
쇠돌이는 사나운 짐승앞에서 오돌오돌 떨고있는 처녀를 일으켜세우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뉘신데 어인 일로 이런 깊은 산속에 들어와 변을 당했나이까?》
《저는 하늘나라 선녀이온데 천지물을 길으러 내려왔다가 이런 변을 당했나이다. 저를 구원해준 총각님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지 모르겠나이다.》
은방울을 굴리는듯한 선녀의 목소리에 한동안 얼이 나간 쇠돌이는 《무슨 말씀이시나이까? 불행을 당한 사람을 구원해주는것은 땅세상의 인정이온데 어찌 보답을 바라겠소이까? 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소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듯 씨엉씨엉 걸어 그자리를 떴습니다.
이때 등뒤에서 《총각님! 총각님!》 하고 찾는 선녀의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러시온지요?》
쇠돌이는 걸음을 멈추고 선녀에게 물었습니다.
선녀는 품속에서 자그마한 거울 하나를 꺼내 쇠돌이에게

주며 말하였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보답하는것은 하늘나라의 도리이온데 어찌 소녀가 그것을 어기겠나이까. 이 몸에 간수한것이 이 보경(보배거울)뿐이오니 제 성의로 아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사이다.》

얼결에 보경을 받아든 쇠돌이는 어찌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선녀는 어느 사이에 날개옷을 나붓기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던 쇠돌이는 선녀가 사라지자 그가 주고간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거울을 보니 불현듯 어머니생각이 났습니다.

쇠돌이 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자주 머리를 빗군 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쇠돌이가 어머니를 생각하자 그 보경에 어머니가 나타나는것이였습니다.

이 보경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생각하는것이면 무엇이나 다 나타나는 신기한 거울이였던것입니다.

거울에 나타난 그리운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그간 퍼그나 수척해지고 병이 깊어진것이 대번에 알리였습니다.

쇠돌이는 빨리 집으로 가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더욱 그를 놀라게 한것은 어머니의 병구완을 해주는 사람이 이웃집아주머니인것이였습니다.

동생은 어디로 갔을가?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동생이 거울에 나타났습니다.

《앗!》동생을 보는 순간 쇠돌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적놈의 소굴에 잡혀가 온몸을 꽁꽁 묶이운채 갇혀있는

동생의 불쌍한 모습이 나타난것이였습니다.

쇠돌이가 백두산에서 무술을 닦는 동안 도적무리들이 또 마을에 달려들어 재물을 로략질해가지고 동생까지 잡아간것을 그는 감감 모르고있었던것입니다.

쇠돌이는 그길로 도사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모든 사연을 다 말하고 이렇게 청을 드렸습니다.

《도사할아버지! 당장 집으로 돌아가 이 원쑤를 갚게 해주소이다. 이젠 무술도 닦고 도술도 다 익혔나이다.》

도사할아버지는 대견한 눈길로 쇠돌이를 내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장하도다. 이제는 무적의 용장이 되였은즉 아버지의 원쑤를 갚는 길에 나서거라.》

쇠돌이는 도사할아버지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길로 마을사람들과 함께 도적의 소굴을 치려 말을 몰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도적들은 무술에 능한 제놈들의 힘을 믿고 거들먹거리며 마구 달려나왔습니다.

쇠돌이는 마을사람들을 모두 뒤로 피하게 하고 보검을 하늘높이 쳐들고 혼자 적진속으로 뛰여들었습니다.

해빛을 받은 보검이 번쩍 눈부신 빛발을 뿌리였습니다.

그러자 도적들은 눈을 싸쥐고 당황하여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다가 제놈들끼리 맞부딪치기도 하고 돌에 발이 채워 나자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쇠돌이는 비호같이 몸을 날리며 보검으로 놈들을 삼대베듯 무리로 쓸어눕혔습니다.

《아이쿠!— 아이쿠!—》

여기저기서 어지러운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한참만에 도적의 소굴은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잠잠해졌습

니다.
쇠돌이는 옥문을 열어제끼고 갇혀있던 누이동생과 마을처녀들을 모두 구원하였습니다.
도적무리들을 한놈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쳐부신 쇠돌이와 마을사람들은 《만세!— 만세!—》 하고 목청껏 웨치며 하늘땅이 들썩하게 환호를 올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동구밖에까지 달려나와 승전고를 울리며 동생과 함께 말을 타고 돌아오는 쇠돌이와 마을사람들을 기쁨에 넘쳐 맞이하였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아!》
품에 안긴 쇠돌이의 머리를 쓸어주는 어머니의 손등엔 방울방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떤 원쑤든지 의지가 강하고 마음만 굳세면 이길수 있소이다.》
《옳다. 네 말이 옳구말구.》
어머니는 두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하늘나라에서 찾아내려온 선녀를 안해로 맞이한 쇠돌이는 아들딸 낳고 마을을 굳게 지키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늙은 선비가 마누라와 함께 장가간 세 아들을 데리고 살고있었습니다.

선비는 걱정없이 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들이 일을 잘하는데다가 집안살림도 마누라가 도맡아하니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선비는 토방에 나와앉아 집앞의 백양나무에서 사는 까치와 중얼중얼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가 사는 집앞의 커다란 백양나무우에서는 까치가 벌써 몇해째 살고있었습니다.

봄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까치는 변함없이 이른새벽이면 깍깍 우짖어 그 집식구들을 깨웠고 높은 나무에서 십리밖, 백리밖을 내다보고 손님이 나타나면 깍깍 우짖어 인차 소식을 알려주군 하였습니다.

선비가 어디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 반갑게 우짖으며 마중나오군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년 지나는 사이 까치는 마치도 이 집안식구처럼 되였고 선비가 토방에 나와앉아 곰방대를 빽빽 빨 때면 나무에서 날아내려와 어깨우에 앉기까지 하였습니다.

선비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이 별로 없이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어느날 마누라가 덜컥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선비는 그만 홀아버지가 되여버리고말았습

니다.

선비는 늘그막에 마누라가 없고보니 갑자기 집이 텅 빈 것 같은게 세상이 한없이 허무하기만 하였습니다.

마누라를 장례지낸 선비는 잠도 오지 않아 새벽부터 토방에 나와앉아 곰방대만 뻑뻑 빨며 한숨을 푹푹 쉬고있었습니다.

그때 백양나무가지우에서 꼬리를 초싹이며 선비를 내려다보던 까치가 그의 어깨우에 날아내려와 앉았습니다.

선비는 까치가 무척 반가왔습니다.

《허, 너도 마누라없는 내가 불쌍했던가보구나.》

그는 또 한번 담배연기를 후— 내뿜으며 한숨을 내쉬였습니다.

《까치야, 이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살림은 마누라가 도맡아하댔는데 내라는건 쌀되박을 만져본 일도 없고 아들, 며느리들은 내 눈치만 살피고있고… 아무래도 아들네 셋을 다 세간을 내야 할가부다.

난 큰아들네 집, 둘째아들네 집, 막내아들네 집, 이렇게 빙빙 돌면서 살고…》

그러자 까치가 깍깍 우짖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좋을대로 하세요. 할아버지생각대로 하세요. 깍깍.》

할아버지는 까치의 달싹이는 꽁지를 쓰다듬어주었습니다.

《그래그래, 내 생각대로 하기로 하자.》

그리하여 그는 세 아들을 불러앉히고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가고보니 이제는 이 많은 식솔의 살림을 맡아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너희들 셋이 따로따로 살림을 해야겠다.》

그는 맏아들에게는 지금 살고있는 큰집과 집주위에 있는 열마지기의 땅을 주고 둘째아들에겐 고개너머에 있는 열마지기의 땅을 주고 셋째아들에겐 강건너 일곱마지기의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아들과 셋째아들을 위해 아담한 초가집을 한채씩 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선비는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맏이네 집에서 3년, 둘째네 집에서 3년, 막냉이네 집에서 또 3년 이렇게 빙빙 돌면서 여생을 보내겠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찬동했습니다.

큰아들은 워낙 어진데다 무척 효성스러웠고 둘째아들은 사내답게 통이 크고 시원시원한 성미였습니다.

셋째아들도 무척 착하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셋째때문에 마음을 놓을수 없었습니다.

제 어미가 막내라고 일도 별로 시키지 않고 끼고있기만 한것 같았기때문이였습니다.

땅까지 제일 적게 주었기에 애처롭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수 없었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법이 그랬으니까요.

《저게 따로 나서 살림을 제대로 해나갈가?》

선비는 한숨을 쉬였습니다.

×

선비는 자기가 말한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그 집에 눌러앉아 큰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맏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매

끼 진수성찬을 대접하였습니다.
흰쌀밥을 그릇이 넘게 담아 들여왔고 고기국도 번지지 않고 올려놓군 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계절바뀔 때마다 새옷을 해드리고 심심해할세라 동네 어른들을 초청해다 술놀이도 자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 집에는 늘 음식이 넘쳐났고 손님도 끊칠새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명절처럼 흥성거렸습니다.
동네어른들은 침이 마르게 맏이를 칭찬하였고 선비령감을 무척 부러워하였습니다.
《오복중에 제일 큰 복이 자식복이라더니 령감님은 자식복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늙은 선비는 흐뭇하기만 하였습니다.
《정말 그래. 내가 마누라를 잃고 항시 마음이 울적했는데 그 어두운 구석을 큰아들, 큰며느리가 다 메워주는구만. 정말 우리 맏이같은건 드물거야.》
그바람에 맏이는 대낮에도 술에 취하여 일하러 나가지 않는 일이 드문하였습니다.
이렇게 한해가 흐르고 두해가 흘러 어느덧 3년이 되여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선비령감의 밥상이 점점 어설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고기국이 사라지고 다음에는 닭알찜이 없어지더니 밥에 잡곡이 섞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는 절반나마 보리가 섞인 밥에 멀건 시래기국이 올랐습니다.
이발이 든든치 못한 늙은 선비는 도무지 밥을 먹을수가 없었습니다.
(이녀석이 이젠 내가 시끄러워진건가?) 하는 생각이 들

었으나 아들의 얼굴을 봐선 그런 빛을 조금도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대할 때면 늘 웃는 얼굴이 예전그대로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여 아들네 식구들의 밥상을 슬그머니 내려다본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흰쌀이 한알도 섞이지 않은 깡보리밥에 맨소금을 먹고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이게 웬 변고인고?)

선비는 당장 맏이와 며느리를 불러앉히고 물었습니다.

《웬일이냐? 왜 밥상이 이 꼴로 되였느냐?》

맏이는 한참만에야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새… 살림이 그만 밑창이 났습니다.》

《뭐라구?》

선비는 기절할듯이 놀랐습니다.

몇년사이에 살림이 망해버렸다는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청허청 집안팎을 돌아보았습니다.

집앞의 두엄무지에는 고기뼈다귀와 짐승의 털이 가득 쌓여있었습니다.

담장너머 밭을 내다보니 허수아비엔 입다버린 비단옷이 걸쳐져있었습니다.

그제야 매일매일 명절처럼 풍청거린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선비는 숨이 꺽 막혀 토방에 앉아 곰방대를 빨며 하루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내가 잔소리 한마디 안하고 안방에 들어앉아 시짓고 장기두고 마을돌이나 다니는 사이에 집안살림이 이 꼴이 되였구나. 살림은 맏이가 다 맡아 어련히 잘하는줄 알았

더니…)
그러자 불쑥 둘째와 셋째네의 살림이 걱정되였습니다.
새벽이 되였을 때 백양나무우에서 우짖던 까치가 푸드득 날아내려와 그의 어깨우에 앉았습니다.
선비는 까치의 꽁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까치야, 로친네를 잃은지 3년도 못되였는데 살림이 이꼴이 되였으니 어쩌면 좋으냐. 그 재산이면 한평생을 걱정없을줄 알았는데… 둘째네는 어떻게 살고있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좀 가보고오지 않으련? 제대로 먹고살기나 하는지…》
까치는 알겠다는듯 《깍깍.》하며 푸드득 깃을 쳐 둘째네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한참만에 날아온 까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밥 먹고 산답니다, 깍깍. 풀죽먹고 산답니다, 깍깍.》
《뭐? 풀죽 먹어? 어이구, 그애도 맏이네 모양이 되였구나. 어서 가봐야겠다.》
하루밤사이에 선비는 10년은 더 늙어버렸습니다.
늙은 선비는 길을 떠나려고 마른 나무 하나를 지팽이 삼아 꺾어들고 집을 나서며 맏이에게 물었습니다.
《넌 장차 어떻게 살겠냐?》
맏이는 목이 메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수 없구나. 낡은것이라도 몇번 입다 내놓은 옷들이 웃방에 가득하니 그거라도 팔아서 살아가거라. 난 둘째네 집에 가봐야겠다.》
선비는 지팽이를 짚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백양나무가지우에 앉아있던 까치가 푸드득 깃을 치며 선비의 어깨우에 내려앉아 같이 길을 떠났습

니다.

×

둘째네 집이 가까와왔습니다.
목을 빼들고 집을 바라본 늙은 선비는 눈앞이 아뜩했습니다.
울바자는 다 넘어지고 터밭에는 잡초가 한길이나 자라고 있었습니다.
급히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니 둘째는 이마를 싸매고 누워있었습니다.
《둘째야, 웬일이냐?》
둘째는 부시시 일어나 아버지앞에 꿇어앉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선비는 또다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입이 얼어붙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만에야 겨우 《대체 무슨 일을 저질러서 그러느냐?》하고 물었습니다.
둘째는 머리만 더 떨구는데 옆에 같이 무릎을 꿇고있던 둘째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열마지기땅을 백마지기땅으로 불구겠다면서 장사를 시작했다가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뭐라구?》
선비는 눈앞이 아뜩했습니다.
아무말도 못하고 토방에 나와앉아 또 곰방대만 뻑뻑 빨며 강건너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더 큰 걱정이 왈칵 몰려들었습니다.

막내아들네는 어떻게 되였을가 하는 생각이였습니다.

철이 없는데다가 재산도 제일 적게 주었으니말입니다.

재산을 많이 준 두 형이 이 모양이 되였으니 막냉이는 거지가 되였을것만 같았습니다.

(안되겠다. 가봐야겠다.)

급히 일어났으나 다리가 후들거려 한걸음도 내짚을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팽이까지 뚝! 하고 부러져버렸습니다.

토방에 펄썩 주저앉은 선비는 울바자에 앉아 머리를 갸웃거리며 바라보는 까치에게 말했습니다.

《까치야, 네가 좀 막냉이네 집에 가보고 와주려무나. 난 맥이 없어 못가겠구나.》

까치는 푸드득 막내네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한참만에 날아온 까치가 이렇게 우짖었습니다.

《흰쌀밥 먹고 산답니다, 깍깍. 고기국 먹고 산답니다, 깍깍.》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쿠,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막내도 맏이처럼 풍청거리기 시작했구나. 땅도 적게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어쩐단 말이냐?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바로잡아줘야겠다.》

선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크나큰 걱정을 안은채 강건너마을로 허청허청 걸어갔습니다.

울바자우에 앉아 갸웃거리던 까치도 선비의 어깨우에 내려앉아 같이 갔습니다.

마침내 막내의 집이 바라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흰쌀밥에 고기국 먹고 풍청거리는 집치고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집둘레에는 울바자도 알뜰하게 두르고 지붕에는 빨간 고추까지 한벌 널려있었습니다.

급히 삽짝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막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뭐요, 돼지물에 밥알이 섞이다니? 당신은 어디서 이렇게 낟알을 천시하는 버릇을 배웠소?》

(저런 녀석 봤나?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는다면서도 저런 소릴 하다니… 풍청대던 살림이 거덜이 나게 되여 저런 무서운 깍쟁이로 됐노?… 저런 녀석이 애비가 온걸 반가와나 할가?)

선비는 선뜻 문고리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가 먼저 멍멍 짖어대며 삽짝문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개짖는 소리에 막내와 막내며느리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버님!》

그들은 아버지에게 달려와 두손을 맞잡고 모셔들였습니다.

선비는 마당을 빙 둘러보았습니다.

스무마리도 넘는 암닭이 마당에 가득차서 구구거렸고 한쪽에서는 새끼를 열두마리나 낳은 어미돼지가 꿀꿀거리고있었습니다.

울타리를 따라가며 심은 감나무, 대추나무엔 열매주렁진 가지가 무겁게 드리웠고 터밭에는 한아름이 넘는 무우, 배추가 가득 자라고있었습니다. 선비는 너무도 놀라와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면 살림을 이렇게 기름지게 꾸렸느냐? 어디서 사

향이라도 얻었느냐? 아니면 금덩이라도 잡았느냐?》
그러자 막내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린 아버님께서 주신 일곱마지기땅으로 이렇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쌀알 한알도 아껴먹고 쪼개가며 살림을 해야 한다고 하신 어머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대로 했을뿐입니다.》
선비는 마누라가 있을 때 살림이 왜 풍성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막내아들과 막내며느리의 어깨를 쓸어주었습니다.
《참 우리 막내가 용쿠나. 네 어머니가 구슬은 닦아야 빛이 나고 재산은 아낄수록 늘어난다고 늘 말하더니 그 말을 명심한 너희들이 부자로 되였구나.》
선비는 까치에게 두 아들을 불러오도록 하였습니다.
막내의 집에 와본 두 형들도 유족한 살림이란 만금의 재부에 있는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깐진 살림살이솜씨에 있다는것을 깊이 느끼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잘못 살아온 지난날을 뉘우치고 막내처럼 깐지게 살림을 하여 기울어져가던 살림을 바로잡게 되였습니다.
행복한 세 집을 다니면서 신이 나 우짖는 까치의 노래소리는 온 마을에 랑랑히 울려퍼졌습니다.

옛날 어느 산기슭에 큰 기와집이 한채 있었습니다.

이 집의 대문은 황소 세마리가 단번에 드나들만큼 컸고 담장은 지붕을 가리울만치 높았습니다.

문이 그렇게 큰것은 집주인인 변부자가 문이 커야 재물이 많이 굴러든다는 말을 듣고 자꾸 넓히다나니 그렇게 된것이요, 담장이 우뚝하게 높은것은 담이 높아야 재물이 빠지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 자꾸만 덧쌓군 하다보니 그렇게 된것이였습니다.

변부자는 크고작은 방들과 고간마다 재물을 그득그득 쌓아놓고 살았지만 한푼이라도 더 모아들이지 못해 늘 안달아하군 하였습니다.

무더운 어느 여름날이였습니다.

이날도 변부자는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슬슬 하며 어떻게 해야 더 큰 부자가 될수 있을가 하고 이궁리 저궁리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안에서 외아들 만복이의 글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넓으니라. 세상에서 제일로 귀한것은 …》

변부자가 귀가 솔깃하여 들어보느라니 만복이의 글읽는 소리는 매번 이 대목에 와서 《음… 음…》하고 갑자르며 끊어지군 했습니다.

(저렇게두 답답한 놈이라구야…)

벌떡 일어선 변부자는 방문을 벌컥 열어제끼고 버럭 소리질렀습니다.

《이녀석! 그것두 몰라? 세상에서 제일 귀한건 재물이다. 재물!》

《재물?》

만복이는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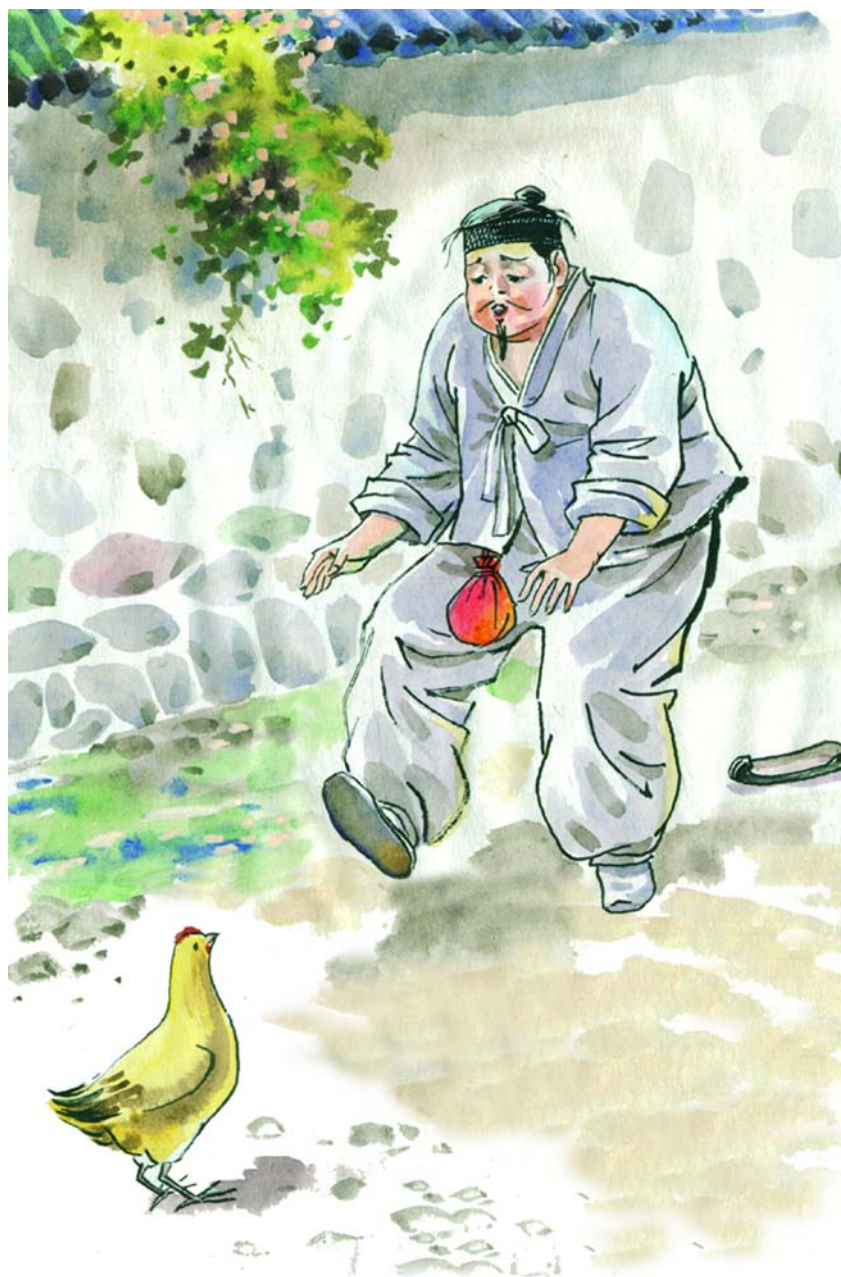
《서당에선 그렇게 배워주지 않았는데…》

《흥, 밤낮 배운다는 녀석이 그것두 몰라? …사람은 뭐니뭐니해두 재물이 많아야 잘 먹구 잘 입구 떵떵거리며 살아갈수 있는거야.》

변부자는 마뜩지 않은 눈길로 만복이를 흘겨보고나서 다시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대문밖에서 두드득—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핏 눈길을 돌리니 퉁퉁 살진 암닭 한마리가 빠금히 열린 대문안으로 들어오는것이 보였습니다.

변부자는 눈이 번쩍 띄였습니다.
(으흠, 대문이 크니 재물이 절로 찾아드누나!)
변부자는 대뜸 입이 헤벌쭉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변부자는 두팔을 벌리고 도적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닭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벼락치듯 앞으로 어푸러지며 닭을 탁 덮쳤습니다.
그러나 닭은 변부자의 겨드랑이사이로 날쌔게 빠져나와 꼬꼬댁― 꼬꼬댁― 소리를 지르며 달아뺐습니다.
(괘씸한 놈.)
털만 한줌 움켜쥔채 자리에서 일어난 변부자는 《요놈, 뛰긴 어디로 뛰여?》하고 중얼거리며 자기를 놀려대듯 요리조리 도망치는 닭을 허둥지둥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재물은 절대로 나가지 못한다.)
변부자는 구석에 몰려 갈팡질팡하던 닭이 푸드득― 날아오르는 순간 두팔로 와락 그러안았습니다.
《잡았다!》
변부자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찌쿵― 하고 대문이 열리며 웃마을에 사는 배나무집 순돌이가 들어섰습니다.
《그 닭을 이리 줘요.》
《닭을 달라구?!》
변부자는 깜짝 놀라는 시늉을 하며 순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닭은 우리거예요.》
《뭐? 너희거라구?》
《그래요. 앓아누운 할아버지 몸보신에 쓰려구 우리 집에서 기르는 닭이예요.》
순돌이는 사실대로 조리있게 말했습니다.

(공짜가 생긴줄 알았더니…)
변부자는 그만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아쉬워 입을 쩝쩝 다시며 할수없이 손에 들었던 닭을 내놓았습니다.
닭을 안고 대문쪽으로 걸어가는 순돌이의 뒤모습을 멀뚱멀뚱 바라보는 변부자의 가슴속에선 욕심이 꿈틀거렸습니다.
(내 집 대문으로 절로 찾아들어온 닭을 순순히 내놓다니…)
변부자는 하늘이 준 복을 빼앗기는것만 같아 생각할수록 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던 변부자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변부자는 황급히 순돌이를 불렀습니다.
《얘, 게 좀 섯거라.》
순돌이는 걸음을 멈추고 변부자를 돌아보았습니다.
변부자는 능청스러운 웃음을 띄우고 말했습니다.
《이 닭을 네 할아버지 몸보신에 쓰려고 그런다지?》
《그래요.》
《넌 정말 효자로구나. 효자야. 참 기특두 하지.》
변부자는 순돌이의 등을 두드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요까짓 닭 한마리로야 무슨 보약이 되겠니? 나한테 무슨 병이든 다 고치구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는 좋은 약이 있으니 그걸 가져가거라.》
《예?!》
순돌이는 영문을 몰라 변부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약도 있나요?》
《있지 않구. 능한 의원이 산삼, 록용에 별의별 희귀한 약재를 다 넣어 지어준거란다.》

《그 귀한걸 제가 어떻게…》

변부자는 순돌이가 안고있는 닭을 흘끔 보고나서 말했습니다.

《원, 별소릴… 난 네 효성에 감복해서 그 약을 주려고 하니 이왕 우리 집에 들어왔던 그 닭은 두고 가거라.》

변부자는 순돌이가 말할 사이도 없이 집안으로 씽 들어가더니 한참만에 약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걸 받아라.》

변부자는 순돌이의 손에 약첩을 쥐여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을 받아든 순돌이는 허리굽혀 인사를 하고 대문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이 모양을 지켜보고있던 만복이가 변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떠돌이약장사군한테 속아서 산걸 의원이 보구 절대로 쓰면 안된다구 버리라구 한것 아니나?…》

《에끼, 팔삭둥이같은 녀석, 별 쓸데없는 소릴 다 하누나. 그래가지군 재물을 늘이지 못해.》

변부자는 못마땅한 눈길로 만복이를 흘겨보았습니다.

그날밤이였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변부자는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디선가 꼬꼬댁—꼬꼬, 꼬꼬댁—꼬꼬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쪽으로 달려가보니 씨암닭 한마리가 마당을 오락가락하며 연방 알을 낳고있었습니다.

잠간새에 넓은 마당은 하얀 닭알들로 뒤덮였습니다.

《보통닭이 아니구나!》

변부자가 너무도 희한하여 닭알 한알을 닁큼 손에 쥐자 그 닭알이 놀랍게도 번쩍거리는 누런 금덩이로 변하는것이였습니다.

《금덩이다! 금덩이!》

변부자는 얼씨구 좋아라 한바탕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짜르릉—하는 천둥소리에 놀라 후닥닥 잠에서 깨여났습니다.

《망할놈의 천둥소리에 복꿈이 달아났군.》

변부자는 아쉽기 그지없었습니다.

꿈이기는 했으나 황금닭을 놓친것만큼이나 분했습니다. 밖에 나오니 먹물을 뿌린듯 캄캄한 하늘에서 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리고있었습니다.

번쩍—번쩍— 번개가 일고 짜르릉—짜르릉— 우뢰가 울었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쏟아져내렸습니다.

곱절이나 불어난 강물은 시뻘건 흙탕물이 되여 솨— 솨— 소리치며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강가에 달려나와 뚝쌓기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나 변부자는 밖에 나오지도 않고 집안에 꾹 박혀 재물 모을 궁리만 하고있었습니다.

산기슭 높은 곳에 자리잡은 자기네 집은 뚝이 터진다 해도 물에 잠길 걱정이 없었기때문이였습니다.

멎을줄 모르고 내리던 비는 점점 가늘어지더니 마침내 멎었습니다.

청개구리가 객— 객— 울고 구름장들사이로 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뚝을 다 쌓은 사람들은 마음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변부자는 일이 어떻게 되였나 하여 문을 열고 마루에 나왔습니다.
목을 길게 빼들고 담장너머로 멀리 강쪽을 바라보니 한껏 불어난 강물이 넘실거리며 흘러가고있었습니다.
변부자는 갑자기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강물우로 무엇인가 둥둥 떠내려오는것을 보았던것입니다.
(엉?! 저게 뭐야?)
눈을 모으고 자세히 보니 뿌리 뽑힌 큰 나무가 너울거리며 떠내려오고있는데 그뒤로 무엇인지 딱히 모를 여러가지 물건들이 또 떠내려오고있었습니다.
(숱한 재물이 떠내려오는구나. 가만… 저걸 다 건져내면 내 재물이 부쩍 더 늘어나겠는걸.)
변부자는 마당으로 훌쩍 뛰여내렸습니다.
씨근덕거리며 헛간으로 들어간 변부자는 바줄과 갈구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당에 서있던 만복이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건 뭘 하려구 그래?》
《뭘 하다니? 지금 강으로 숱한 재물이 막 떠내려오고있다. 그걸 건져야지.》
변부자는 만복이가 뭐라고 할 사이도 없이 부리나케 대문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헐레벌떡 강가에 이른 변부자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강 웃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커다란 궤짝 하나가 둥실거리며 떠내려오는것이 보였습니다.
(으흐흐, 저긴 뭐가 들어있을가? 금덩이가 있을가? 은

덩이가 있을가?)

기분이 둥 떠오른 변부자는 떠내려오는 궤짝을 홀린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궤짝은 점점 더 가까이로 떠내려왔습니다.

변부자는 갈구리를 동여맨 바줄을 빙빙 잡아돌리다가 휙— 뿌려던졌습니다.

첨벙!

바줄을 달고 날아가던 갈구리는 궤짝 있는 곳에 채 이르지 못하고 물에 떨어졌습니다.

변부자는 바줄을 걷어안고 퍼그나 떠내려간 궤짝을 따라 허둥지둥 뛰여갔습니다.

변부자는 다시 바줄을 빙빙 돌리다가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갈구리가 면바로 궤짝에 걸렸습니다.

《걸렸다!》

입이 헤 벌어진 변부자는 서둘러 바줄을 당겼습니다.

궤짝을 끌어낸 변부자는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때 강물로 큰 항아리 하나가 둥실둥실 떠내려오는것이 보였습니다.

(재물이 또 찾아오는구나! 흐흐.)

궤짝을 열어볼 사이도 없이 변부자는 갈구리를 던지려고 바줄을 휘휘 돌

렸습니다.
이때 다급한 발자국소리와 함께 순돌이가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사람이 빠졌어요—사람이—》
《뭐 사람?!》
변부자는 순돌이가 가리키는 강 웃쪽에 얼핏 눈길을 던졌습니다.
정말 웬 사람의 머리가 물에 잠겼다솟았다 하며 떠내려왔습니다.
(이러단 항아리를 놓치겠군.)
변부자는 휘휘 돌리던 바줄을 팔을 허우적거리며 떠내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둥실거리며 떠내려오는 항아리를 겯주어 힘껏 던졌습니다.
날아간 바줄은 항아리에 걸렸습니다.
《걸렸다!》
변부자는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러는 변부자를 어이없는 눈길로 바라보던 순돌이는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을 따라 아래로 냅다 뛰여갔습니다.
그러거나말거나 변부자는 바줄을 연방 휘둘러대며 재물을 끌어냈습니다.
궤짝, 항아리, 돼지, 집재목, 망아지… 별의별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변부자는 건져낸 물건들을 모두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변부자는 무둑히 쌓인 재물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궤짝속에선 귀한 웅담과 록용이 나오고 항아리안엔 산꿀이 가득했습니다.
한 농짝엔 비단필이 그득히 들어있었습니다.
《홍수가 나한텐 재물을 가져다주었구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변부자는 너무 좋아 춤이라도 한바탕 추고싶었습니다.

그때 찌궁— 하고 대문이 열리더니 마을사람들이 웬 사람을 등에 업고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변부자는 눈이 휘딱 뒤집혀졌습니다.

뜻밖에도 자기 아들 만복이를 업고왔던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야?》

변부자는 불에 덴 소마냥 펄쩍 놀라 소리질렀습니다.

《이집 아들이 홍수에 떠내려오는 재물을 건지려구 강에 나갔다가 물에 빠진걸 우리가 건져냈수다.》

《그럼 아까 떠내려오던 그 사람이?…》

《그렇수다. 물에서 건진 만복이를 살리려구 당신이 순돌이한테 준 그 귀한 약까지 써주었는데두 종시 피여나질

못했수다. …》

《뭐?! 내가 준 약을 ?!…》

변부자는 눈앞이 아뜩하여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얼빠진 변부자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그럼 그 약이?!》

사람들은 너무도 기가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사람보다야 귀할텐가!》

《변부자가 재물에 환장이 되여 결국 제 아들을 죽였구만!》

마을사람들은 무둑히 쌓인 재물과 변부자를 쓰겁게 바라보고나서 큰 대문을 나와 제각기 집으로 흩어져갔습니다.

《아이구! 3대독자 외아들을 죽였으니 우리 가문은 망했구나!》

변부자는 콩알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며 통탄했으나 그것은 이미 때늦은 후회였습니다.

옛날 우리 나라 어느 바다가에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높은 산이 솟아있고 앞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진 도래굽이에 도래마을이 자리잡고 이산저산 골짜기를 씻어내린 시내물이 모여들어 바다로 흘러드는 곳에는 나루마을이 자리잡고있었습니다.

도래마을과 나루마을사람들은 산에 올라 열매도 따고 바다에 나가 물고기도 잡고 땅을 갈아 농사도 지으면서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이고장 사람들은 조상때부터 살아오는 자기네 마을을 사랑하면서 용맹도 슬기도 다 이고장에서 키웠습니다.

그들은 억세게 뻗어나간 산발들의 장한 기상을 타고난듯 참으로 용감하고 슬기로왔습니다.

침략자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은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용감히 싸워 물리치군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해 바다건너 날강도놈들이 쳐들어올 차비를 하고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을사람들은 적을 막아내고 고향땅을 지켜낼 차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래마을사람들은 자기 마을에서 나서자란 무쇠장군을 자기네 대장으로 삼고 나루마을사람들은 자기 마을에서 나서자란 억쇠장군을 자기네 대장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른과 아이 할것없이 모두 떨쳐나서 호미와 보

습을 벼리던 야장간에서 창과 칼을 벼리고 활과 화살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다가 모래불에서는 싸움연습도 벌리고 활쏘기, 말타기, 창과 칼쓰기, 배타기 같은 별의별 연습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연습을 통하여 원쑤와 싸워 이길수 있는 용맹과 슬기를 키워나갔습니다.

얼마전부터 두 마을사람들은 내기를 시작하였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키워온 슬기와 힘을 남김없이 떨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장들의 차례가 되여 무쇠장군과 억쇠장군이 서로 겨루어보게 되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쇠장군이 이긴다느니 억쇠장군이 이긴다느니 하며 떠들썩하였습니다.

드디여 두 장군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쇠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나오는 무쇠장군을 바라보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리에 찬 긴 칼을 절커덕거리며 나오는 름름한 억쇠장군을 가리키며 환성을 올렸습니다.

두 장군이 말을 타고 나오자 허연 수염을 쓸며 장수골할아버지가 마주 걸어나왔습니다.

한창 젊었을 때는 슬기롭고 용감한 장수로 이름을 떨치며 숱한 외적들을 쳐부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을 장수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수골할아버지는 두 장군을 보고 《이제부터 내기를 시작하겠네. 그럼 저앞을 내다보게.》 하고 한손을 들어 바다가쪽을 가리켰습니다.

두 장군은 장수골할아버지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모래언덕에 우뚝 서있는 큰 나무말뚝 하나가 눈에 띄웠습니다.

《이제 내가 저 말뚝을 쏘겠네.》

장수골할아버지의 말에 두 장군과 구경군들은 영문을 몰라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그것은 내기를 시키는 사람이 활을 쏘겠다고 나서기때문이였습니다.

이어 장수골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내가 쏜 화살이 저 말뚝에 날아가 박히기 전에 말을 몰아 달려가서 그 화살을 막아보게.》

장수골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은 또 놀랐습니다.

글쎄 어떻게 날아가는 화살을 앞서 달려가 그것을 막아낼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내기를 보아왔지만 정말 이런 내기는 처음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뭐라고 수군거리며 장수골할아버지와 두 장군을 번갈아쳐다보았습니다.

무쇠장군도 억쇠장군도 이 어려운 내기에는 감히 나서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하였기때문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먼저 억쇠장군이 말을 타고 나섰습니다.

그는 슬며시 말머리를 바다가쪽으로 돌리고 거리를 가늠해보더니 말갈기를 슬슬 쓸어주었습니다.

말은 고개를 주억거리며 다리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곧 쏘겠네.》

장수골할아버지는 활쏘기명수로 알려졌던 젊었을 때 솜씨를 사람들앞에 다시한번 보여주는듯싶었습니다.

날랜 솜씨로 등에 진 살통에서 화살 한대를 뽑아든 할아버지는 그것을 팽팽한 활줄에 건 다음 멀리 바라보이는 말뚝을 겨누었습니다.

활짱과 활줄이 달처럼 둥그렇게 휘여든 순간이였습

니다.

《핑!》

활줄 우는 소리가 나며 화살은 하늘로 날아올랐고 말을 타고있던 억쇠장군은 갑자기 말과 함께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뚝앞에서 무엇이 번쩍하는것 같아 바라보니 그것은 긴 칼을 손에 든 억쇠장군이 아니겠습니까?

《야!》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일시에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억쇠장군은 말을 몰아 이쪽으로 달려오고있었습니다.

장수골할아버지와 마을사람들은 말뚝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그자리에 우뚝 서고말았습니다.

말뚝앞 모래우에 두동강이 난 화살이 떨어져있기때문이였습니다.

장수골할아버지는 두동강난 화살을 집어서 대여보았습니다.

그 기장이 신통히도 꼭 같았습니다.

글쎄 날아가는 화살보다 더 빨리 달려간것도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면바로 겨냥했으면 그렇게 자로 잰것처럼 동강을 낼수 있었겠습니까?

장수골할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이며 흐뭇이 웃었습니다.

다음에는 몸집이 우람한 무쇠장군이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말을 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수골할아버지는 말뚝을 겨냥하고 또다시 화살을 하늘높이 올리쏘았습니다.

《핑!》
시위줄이 운 순간 사람들은 또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땅이 무너져내리는듯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눈앞에 서있던 무쇠장군이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기때문입니다.
모래언덕 말뚝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서 바라보니 언제 벌써 그리로 달려갔는지 무쇠장군이 쇠몽둥이로 화살을 후려치고있었습니다.
그리로 달려간 사람들은 쇠몽둥이에 맞아 산산이 부서져 땅에 떨어진 화살쪼각들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장수골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쪽에서 꼬댁꼬댁하고 다급한 닭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쪽을 바라보니 커다란 독수리 한마리가 닭을 채안고 하늘높이 솟구쳐오르고있었습니다.
《저놈의 독수리 봐라!》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치며 발을 구르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핑— 하는 소리와 함께 두개의 화살이 일시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자 하늘로 솟구쳐오르던 독수리가 날개를 접으며 갑자기 돌멩이처럼 땅으로 떨어져내려왔습니다.
《야!》
구경군들속에서는 별안간 환성이 터져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두개의 화살이 박힌채 땅바닥에 곤두박혀 죽은 큰 독수리 한마리와 살아서 뛰여가는 닭을 바라보며 모두 혀를 찼습니다.
《과연 명궁들이군!》
《두 장군의 무술이 어슷비슷하여 누가 더 나은지 도

무지 가려낼수가 없거든. …》

장수골할아버지는 죽은 독수리를 잠간 들여다보고나서 웅성거리는 군중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내기를 시키려는지 궁금해하며 호기심에 찬 눈으로 장수골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장수골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하얀것을 꺼내들고 두 장군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마지막내기네. 이번에는 이걸 저 담장너머로 넘겨보게.》

장수골할아버지는 그 하얀것을 무쇠장군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하르르한 닭털이였습니다.

무쇠장군은 눈이 둥그래서 장수골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이것도 내긴가요?》

무쇠장군은 아이들의 놀음같은 생각이 들어 이마살을 찌프렸습니다.

장수골할아버지는 무쇠장군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서 받게. 이 내기가 이래보여두 그리 수월한 내기가 아니라네.》 하고 말했습니다.

무쇠장군은 하는수없이 닭털을 받아들기는 하였으나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길 남짓한 담장너머로 손가락 두마디기장도 안되는 조그만 닭털을 넘기라니 무쇠장군으로서는 너무도 어이없는 일로 생각되였습니다.

무쇠장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담장을 향해 닭털을 되는대로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닭털은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머리우에 둥둥 떠올랐다가 나무잎처럼 나풀거리며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야, 요것 봐라!》

무쇠장군은 이상하다는듯 머리를 기웃거리며 닭털을 집어들더니 다시 던졌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어깨에서 우쩍 소리가 나도록 힘껏 던지기도 하였으나 힘을 넣어 던지면 던질수록 닭털은 애를 먹이며 뒤로 돌아오군 하였습니다.

구경군들속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채같은 바위도 번쩍 들어 윙윙 내던진다는 무쇠장군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통 알수가 없었습니다.

무쇠장군은 톡톡히 망신을 당하는것 같아 구경군들이 있는쪽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다시 던져보군 하였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무쇠장군은 다른 뾰족한 수는 생각나지 않고 어깨죽지만 떨어지는것 같아 하는수없이 뒤로 물러서고말았습니다.

《허 참, 별내기를 다 해보는군!》

그는 물러서기는 하면서도 장수들한테 알맞는 내기를 시키지 않고 왜 이런 하찮은 내기를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혼자 투덜거렸습니다.

무쇠장군이 물러서자 장수골할아버지는 그 닭털을 억쇠장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억쇠장군은 닭털을 손에 든채 머리를 들어 바람새를 살폈습니다.

몹시 잔잔한 날씨였습니다.

바다도 잠든듯 고요하고 쏴쏴 설레이던 소나무숲도 숨을 죽인듯 고요했습니다.

사시나무마저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날씨를 살펴본 억쇠장군은 닭털을 손바닥우에 살그머니 올려놓았습니다.

무쇠장군은 혼자 머리를 흔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북했으면 내가 물러섰을라구.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건가? 저렇게 해서 될게 뭔가?》

무쇠장군은 억쇠장군도 뾰족한 수가 없이 자기처럼 창피나 당하고 물러설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억쇠장군은 닭털을 올려놓은 손바닥을 가만히 입가로 가져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숨소리를 죽이고 억쇠장군의 그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고있었습니다.

장수골할아버지만 빙긋이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조용히 서있던 억쇠장군의 두볼이 갑자기 불룩해지더니 후ㅡ 하고 입김을 내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손바닥우에 놓여있던 하르르한 닭털이 숨을 쉬며 갑자기 살아나기라도 한듯 하늘로 떠올라 하느적거리며 담장우로 거침없이 날아넘어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두 마을사람들속에서는 환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그바람에 무쇠장군도 눈이 둥그래서 담장을

넘겨다보았습니다.
그 하르르한 닭털은 담장너머 푸른 잔디우에 살짝 내려앉아 지혜의 승리를 선포하는듯 나풀거리고있었습니다.
무쇠장군은 그만 자기가 내기에서 졌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쇠장군은 바위도 척척 들어 집어던지는 자기가 억쇠장군한테 졌다는것이 너무나도 분해서 씨근거리며 담장밑에 우두커니 서있었습니다.
이때 장수골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등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은 힘도 세야 하지만 슬기도 다같이 있어야 하네. 산과 바다를 들어옮기는 힘이 있어도 슬기가 없이는 빛을 못내는 법이라네. …
그런데 슬기란 타고난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것도 아니라네.
무슨 일이나 덤비지 말고 찬찬히 깊이 생각하노라면 슬기가 떠오르는 법이지. 물론 적을 치자면 힘이 있어야 하지만 그 힘도 슬기를 가져야 더 큰 힘으로 되는 거라네.》
장수골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무쇠장군은 얼굴이 벌개지며 그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속으로 (닭털은 못넘겼지만 어디 두고보자. 적들이 쳐들어올 때 누가 더 용감하게 잘 싸우는가를… 진짜 판결은 그때 날걸 가지구.) 하고 단단히 별렀습니다.
그후 몇달이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바다건너 날강도놈들이 수백척의 배를 몰고 밀려왔습니다.
원쑤놈들은 새벽부터 나루마을로 쳐들어오기 시작하였습

니다.

그 소식을 들은 무쇠장군은 도래마을사람들을 거느리고 말을 몰아 나루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적들을 맞받아나가 활을 쏘며 싸우던 나루마을사람들은 웬일인지 배머리를 돌려가지고 강줄기를 타고 들어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쇠장군은 억쇠장군한테 달려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그래 적들이 저렇게 달려드는데 싸우지 않고 물러선단 말이요. 정 못견디겠으면 내가 맞받아나가 이 쇠몽둥이로 모조리 쳐부시겠소.》 하고 성난 목소리로 웨치며 당장 쳐나갈듯 쇠몽둥이를 쳐들어 적들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억쇠장군은 너그럽게 껄껄 웃으며 《무쇠장군! 이제 쳐나갈 때가 옵니다. 씨름을 할 때도 적수의 약점을 알아낸 다음에 기회를 보아 배지기를 뜨던가 다리를 걸지 않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으며 달려든 놈들은 나루마을 배들이 강으로 들어서는것을 보고 무슨 큰 수나 생긴듯이 분주히 노를 젓고 활을 쏘며 따라들어오고있었습니다.

올리부는 바람새를 따라 돛폭을 올린 날강도놈들의 배들이 물살을 거슬러 강에 몽땅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두눈에서 시퍼런 불꽃을 튕기며 억쇠장군이 큰 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둥둥 두둥둥…》

그러자 강 좌우기슭의 버들숲과 갈대숲속에서 갑자기 함성이 일어나며 불이 펄펄 붙는 불화살들이 날아올랐습니다.

그 불화살들이 날아가 돛폭들에 꽂히자 삽시간에 날강도놈들이 탄 배들에서는 삼단같은 불기둥이 솟구쳐올랐습니다.

기세등등하여 강물로 들어섰던 원쑤놈들은 순식간에 불에 타죽고 화살에 맞아 무리로 꺼꾸러졌습니다.
바빠맞은 원쑤놈들은 배머리를 돌려 바다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무쇠장군은 (아차, 잘못하다가는 저 숱한 놈들을 다 놓치겠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때 억쇠장군은 또다시 둥둥둥 북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강아래쪽으로 부랴부랴 달아나던 날강도놈들의 배들이 더 내려가지 못하고 멈추어섰습니다.
억쇠장군의 깊은 수에 또 걸렸던것입니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자 강아래쪽 량기슭에 숨어있던 마을사람들은 강물속에 늘여놓았던 쇠바줄을 수레바퀴에 감아올려 원쑤놈들이 달아나는 배길을 막아놓았습니다.
강물우에 불쑥 솟아오른 쇠바줄에 배들이 걸려 오도가도 못하게 된 적들은 시퍼런 강물을 내려다보며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쇠장군은 그것을 보고 저도모르게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억쇠장군은 그제야 북채를 놓고 일어서며 《무쇠장군, 배지기를 뜨고 다리를 걸 때가 되였나봅니다. 자, 이젠 쳐나갑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두 장군은 마을사람들과 함께 배를 몰아 쳐나갔습니다.
원쑤놈들의 배에 가닿은 두 장군은 놈들의 배우에 뛰여올라 《이놈들아! 한놈도 살려보내지 않을테다!》 하고 소리치며 이리찍고 저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빠맞은 적들은 어찌할바를 몰라하다가 강물에 첨벙첨벙 뛰여들었습니다.
두 장군은 도망치는 놈들을 긴 칼과 쇠몽둥이로 휘둘러 단번에 수십명씩 삼대베듯 쓸어버리고 마을로 돌아왔습

니다.

사람들은 이기고 돌아오는 두 장군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 환성을 올리며 달려나왔습니다.

이때 앞에 서서 걸어오던 무쇠장군이 한걸음 뒤로 물러서며 마중나온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늘의 이 영예는 응당 억쇠장군에게 드려야 합니다.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억쇠장군은 머리를 수그린 무쇠장군의 손을 덥석 잡아 높이 추켜올리며 적들을 삼대베듯 쓸어눕힌 용감한 장군이라고 군중들앞에서 그의 공로를 내세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무쇠장군의 눈앞엔 담장을 날아넘던 닭털이 우렷이 떠오르며 그때 장수골할아버지가 《사람은 힘도 세야하지만 슬기도 다같이 있어야 하네. …》라고 하던 말의 뜻이 똑똑히 안겨왔습니다.

그뒤 무쇠장군은 억쇠장군을 본받아 용맹과 슬기를 다 갖춘 훌륭한 장군이 되였습니다.

옛날 어느 산기슭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봉남이라는 아이가 할아버지, 누나와 함께 오손도손 살고있었습니다.

봉남이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가 팔기도 하고 농사짓는 할아버지와 집안일을 맡아하는 누나의 일손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봉남이는 새들도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봉남이네 집뒤로 펼쳐진 아름드리 소나무숲은 춤 잘 추는 흰 두루미들의 춤터였고 개울가의 버드나무숲은 금빛옷을 떨쳐입은 꾀꼴새들의 좋은 노래터였습니다.

두루미와 꾀꼴새들의 춤노래에 질세라 푸른 숲속에서는 후투디와 밀화부리, 개구마리, 동고비, 박새를 비롯한 여러가지 새들이 아름다운 털옷을 떨쳐입고 저마끔 목청을 돋구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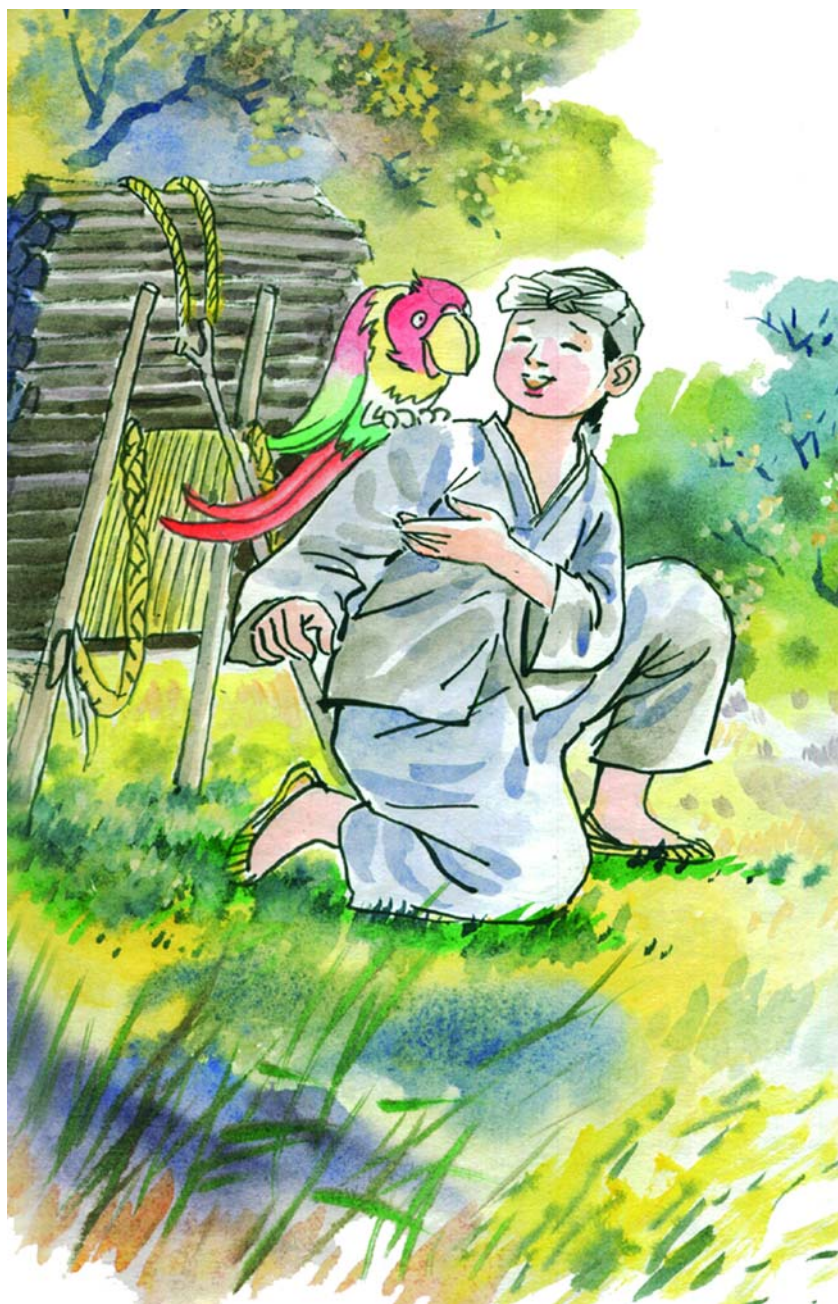
접동새와 부엉이, 외쏙독이들은 밤에도 노래를 잘 불러서 봉남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나무를 하려 산에 오를 때마다 봉남이는 피리를 꺼내들고 한곡조 멋지게 불어넘기군 하였습니다.

그러면 온갖 새들이 갖가지 목청으로 울어대며 좋아라 그의 주위에 모여들군 하였습니다.

봉남이는 새들에게 여러가지 벌레도 잡아주고 풀씨도 훑

어서 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둥지도 곱게 만들어 나무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숲으로는 해마다 더 많은 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였습니다.
그날도 봉남이는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한지게 무둑히 해서 작대기로 버텨놓은 그는 좀 쉬고 갈 참으로 그늘진 나무밑으로 들어섰습니다.
《에ㅡ 더워!》
봉남이는 수건을 벗어 얼굴에 비오듯 흐르는 땀을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데선가 《에ㅡ 더워!》 하고 그의 말을 되받아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남이는 누가 남의 말을 흉내내는가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늘 보는 산토끼와 다람쥐들만 숲속을 홀짝홀짝 뛰여다닐뿐 사람이라고는 그림자조차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데?… 내가 잘못 들었나?…》
봉남이는 고개를 기웃거리며 잔디우에 발을 쭉 펴고 앉았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후끈후끈 달아오른 몸을 식혀주었습니다.
《어ㅡ 시원해!》
봉남이는 적삼자락을 헤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어ㅡ 시원해!》 하고 그의 말을 되받아넘기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대체 누굴가?…)
봉남이는 이번엔 머리우에서 소리가 난것 같아 고개를 젖히고 나무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뜨이는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무가지끝에 앉

은 한마리의 새였습니다.
몸이 온통 반지르르한 털로 덮이고 뭉툭한 부리가 아래로 멋지게 휘여든 그 새는 유난스레 새빨간 꼬리를 달싹거리며 봉남이를 말끄러미 굽어보고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새인데 참 아름다왔습니다.
봉남이는 자리에서 움쭉 일어나며 그 새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내 말을 흉내냈니?》
《네가 내 말을 흉내냈니?》
새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흉내냈을게 뭐냐? 네가 흉내냈지.》
봉남이는 어이없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새는 이번에도 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흉내냈을게 뭐냐? 네가 흉내냈지.》 하고 꼭같은 말로 대꾸하는것이였습니다.
(저게 말 잘한다는 앵무새인게구나!)
봉남이는 너무도 희한하여 입을 쩍 벌리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앵무새를 집에서 기를 마음이 부쩍 동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다니는 풀씨를 한줌 꺼내여 손바닥에 놓고 앵무새를 향해 높이 쳐들었습니다.
앵무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모이를 잠간 살펴보더니 포르릉 날아내려와 손바닥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뾰족한 부리끝으로 풀씨를 솜씨있게 골라가며 톡톡 쪼아먹는것이였습니다.
봉남이는 앵무새의 부드러운 등어리를 살살 쓰다듬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앵무새는 모이를 배불리 먹고나서도 딴데로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봉남이의 어깨에 난딱 올라가앉았습니다.
봉남이는 기뻐서 어쩔줄 몰랐습니다.

그는 앵무새를 나무단우에 앉힌채 지게를 지고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나무 사시오— 나무요!》
봉남이는 높은 소리로 웨쳤습니다.
《나무 사시오— 나무요!》
앵무새도 소리쳤습니다.
《불땀좋은 박달나무요—》
《불땀좋은 박달나무요—》
앵무새는 봉남이의 말을 계속 따라외웠습니다.
보기드문 앵무새를 보고 숱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 참 희한하기두 하지. 글쎄 새가 사람의 말을 다 하다니…》
《생김새는 또 얼마나 이쁘우. 저 멋지게 휘여든 부리랑 쑥 삐여져나온 빨간 꼬리만 좀 보시우.》
사람들은 기가 막혀 혀끝을 차기도 하고 즐겁게 웃기도 하면서 떠들썩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새하얗게 모여들어 앵무새를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오구작작 고아댔습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러워하는것을 보고 어깨가 으쓱해진 봉남이는 나무를 눅은 값으로 얼른 팔아치운 다음 앵무새를 가슴에 꼭 품고 나는듯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버드나무가지에 오종종 모여앉아서 조잘조잘 지저귀고있던 새들이 봉남이를 보고 반기며 한꺼번에 푸르릉 날아올랐습니다.
《고—고빌레, 빗쫑빗쪼르릉, 호르르—빗, 쮸리쮸리…》
새들은 봉남이의 머리우를 춤추듯 날아돌기도 하고 머리와 어깨우에 사뿐사뿐 내려앉기도 하면서 목청을 돋구어 노래불렀습니다.
봉남이는 새들에게 모이를 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앵무새를 싸리조롱에 넣어들고 부엌으로 들

어가 아궁에 불을 지피고있는 누나에게 자랑하였습니다.

앵무새는 부엌간을 두리두리 살피고나서 고개를 꾸뻑하며 《나무 사시오— 나무요, 불땀좋은 나무요—》 하고 불쑥 말했습니다.

누나는 장작개비를 집어든채 놀라운 눈으로 앵무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말하는 앵무새가 너무 귀여워 맛있는 풀씨를 모이그릇에다 듬뿍 넣어주었습니다.

누나가 기뻐하는것을 본 봉남이는 그가 앵무새를 구경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밥을 짓도록 조롱을 처마끝에 매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앵무새가 마음대로 드나들수 있도록 조롱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봉남이는 할아버지의 일손을 도우려고 호미를 들고 집뒤터밭으로 나갔습니다.

앵무새는 두눈을 동그라니 뜨고 조롱안팎을 또릿또릿 살펴보았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솔솔 불어들고 사방이 탁 트인데다가 고소한 풀씨까지 모이그릇에 넘쳐나는 조롱은 나무구멍속의 둥지보다 얼싸하게 좋았습니다.

앵무새는 새 보금자리에 대뜸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앵무새가 모이를 맛나게 쪼아먹고있는 동안 저녁을 다 지은 누나는 상을 차려 방에 들여왔습니다.

모이를 배불리 먹고 마음이 흐뭇해진 앵무새는 방안을 넌지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상우엔 노란 조밥그릇과 흰 김이 문문 피여오르는 토장국그릇이 놓여있었습니다. 국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못견디게 코를 찔렀습니다.

앵무새는 자기가 먹은 풀씨도 기막히게 고소하지만 토장국은 더 맛이 있을것 같았습니다.

국을 꼭 한번 맛보고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상을 들여온 누나가 때마침 할아버지와 봉남이를 데리려 밖으로 나가는것이였습니다.

꼴깍꼴깍 군침만 삼키고있던 앵무새는 더는 참지를 못하고 방안으로 포르롱 날아들어가 밥상끝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뾰족한 부리를 국그릇에 가까이 가져다대였습니다.

순간 국에서 나는 뜨거운 김이 얼굴에 확 풍기였습니다.

앵무새는 그만 이크! 하고 부리를 도로 쳐들었습니다.

구수한 냄새는 더더욱 못견디게 코를 찌르는데 국이 너무나도 뜨거워 쉽사리 맛볼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는수없이 앵무새는 뜨끈한 국에 부리를 조심히 대였다가는 떼고 대였다가는 떼군 하면서 가까스로 조금 맛보았습니다.

참으로 구수한게 별맛이였습니다.

저도모르는새 국맛에 끌려든 앵무새는 또다시 부리를 국에 가져다대였습니다.

이때 밖에서 자박자박 발자국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앵무새는 황급히 밖으로 내빼려고 화닥닥 날개를 쳤습니다.

그바람에 뜨거운 국이 날개에 맞아 마구 튀여오르면서 앵무새의 이마에 들씌워졌습니다.

앵무새는 너무나 따가와 비명소리를 내지르며 정신없이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조롱속에 들어가앉은 앵무새는 가쁜숨을 할딱거리면서 얼얼해오는 이마를 날개로 뻑 쓸어보았습니다.

더운국에 덴 이마에서는 털이 뭉청 빠져나가고 그자리에는 매끈매끈한 살가죽만 드러났습니다.

이마가 못견디게 쓰려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누나가 봉남이랑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안으로 들어와 상에 마주앉은 봉남이는 자기 국그릇이 넘어진것을 보았습니다.

쏟아진 국은 상을 질펵하게 적시고 삿자리를 깐 방바닥에까지 줄줄 흘러내리고있었습니다.

봉남이는 의아하여 고개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조롱속에서 찌익찌익 앓음소리를 내며 안절부절 못하고있는 앵무새한테 눈길이 미치였습니다.

날개로 자꾸만 문지르고있는 앵무새의 이마는 홀랑 벗어져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봉남이는 국이 쏟아진 까닭을 알아차렸습니다.

《너 이놈, 이마가 벗어진것을 보니 국을 도적질해 먹었구나!》

봉남이는 조롱앞에 다가가 앵무새를 흘겨보며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간장을 가져다가 벗어진 이마에 발라주고 입김을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한참후에야 앓음소리를 그친 앵무새는 목이 타들어서 샘터로 날아갔습니다.

앵무새는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였습니다.

순간 홀랑 벗어진 이마가 맑은 물에 비끼였습니다.

(국을 도적질해 먹으면 이마가 벗어지는구나. …)

앵무새는 날개로 매끈매끈한 이마를 어루만지며 저으기 서글픈 마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후였습니다.

봉남이의 집에는 큰 경사가 났습니다.

고개너머 마을에서 일잘하고 끌끌하기로 소문난 덕쇠라는 젊은이와 누나와의 혼사말이 난것이였습니다.

며칠 지나면 덕쇠 할아버지가 누나를 보려 봉남이네 집에 온다는것이였습니다.

인물곱고 마음씨 착하고 일솜씨 또한 알뜰하여 동네방네 소문난 누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덕쇠 할아버지가 와보면 첫눈에 마음들어 할것은 뻔한 리치였습니다.

봉남이는 그지없이 기뻤습니다.

그는 집에 찾아오는 귀한 손님을 어떻게 하면 깍듯이 맞아들이고 즐거운 기분으로 돌아가도록 해드릴것인가를 두루두루 궁리하던 끝에 무릎을 철썩 갈겼습니다.

(옳지! 앵무새한테 인사말을 가르쳐주어야지. 그럼 례절밝고 령리한 앵무새를 보고 무척 기뻐하실거야.)

이렇게 생각한 봉남이는 그날부터 말잘하는 앵무새에게 인사말을 배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앵무새를 보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길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앵무새는 그 말들을 곧잘 따라외웠습니다.

그리고 봉남이뿐아니라 할아버지랑 누나랑 마을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는것을 보고도 그대로 말하군 하였습니다.

그다음 봉남이는 밥상에 마주앉아서는 《어서 드십시오.》, 《변변치 않습니다.》, 《많이 잡수십시오.》라는 말을 배워주었고 밖으로 나갈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고개길에 조심하십시오.》, 《또 오십시오.》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앵무새는 그 말을 모두 곧잘 익혀가지고 낮에는 물론 어떤 때에는 한밤중에도 그대로 꼭꼭 말하군 하였습니다.

(정말 령리한 새거든. 아마 이 세상에 저 앵무새처럼 훌륭한 새는 더는 없을거야.)

봉남이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앵무새를 더욱더 아끼고 귀중히 여기였습니다.

그는 이고장에서 보기드문 참대를 구해다가 류달리 곱고

산뜻한 조롱을 다시 만들어주었습니다.
모이도 풀씨뿐아니라 앵무새가 좋아하는 해바라기씨며 잣씨를 얻어다가 먹고싶은것을 골라먹도록 모이그릇에 듬뿍듬뿍 담아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덕쇠 할아버지가 누나를 보러 오는 날이 되였습니다.
봉남이네 집은 아침부터 흥성거렸습니다.
마을사람들이 와서 집도 거두어주고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도 만들어주었습니다.
마을아이들도 앵무새가 손님에게 인사하는것을 구경하겠다고 옹기종기 모여들었습니다.
봉남이 누나는 마을사람들이 시키는대로 곱게 차려입고 방 한구석에 다소곳이 앉아있었습니다.
봉남이는 공연히 기분이 좋아서 그저 싱글벙글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앵무새의 멋진 참대조롱을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눈에 제일 잘 뜨이는 높은 처마끝에다 둥둥 매달아놓았습니다.
앵무새도 귀한 손님을 맞는 날인줄 알아차렸는지 마을사람들이 집에 드나들 때마다 봉남이가 가르쳐준 인사말을 열심히 외우는것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을사람들은 《거 앵무새가 손님맞을 준비를 단단히 해두었구만.》 하고 소리내여 웃었습니다.
봉남이는 앵무새가 더없이 기특하고 대견스러워 그의 훌랑 벗어진 이마와 반지르르한 재빛털과 빨간 꼬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고개길을 살폈습니다.
마침내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덕쇠 할아버지가 하늘소를 타고 왈랑절랑 방울소리를 울리며 고개를 넘어 봉남이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봉남이 할아버지는 밖으로 달려나가 그를 반갑게 맞아들

였습니다.

버드나무가지에 앉아 신나게 지저귀던 새들도 무리지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것들은 저마끔 고운 목청을 내여 노래부르고 춤을 추면서 손님을 즐겁게 맞아주었습니다.

하늘소에서 내린 덕쇠 할아버지는 《어험!》 하고 위엄있게 큰 기침을 하며 뜨락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처마끝의 참대조롱속에서 손님이 들어서는것을 본 앵무새는 《안녕하십니까?》라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뜻밖에 머리우에서 나는 인사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진 덕쇠 할아버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무새는 또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조롱속의 앵무새를 알아본 덕쇠 할아버지는 너무도 신기해서 입을 하 벌리였습니다.

《먼길에 수고하셨습니다.》

앵무새는 빨간 꼬리를 달싹거리며 다시 종알거렸습니다.

《음— 이 집에선 새한테까지두 례절바르게 가르쳤구만.》

덕쇠 할아버지는 허허허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기뻐하는 기색을 본 봉남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우쭐해서 마을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봉남이 할아버지도 온 얼굴에 함뿍 웃음을 담고있었습니다.

더없이 기분이 좋아진 덕쇠 할아버지는 머리에 썼던 갓을 벗어들더니 땀흐르는 얼굴에다 대고 훌훌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의 이마가 해빛을 받아 거울처럼 번쩍거렸습니다.

앵무새는 갑자기 눈이 시여 동그란 두눈을 꾹 내려감았습니다.

그랬다가 도로 뜨고 손님의 이마를 찬찬히 여겨보았습니다.

솜털 한오리 없이 반들반들한 번대이마였습니다.

그것을 보자 국을 훔쳐먹다가 이마가 벗어졌을 때 봉남이가 꾸짖던 말이 떠오른 앵무새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덕쇠 할아버지의 머리우에서 휘휘 날아돌며 《너 이놈, 이마가 벗어진것을 보니 국을 도적질해 먹었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뭐라구?…)

뜻밖의 소리에 흠칠 놀란 덕쇠 할아버지는 앵무새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앵무새는 그가 자기 말을 듣지 못한줄 알고 이번엔 날개로 그의 벗어진 이마를 슬쩍 건드리며 《너 이놈, 이마가 벗어진것을 보니 국을 도적질해 먹었구나!》 하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뭐, 뭐라구. 이 늙은것이 70평생 농사지으며 근근히 살아오면서두 남의 바늘 한개 거저 가진적이 없는데 국을 도적질해 먹었다구? 허허 참, 그놈이 못해보는 소리가 없군.》

덕쇠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어이없어 허거프게 웃었습니다.

다시 참대조롱에 들어가앉은 앵무새는 자기가 말을 잘해서 웃는줄 알고 《허허 참, 그놈이 못해보는 소리가 없군.》 하고 신이 나서 따라외웠습니다.

《엑끼, 이 고얀 놈!》

덕쇠 할아버지는 발로 땅을 탕 구르며 고함질렀습니다.

《엑끼, 이 고얀 놈!》

앵무새도 한발을 난딱 들었다놓으며 제꺽 되받아넘겼

습니다.
《그만 닥치지 못해!》
덕쇠 할아버지는 노발대발해서 갓을 들어 삿대질을 하며 웨쳤습니다.
《그만 닥치지 못해!》
앵무새도 한쪽 날개를 들어 그가 하는것처럼 홰홰 내저으며 큰소리로 받아외웠습니다.
봉남이 할아버지는 무안해서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더는 참지를 못하고 하하하 소리내여 웃었습니다.
앵무새를 구경하러 모여온 아이들도 허리를 그러쥐고 뱅글뱅글 돌아가며 까르륵 깔깔 웃어댔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보는데서 얼토당토않게 체면이 깎이워 성이 꼭두까지 치밀어오른 덕쇠 할아버지는 손에 든 갓으로 참대조롱을 힘껏 후려갈겼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참대조롱은 처마끝에서 당장 날아떨어질듯이 마구 그네를 뛰였습니다.
깜짝 놀란 앵무새는 화드득 날개를 치며 조롱밖으로 도망쳐나가 정신없이 지붕우를 한고패 빙 돌아서는 높은 버드나무가지에 날아가 앉았습니다.
가슴이 할딱할딱 가쁘게 뛰였습니다.
앵무새는 두눈을 올롱하니 뜨고 손님을 내려다보며 무슨 영문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불길이 펄펄 이는 눈으로 앵무새를 쏘아보고섰던 덕쇠 할아버지는 흙묻은 갓을 집어 탁탁 털며 말했습니다.
《이젠 더 들어가보나마나요. 앵무새한테까지 그따위 말버릇을 가르친 례절없는 집과 인연을 맺았다가는 일잘하고 정직하기루 소문난 우리 가풍이 싹 흐려지겠소!》
그는 봉남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내뱉고는 갓을 쓰고 두루마기자락에 바람을 일구며 휭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사람들이 들여다보는 방구석에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앉아서 바깥동정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봉남이 누나는 너무나도 창피스러워 귀밑까지 빨갛게 물든 얼굴을 두 손으로 꽉 감싸쥔채 쩔쩔 맸습니다.

봉남이는 그만 넋을 잃고 뜨락 한복판에 풀썩 주저앉고말았습니다.

(아이쿠!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담!)

그는 주먹으로 땅을 치며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봉남이 할아버지가 황황히 덕쇠 할아버지를 쫓아가며 정말 미안하게 되였다고 사죄하였으나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덕쇠 할아버지는 하늘소등에 올라타더니 방울소리를 요란히 울리며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가버렸습니다.

…

(남의 말을 졸졸 따라외우는 새를 세상에서 제일 령리한 새로 여겨온 내가 바보지, 바보야.)

이렇게 생각한 봉남이는 얼마후 앵무새를 안고 슬그머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아둔한 앵무새야. 뜻도 모르고 말하는 너를 믿었다가 마음착한 할아버지랑 누나만 망신시켰으니 더는 함께 살 재미가 없구나. 어서 너 갈데로 썩 물러가라!》

봉남이는 앵무새를 산속깊이 날려보내고말았습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자그마한 초가집이 한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멍멍이라는 강아지와 함께 오손도손 재미나게 살고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약초밭도 가꾸고 산열매도 따며 부지런히 일을 했고 멍멍이는 집을 지켰습니다.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피여오르는 따뜻한 어느 봄날이였습니다.

재너머 뙈기밭에 씨뿌리러 갔던 할아버지가 저녁에 정신을 잃은 새끼곰 한마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멍멍이는 놀란 눈으로 새끼곰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웬 새끼곰이나요?》

《개울에 빠진걸 마침 내가 그곁을 지나다가 건져냈단다.》

할아버지는 새끼곰을 따뜻한 아래목에 눕혀놓고 팔과 다리를 주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싸늘하던 새끼곰의 온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시원한 꿀물을 한종지 타서 새끼곰의 입에 떠넣어주었습니다.

《푸!》

한참후에 새끼곰은 막혔던 숨을 내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새끼곰은 두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할아버지와 멍멍이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끼곰아, 넌 어쩌다가 물에 빠졌댔니?》
할아버지가 새끼곰의 이마를 짚어주며 물었습니다.
《우리 엄만 앓다가 죽었어요. 그담엔 누구도 나한테 먹을걸 가져다주지 않았어요. 그래 너무 배가 고파서 가재를 잡아먹으려구 개울에 나갔다가 깊은 웅뎅이에 빠졌댔어요.》
새끼곰은 눈물이 글썽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 그랬댔구나. 하마트면 정말 큰일날번 했구나.》
할아버지는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하며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얘, 새끼곰아, 오늘부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꾸나. 응?》
할아버지는 새끼곰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야ㅡ 정말 그게 좋겠어요.》
멍멍이는 꼬리를 살래살래 저으며 좋아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정…정말 고마와요. 흑!》
새끼곰은 그만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물에 빠져 다 죽게 된걸 구원해준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엄마없는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 이처럼 같이 살게까지 해주니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인사를 올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새끼곰은 할아버지네 집에서 멍멍이와 사이좋게 뛰놀며 살게 되였습니다.
새끼곰은 할아버지의 보살핌속에서 날마다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뀌여 어느덧 새끼곰은 큰 곰이 되고 강

아지였던 멍멍이는 큰 개가 되였습니다.
곰은 아무 하는 일없이 그저 먹고 놀기만 하였습니다.
마당에서 데굴데굴 굴기도 하고 시원한 그늘밑에 척 드러누워 쿨쿨 낮잠을 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먼 밭에 일하러 가고 집에는 곰과 멍멍이 둘이 남게 되였습니다.
곰은 너무도 심심해서 엉기적거리며 마당을 빙빙 돌았습니다.
《애, 멍멍아, 미역감으러 가지 않겠니?》
곰은 토방에 앉아있는 멍멍이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멍멍이는 곰의 말을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아무 대답도 없이 두귀를 발쭉 세우고 마당앞의 감자밭만 뚫어지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멍멍이가 갑자기 후닥닥 일어나 《멍!멍!》 하고 짖으며 감자밭으로 번개같이 달려갔습니다.
곰은 웬일인가 하여 멍멍이가 달려간 감자밭을 멍하니 바라보고있었습니다.
조금후에 멍멍이가 입에 무엇을 물고 감자밭에서 나왔습니다.
멍멍이는 입에 물고온것을 마당에다 철썩 멨다꽂으며 말했습니다.
《요놈의 오소리, 오늘에야 잡았구나.》
《뭐 오소리?》
곰은 마당가운데 혀를 가로물고 늘어진 오소리놈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땀흘려 가꾼 감자알을 마구 뚜져먹는 나쁜놈이야. 그래서 내가 잡아치웠어.》
《야! 넌 정말…》

곰은 입을 딱 벌리고 멍멍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날저녁 밭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몹시 기뻐하며 멍멍이를 크게 칭찬해주었습니다.
《우리 멍멍이가 정말 장한 일을 했구나. 오소리놈을 잡아치웠으니 이젠 감자를 도적맞힐 걱정은 없게 됐구나. 허허…》
할아버지는 벙글벙글 웃으며 멍멍이의 머리를 슬슬 쓸어주었습니다.
(정말 멍멍인 좋은 일을 했구나.)
곰은 부러운 눈으로 멍멍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무슨 일이든지 하여 할아버지를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를 구원해주고 따뜻이 보살펴주는 할아버지한테 아무 일도 해드리지 못하고 그저 먹고 놀고 자기만한 자신이 부끄러워났습니다.
이튿날도 할아버지는 망태기를 메고 먼 밭에 일하러 갔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릴가?)
곰은 이렇게 생각하며 뒤마당에도 가보고 고간안에도 들어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신통한 일감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곰은 마지막으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물독뚜껑을 열어보니 독안엔 물이 조금밖에 차있지 않았습니다.
곰은 씽긋 웃으며 머리를 끄덕거렸습니다.
(옳지!)
그는 커다란 물독을 넌떡 들어 어깨우에 둘러메고 씨엉씨엉 박우물로 나갔습니다.
독에 물이 철철 흘러넘치게 퍼담은 곰은 끙! 소리를 내며 물독을 어깨우에 들어올렸습니다.

이때 고간안을 돌아보고 마당으로 나오던 멍멍이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얘 곰아, 너 어쩔려구 그러니?》

《보구두 몰라? 물을 긷는단 말이야, 물!》

곰은 벌씬 웃으며 장한듯이 으시댔습니다.

《얘 곰아, 물을 그렇게 독채로 길어오면 어떻게 하니?》

멍멍이는 독이 깨질가봐 가슴이 조마조마하여 곰의 뒤를 쫓아가며 말했습니다.

《걱정말어.》

곰은 멍멍이의 말을 들은체도 하지 않고 그냥 뚱기적 뚱기적 걸어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출렁출렁 독에서 물이 넘쳐나 곰의 머리에 들씌워졌습니다.

멍멍이는 짚을 한아름 안고 부엌으로 앞질러 들어가 바닥에 깔아놓았습니다.

《곰아, 독을 여기다 살근히 내려놔.》

《넌 참 걱정두 많구나.》

곰은 씽긋 웃으며 물독을 짚우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앗!》

멍멍이는 물독이 깨지는줄 알고 두눈을 꼭 감았습니다.

《멍멍아, 너 왜 그러니? 어서 눈을 떠!》

곰이 멍멍이의 옆구리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멍멍이가 눈을 떠보니 다행히도 물독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야, 정말 큰일날번 했구나.》

멍멍이는 숨을 호— 내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씻었습니다.

《자, 봐라. 내가 물을 얼마나 잘 긷니?》

곰은 으시대며 《하하하!》크게 웃었습니다.
《곰아, 너 그러다 하나밖에 없는 물독을 깨면 어쩔려구 그러니? 물을 길으려거든 물통으로 길어야지.》
멍멍이는 곰을 가볍게 나무라며 눈을 샐쭉 흘겼습니다.
그날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가 물을 길어다 부으려고 독안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독이 철철 넘치게 물을 길어다부었느냐?》
《할아버지, 곰이 길어왔어요.》
멍멍이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곰이 정말 큰일을 했구나.》
할아버지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곰의 넙적한 어깨를 툭툭 다독여주었습니다.
곰은 보라는듯이 가슴을 젖히고 멍멍이를 힐끔 곁눈질해보며 한쪽눈을 찔끔 했습니다.
그날저녁 할아버지는 곰이 제일 좋아하는 도토리묵을 쑤어주었습니다.
곰은 마음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자기도 할아버지의 일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고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서 할아버지를 잘 도와드려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날이였습니다.
아침 일찌기 깨여난 곰은 뜰안에서 코김을 힝힝 내불며 기운차게 도끼를 휘둘러 잠간새에 장작을 무둑히 패놓았습니다.
방울을 달랑거리며 마당을 쓸던 멍멍이는 곰이 일하는 모습을 흐뭇이 바라보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음, 우리 곰

이 정말 부지런하구나.》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할아버지는 멍멍이를 데리고 재너머 감자밭으로 떠나갔습니다. 거기에도 오소리놈들이 기여들고있었던것입니다.

혼자 집에 남은 곰은 마당안팎을 두루두루 살펴보며 일감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더 도와드릴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곰의 눈길이 고간문앞에 놓여있는 절구통에 가서 뚝 멎었습니다.

곰의 눈앞에는 날마다 힘겹게 절구질을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절구질을 해야지.)

곰은 엉기적거리며 고간안으로 들어가서 보리자루를 둘러메고 나왔습니다.

좌르르—

곰은 절구안에 보리를 가득 쏟아넣었습니다.

절구공이를 거머쥔 곰은 쿵! 하고 보리를 내려찧었습니다.

보리가 절구확밖으로 뿌려져나왔습니다.

《멍멍이가 오기 전에 찧어야지.》

곰은 절구공이에 힘을 주어 한번 더 쿵! 내려찧었습니다.

어찌나 세차게 내려쳤던지 절구통이 절반이나 땅속으로 말뚝처럼 푹 박혀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오기 전에 다 찧어야지.》

곰은 절구공이에 힘을 더 주어 쿵! 하고 내려찧었습니다.

이번에는 땅이 푹 꺼지면서 절구통이 쑥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놈의 절구통이 왜 이래?》
곰은 절구공이를 집어던지고 한손으로 땅속에 박힌 절구통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절구통은 반쪽만 뽑혀나왔습니다.
(엉?)
곰은 두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또 다른 반쪽의 절구통을 뽑아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곰은 두쪽으로 갈라진 절구통을 들고 눈알만 멀뚱거렸습니다.
절구질을 얼마나 세게 했던지 절구통이 그만 두쪽으로 쩍 빠개진것이였습니다.
《아차, 이거 큰일났구나!》
곰은 빠개진 절구통을 마당에 뚤렁 떨구며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와 멍멍이는 빠개져나간 절구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곰아, 절구통이 왜 이 모양이 되였느냐?》
할아버지가 고간문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곰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 저, 보리를 찧다가 그만…》
곰은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영문을 알아차리고 《곰아, 네가 날 도와주려고 한 그 마음은 기특하다.
그렇지만 넌 하나만 생각하구 둘은 생각하질 못했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곰은 머리를 푹 수그리고 몸둘바를 몰라하였습니다.
그날밤 곰은 좀처럼 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드린다고 한 일이 그렇게 되고보니 면구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곰은 엎치락뒤치락하며 몸을 굴리다가 밤늦게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곰은 잠결에 뚝딱거리는 소리를 듣고 깨여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가물거리는 등잔불밑에서 할아버지가 새 절구통을 깎고있었습니다.

(나때문에 할아버지가 밤에 편히 쉬지 못하시누나.)

곰은 가슴이 짜릿해왔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한테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깎을래요.》

곰은 손을 내밀며 도끼와 자귀를 받아쥐려 했습니다.

《원 녀석두, 자지 않구 왜 일어났느냐? 이젠 다 깎았으니 마음놓고 어서 자거라.》

할아버지는 곰의 등을 밀었습니다.

곰은 성 한번 내지 않고 자기를 타일러주는 할아버지가 무척 고마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새 절구통을 다 깎고나니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긴밤을 꼬박 새운 할아버지의 두눈엔 벌겋게 피발이 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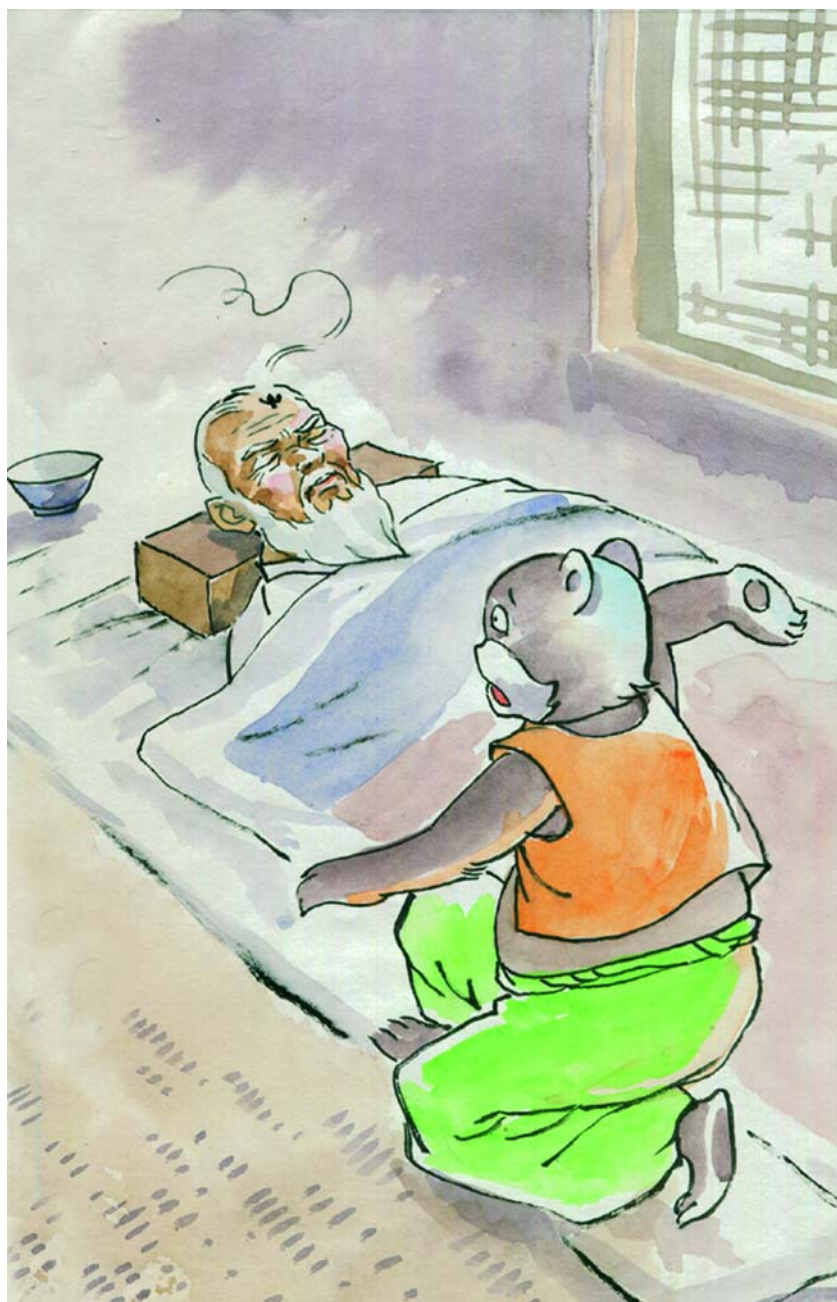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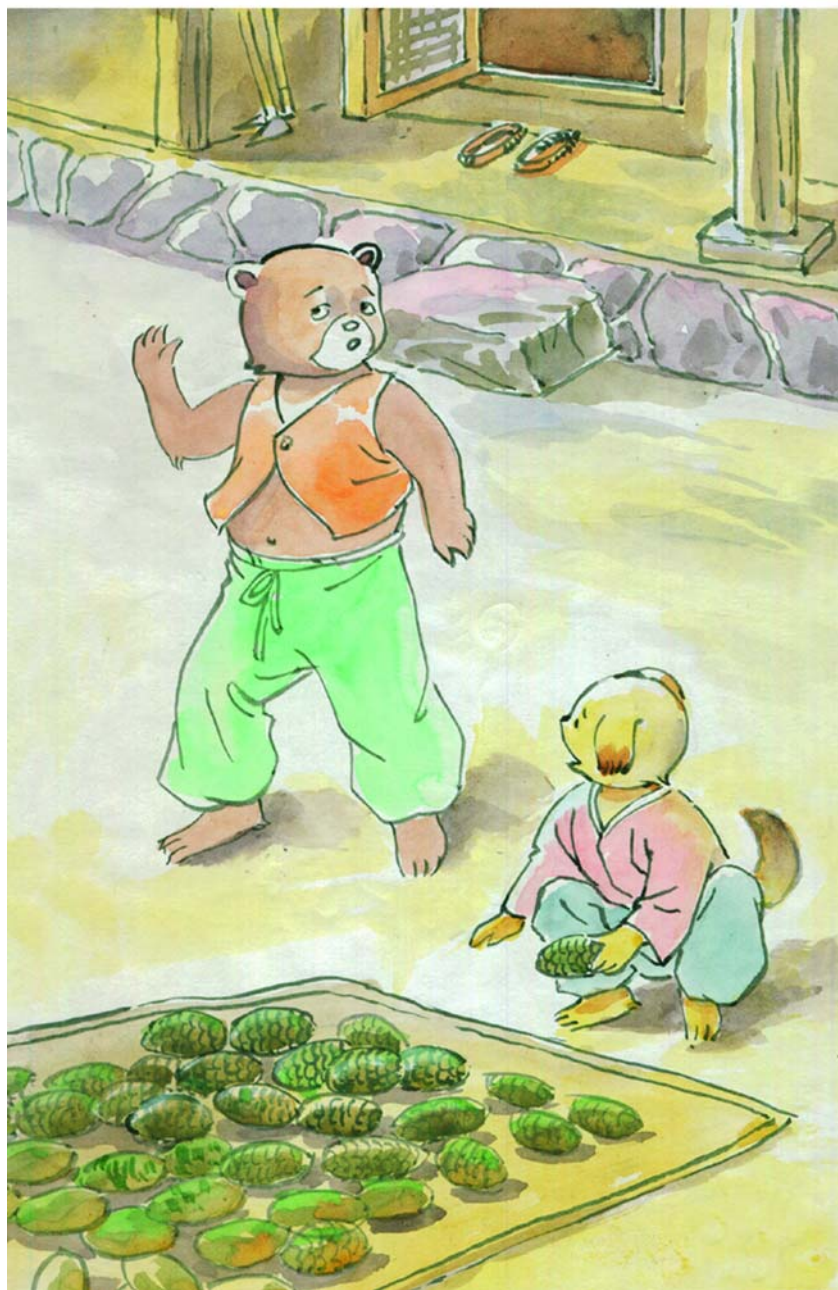
할아버지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잣송이를 널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연방 하품을 하면서 《아무래도 잠간 눈을 붙이고 일을 나가야겠구나.》하고 중얼거리더니 방안에 목침을 베고 누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 눕자마자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말았습니다.

곰은 할아버지가 뜨뜻한데서 푹 쉬게 해드리고싶었습니다.

그는 부엌바닥에 쭈그리고앉아 아궁이에 장작을 쓸어

넣고 불을 때기 시작했습니다.
바짝 마른 장작은 황황 불길을 일으키며 잘도 탔습니다.
곰은 구들이 뜨뜻해졌는지 짚어보려고 방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할아버지의 얼굴우로 파리들이 앵앵 소리를 내며 맴돌고있었습니다.
《쉬—쉬— 이놈의 파리새끼들, 할아버지 잠깨실라. 썩썩 물러가라!》
곰은 방바닥을 짚어보려던 생각도 까맣게 잊고 손을 홰홰 내저었습니다.
파리들은 앵! 하고 날아올랐다가는 또다시 할아버지의 얼굴우로 날아들었습니다.
그중 한놈이 방바닥에 내려 할아버지한테로 발발 기여갔습니다.
《요놈의 파리새끼, 너 정말 말을 안듣겠니?》
곰은 방바닥으로 기여가는 파리를 겨누고 커다란 손을 탁 내리쳤습니다.
파리는 곰의 손바닥에 맞아 묵사발이 되고말았습니다.
그바람에 다른 파리들은 다시 앵! 하고 날아올랐습니다.
이때 한놈의 파리가 벽에 내려앉았습니다.
곰은 그놈을 잡으려고 다시 손을 쳐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곰을 향해 앞발을 싹싹 마주 비비는것이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이제야 나한테 잘못을 비는구나.》
곰은 자기가 무서워서 파리가 앞발을 비비는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흐뭇해서 부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곰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느새 벽에 붙어있던 파리가 할아버지의 이마우에 난딱 내려앉는것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코고는 소리를 그치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런데 파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이마우로 살살 기여다니더니 도리여 곰한테 엉치를 돌려대고 뒤발을 싹싹 비벼대는것이였습니다.
(음ㅡ저놈의 파리새끼가 이제 보니 날 놀려대구있었구나.)
곰은 욱ㅡ 하고 밸이 치밀어올라서 넙적한 손을 번쩍 쳐들고 코김을 씩씩 내불며 뚱기적뚱기적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이마우에 앉아있는 파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파리는 곰의 손바닥사이로 살짝 빠져나와 앵! 하고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반쯤 열려진 창문밖으로 멀리멀리 날아가버렸습니다.
《이놈의 파리새끼, 게 좀 섰거라!》
곰은 버럭 소리를 내지르며 방문을 차고 밖으로 따라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두눈을 뚝 부릅뜨고 마당에 서서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혼쌀이 난 파리는 어디로 날아갔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 곰아, 너 왜 그러니?》
멍석우에 널어놓은 잣송이를 해별에 굴리며 앉아있던 멍멍이가 물었습니다.
《잠드신 할아버지를 성가시게 굴던 파리새끼가 방금 도망쳐서 그래.》
《그래? 도망쳤으면 됐구나. 파리가 또 방안으로 날아들

어가지 않게 문을 꼭 닫고 이리 와.》
멍멍이가 말했습니다.
곰은 파리를 놓친것이 분해서 씩씩거렸습니다.
곰과 멍멍이는 조용히 앉아 잣송이를 해별에 굴리며 말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낮이 다 되도록 깨여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젠 점심을 잡숫고 일나가셔야 할텐데… 깨워드려야 하지 않을가?》
멍멍이가 물었습니다.
《깨워드리긴, 더 주무시게 놔둬.》
곰이 이렇게 대답하자 멍멍이도 고개를 까딱거렸습니다.
해가 지자 그들은 잣을 모아놓고 멍석을 접어서 덮어놓았습니다.
그때까지도 할아버지는 잠에서 깨여나지 않았습니다.
멍멍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방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방안에서 《아이구, 할아버지!》하는 멍멍이의 통곡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멍멍이가 왜 갑자기 저러는거야?)
곰은 엉기적엉기적 방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일이예요. 예?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아이구!》
멍멍이는 할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구?!》
곰은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마에 손바닥만한 피멍이 시퍼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곰은 저도모르게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마에 난 피멍자욱이 제 손바닥모양과 꼭같았습니다.

그제야 곰은 제가 파리를 잡느라고 내려친 손바닥에 맞아서 할아버지가 숨이 졌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놈의 파리새끼때문에 할아버지가 죽었구나. 그놈을 당장 찾아내서 요정을 내고말아야지!》

곰은 방안이 드렁드렁 울리게 고함을 지르며 밖으로 뛰여나갔습니다.

그러는 곰을 멍멍이가 따라가서 붙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은건 파리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때문이야. 네가 파리만 보고 할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기때문이야!》

곰은 썩은 나무 넘어지듯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머리를 싸쥐고 몸부림쳤습니다.

《아이쿠!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할아버지를 죽이다니… 아이구! 내가 정말 미련한 놈이였구나!》

곰은 땅을 치고 가슴을 쥐여뜯으며 아무리 안타깝게 울고 또 울었으나 그것은 이미 때늦은 뉘우침이였습니다.

날개달린 룡마

먼 옛날 우리 나라 어느 바다가에 북마을이라고 부르는 아담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해뜨는 바다에선 사시장철 고기떼가 욱실거리고 달이 지는 산기슭엔 과일나무들이 우거져 참으로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이였습니다.

이 마을은 큰 나루가에 자리잡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탐내는 외적들은 이 마을로 제일 먼저 쳐들어오군 하였습니다.

외적들은 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으며 달려들었지만 그때마다 뭍에 발도 올려놓아보지 못하고 쫓겨가군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마을 뒤산에 우뚝 솟아있는 북바위때문이였습니다.

북처럼 생긴 이 바위는 신기한 힘을 가지고있었습니다.

북채로 두드리면 덩! 덩! 하고 요란한 북소리를 내였는데 그 소리는 수백리 먼 고을까지 울리여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란한 북소리가 울리기만 하면 마을사람들은 온몸에 장수힘이 불끈불끈 솟구쳐올라 혼자서도 원쑤놈들을 백놈, 이백놈씩 무리로 쓸어눕혔습니다.

원쑤놈들은 그 북소리를 듣기만 하면 귀가 멍멍하여 넋을 잃고 뻥해 서있다가 꽁무니를 빼고말았습니다.

북바위를 울리는 북채는 보통북채가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나무도 쇠도 아닌 칠색무지개빛이 나는 보석북채였습니다.

북바위는 반드시 이 보석북채로 때려야만 덩덩 북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북바위와 함께 북채를 더없는 보물로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 북채는 언제나 북지기할아버지가 간수하고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북바위옆에 높직한 다락을 지어놓고 거기서 바다를 살피다가 원쑤놈들이 쳐들어오는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북소리를 울리여 부근의 여러 마을들에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이 할아버지를 믿고 마음놓고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원쑤놈들은 그를 제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북지기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차츰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북소리를 잘못 울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바다에 솟아있는 바위를 적의 배로 잘못보고 북소리를 울렸다가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한숨을 쉬면서 한탄하였습니다.
《나이먹은게 한이로구나. 이젠 북지기일을 끌끌한 젊은이들에게 물려주는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 일을 아무에게나 물려줄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없이 귀중한 그 북채를 맡길만한 슬기롭고 용감한 젊은이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북지기할아버지는 생각끝에 그런 젊은이를 바로 자기 아들들가운데서 고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던것입니다.
그들은 성미는 다르지만 모두가 마을을 사랑하는 끌끌하고 믿음직한 젊은이들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밤에도 자지 않고 높은 다락에서 바다를 살펴보면서 세 아들중 누구에게 이 중한 일을 맡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깊은 밤이였습니다.

건너편 숲속에서 갑자기 말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일인가 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있던 할아버지는 어떤 젊은이가 밤에도 자지 않고 말타기훈련을 하는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날 밤에도 또 그 다음날 밤에도 말울음소리는 그치지 않고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휙! 휙! 하는 바람소리와 함께 달리는 말발굽에서는 번개불까지 번쩍번쩍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젊은이인지 알고싶어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좀처럼 알아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할아버지에게 참으로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가 마을 젊은이들과 함께 곡식을 해치는 짐승들을 막기 위해 밭을 지키다가 맨주먹으로 메돼지를 잡아 마을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것입니다.

그 메돼지는 얼마나 오래 묵은 놈이였던지 뒤잔등에 버섯이며 애솔나무까지 돋아나고 주둥이에는 호리날처럼 생긴 버드렁이가 툭 삐여져나와있었습니다.

밭을 지키던 첫째는 감자밭에 메돼지가 달려들자 뒤로 다가가 그놈의 잔등에 올라타고앉아서 버드렁이를 비틀어 뽑아 그것으로 멱을 찔렀던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기뻐서 그의 등을 두드려주며 《장하다, 첫째야. 너의 그 큰 담과 용맹을 누가 당하겠느냐?》하고 말하면서 북지기일을 그에게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둘째가 또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여러 고을 젊은이들이 모여 말타기경기를 벌리군 하였는데 거기서 둘째가 일등을 하였던것입니다.

둘째는 단꺼번에 산같이 높은 낟가리를 세개씩이나 뛰여넘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숲속에서 말타기훈련을 한 젊은이가 바로 둘째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둘째가 탄 가라말의 고삐를 쥐고 《용쿠나, 둘째야. 누가 감히 너와 말타는 재주를 겨루겠느냐?》하고 못내 흐뭇해하면서 이번엔 북지기일을 그에게 물려줄가 하고도 생각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어린 셋째도 퍼그나 사랑하였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한 막내인 셋째도 무척 슬기롭고 총명하였습니다.

그는 담이 큰 첫째와 말 잘타는 둘째를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그들처럼 되기 위해 남모르게 애를 쓰며 배우군 하였습니다.

셋째는 이따금 한마디씩 하였으나 그 말이 너무도 씨알먹은 말이여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우군 하였습니다.

언제인가 한번은 어느 집에서 풀밭에 매놓았던 소를 잃어버린적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도적놈이 소를 훔쳐가지 않았으면 어떤 짐승이 물어갔을것이라고 떠들면서 이웃마을과 산판을 찾아헤매였습니다.

이때 셋째는 소를 매놓았던 자리를 잘 살펴보고나서 깊이 궁리를 하더니 《산너머 새초밭에 가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셋째의 말이 어이없게 들렸으나 너무도 자신있게 말하는 바람에 슬그머니 산너머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잃었다고 떠들썩하던 황소가 배가 불룩하게 속새풀을 뜯어먹고는 새초밭에 척 드러누워 새김질을 하고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소를 찾았다고 기뻐하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

니다.

《풀을 다 뜯어먹은 소가 더 먹을게 없으니 새 풀밭을 찾아갔을게 아닙니까?》

사람들은 셋째는 궁냥이 깊은 젊은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셋째를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에게 북지기일을 넘겨줄 때가 아직 안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첫째와 둘째중에서 어느 누구에게 북지기일을 물려주리라 마음먹고 무술훈련을 더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외적 두목놈이 북채를 빼앗으려고 억대우같은 놈들을 골라서 제가 직접 이끌고 북마을로 몰래 기여들었습니다.

그날은 전에없이 안개가 끼여 앞을 가려볼수가 없었습니다.

북지기할아버지는 안개때문에 그놈들이 쳐들어오는 기미를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놈들은 할아버지의 손에서 북채를 빼앗으려고 벼락같이 달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드는 놈들과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리고 북소리를 울리여 마을사람들에게 놈들이 기여들었다는것을 알리려고 북채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때 짐승같이 생긴 두목놈이 와락 달려들면서 할아버지가 쳐든 북채를 딱! 하고 철퇴로 후려쳤습니다.

그바람에 북채가 부러져 동강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도 철퇴에 허리를 얻어맞고 그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쓰러져있을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강이 난 북채를 두손에 거머쥐고 한치두치 북바위있는 곳까지 땅을 톺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북채로 힘껏 북바위를 때렸으나 웬일인지 북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을 향하여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놈들이 왔다—》

그 소리는 산울림을 하며 멀리 울려갔습니다.

산에서 창다루는 재간을 익히던 할아버지네 세 아들이 부리나케 그리로 달려왔습니다.

《이놈들!》

그들은 창을 들고 놈들을 맞받아 싸웠습니다.

맏이인 첫째는 성난 범같이 달려들어 두목놈의 손에서 철퇴를 빼앗아내였습니다.

그것은 장수가 아니고서는 다룰수 없는 아주 무거운 철퇴였습니다.

첫째는 그 철퇴를 몽둥이처럼 휘둘러 두목놈의 골통을 깠습니다.

《억!》하고 두목놈이 쓰러지자 살아남은 놈들은 넋을 잃고 도망을 쳤습니다.

기여든 놈들을 쫓아내긴 하였으나 마을에서는 마음을 놓을수 없었습니다.

북채가 부러져 북소리를 울릴수 없게 되였으니 이제 다시 놈들이 들이닥치면 그 소식을 어떻게 고을들에 알리여 사람들을 싸움에로 불러일으킬수 있겠습니까. 북소리에 겁을 먹었던 놈들이 인젠 마음놓고 기여들것입니다.

마을에는 크나큰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북바위앞에 모여앉아 근심에 잠겨 후— 한숨만 내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북소리를 울릴수 있을가 하고 의논도 하였습니다.

이때 놈들의 철퇴에 맞아 어혈이 든 할아버지가 제때에 북지기일을 물려주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조용히 혼

자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홉마리의 룡이 날아올랐다는 구룡산에 가면 이런 북채가 또 있다는데…》

《예?!》

사람들은 모두 귀가 번쩍 띄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북채도 먼 옛날에 바로 거기서 가져온것이라네.》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네. 거기에는 빛을 뿌리는 보석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북채처럼 생긴것을 가져오면 된다네.》

젊은 사람들이 북지기할아버지앞으로 저마다 나섰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북채를 가져오겠습니다. 길만 대주십시오.》

그런데 할아버지는 웬일인지 머리를 흔드는것이였습니다.

《안되네. 구룡산으로 가는 길은 끝없이 멀고 험하다네.》

젊은이들은 마을에 있는 공골말이나 가라말을 타고 어떻게든지 갔다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보통말을 타고는 안되네. 그런 말을 타고 어떻게 그 멀고 험한 길을 갔다오겠나?》

마을사람들은 다시 근심에 싸였습니다.

바로 이무렵 마을에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사슴골에 날개달린 룡마가 있다는것이였습니다.

그 룡마는 얼마나 날랜지 한달음에 천리를 달린다고 하였습니다.

또 소문이 돌기를 룡마를 키운 사슴골할아버지가 지금 룡마를 탈 젊은이를 찾고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룡산으로 가는 길도 자세히 알고있다는것이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북지기할아버지는 기뻐서 무릎을 탁쳤습니다.

《그 룡마를 타고가면 되겠구나.》

그는 급히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세 아들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앉자 북지기할아버지는 이 중대한 일을 누구에게 맡길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하였습니다.

이웃고을들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슴골로 찾아갔으나 웬일인지 그 누구도 룡마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말을 생각하며 그는 세 아들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은 첫째에게 가서 멎었습니다.

황소만한 메돼지를 맨주먹으로 때려잡고 외적두목놈의 철퇴를 빼앗아 그놈을 단매에 까부신 첫째가 대견하게 보였습니다.

북지기할아버지는 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소문을 들어서 알겠지만 사슴골에 룡마가 났다누나. 나라가 위험에 처한 이때에 얼마나 기쁘고 다행한 일이냐? 보아하니 이 일을 첫째가 해낼것 같구나. 그러니 너는 사슴골할아버지한테 가서 룡마를 얻어타고 구룡산에 가 보석북채를 얻어오너라.》

《예, 내 기어이 아버님의 분부대로 북채를 얻어오겠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에게 큰절을 드리고 곧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사람들이 달려나와 길을 떠나는 그의 괴나리보짐속에 찰떡을 넣어주고 산꿀도 넣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념려마십시오. 꼭 룡마를 얻어타고 북채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는 마을사람들을 향해 자신있게 큰소리를 치고 사슴골로 떠났습니다.

첫째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점심무렵에야 겨우 사슴골어귀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골짜기를 걸어올라가면서 어디에 룡마가 있을가 하고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뿌웅—뿌웅—뿌—》하고 구성진 뿔나팔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나무가지같은 뿔을 머리에 인 사슴들이 숲을 헤치고 나팔소리를 따라 껑충껑충 뛰여가는것이였습니다.

《사슴골이 옳구나!》

그는 사슴들이 달려가는 곳으로 따라들어갔습니다.

얼마쯤 들어가니 숲속에서 은빛수염발을 바람에 흩날리며 할아버지 한분이 마주 걸어나왔습니다.

그는 자기를 빙 둘러싼 사슴들에게 먹이를 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한참동안 홀린듯이 바라보던 첫째는 할아버지앞에 다가가 공손히 허리를 굽혀 절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북마을에 사는 첫째입니다. 구룡산에 가서 북채를 가져오려구 그러는데 룡마를 좀 빌려주십시오.》

사슴골할아버지는 그윽한 눈매로 머리에 흰 무명수건을 질끈 동여맨 뚱뚱한 첫째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뭐? 북채를 가지러 간다구?》하며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북마을소식을 이미 알고있는 사슴골할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이며 그를 초막으로 데리고 들어가 쉬게 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이윽고 멀지 않은 곳에서 말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할아버지가 금빛룡마 한마리를 끌고 숲속에서 나오는것이였습니다.

보기에도 허리가 늘씬하고 기름이 번지르르한 참으로 호함진 말이였습니다.

털은 오리마다 금빛으로 빛나고 이따금 푸르르— 하고 투레질을 하면 골안이 찌렁찌렁 울렸습니다.

(야! 멋진 말이구나!)

첫째는 싱글벙글 웃으며 할아버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룡마에 새 말안장도 얹고 고들개도 조여매고 말다래도 바로잡았습니다.

첫째는 어서 빨리 룡마를 타고 구룡산으로 달려가고싶어 고삐를 넘겨받으려 하였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룡마를 타고 구룡산에 가려면 내 말을 명심하여 듣게.》

《예.》

첫째는 공손히 대답하고 할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산너머 서른세고개를 넘어가면 달맞이산이 있다네. 거기 가면 보름달이 솟아오를 때에만 피여나는 달맞이꽃이 있다네. 오늘이 바로 보름날이니 그 꽃들이 피여날걸세. 그 가운데서 제일먼저 피여나는 꽃 한송이를 꺾어가지고 돌아오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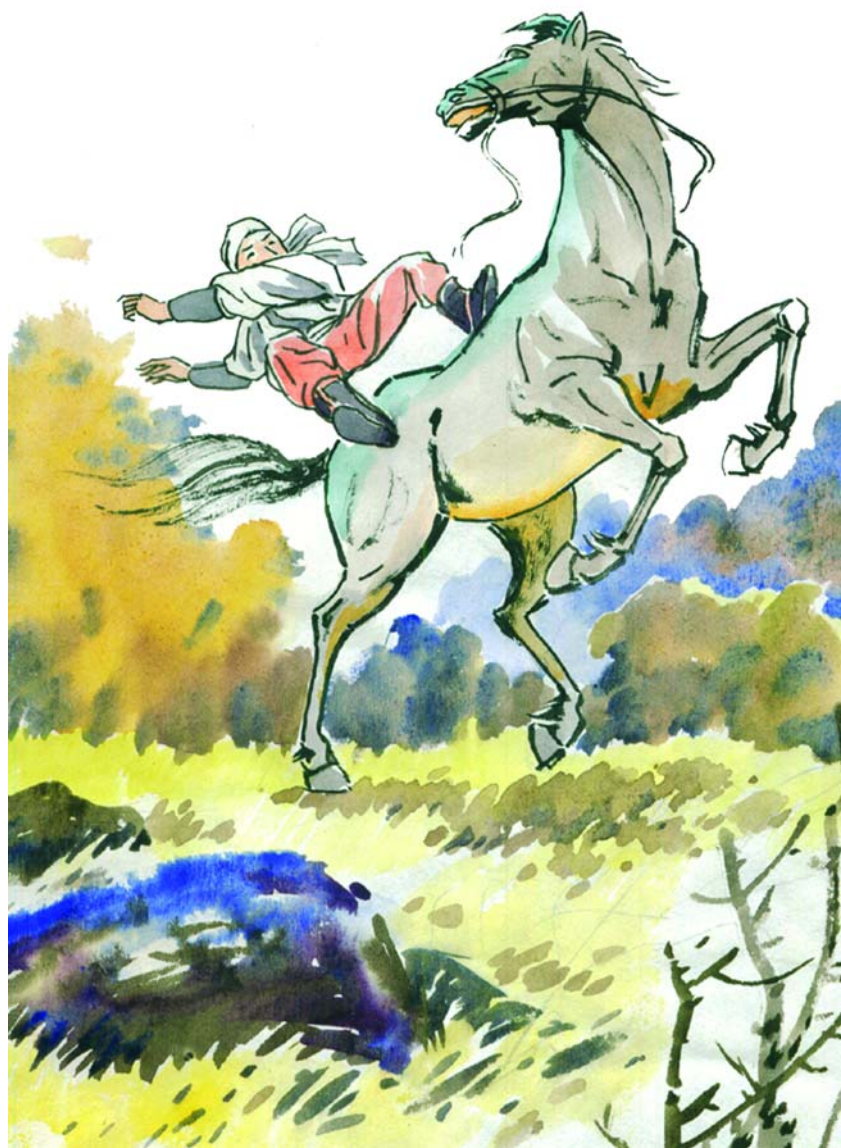
(꽃은 무엇하러 꺾어오라고 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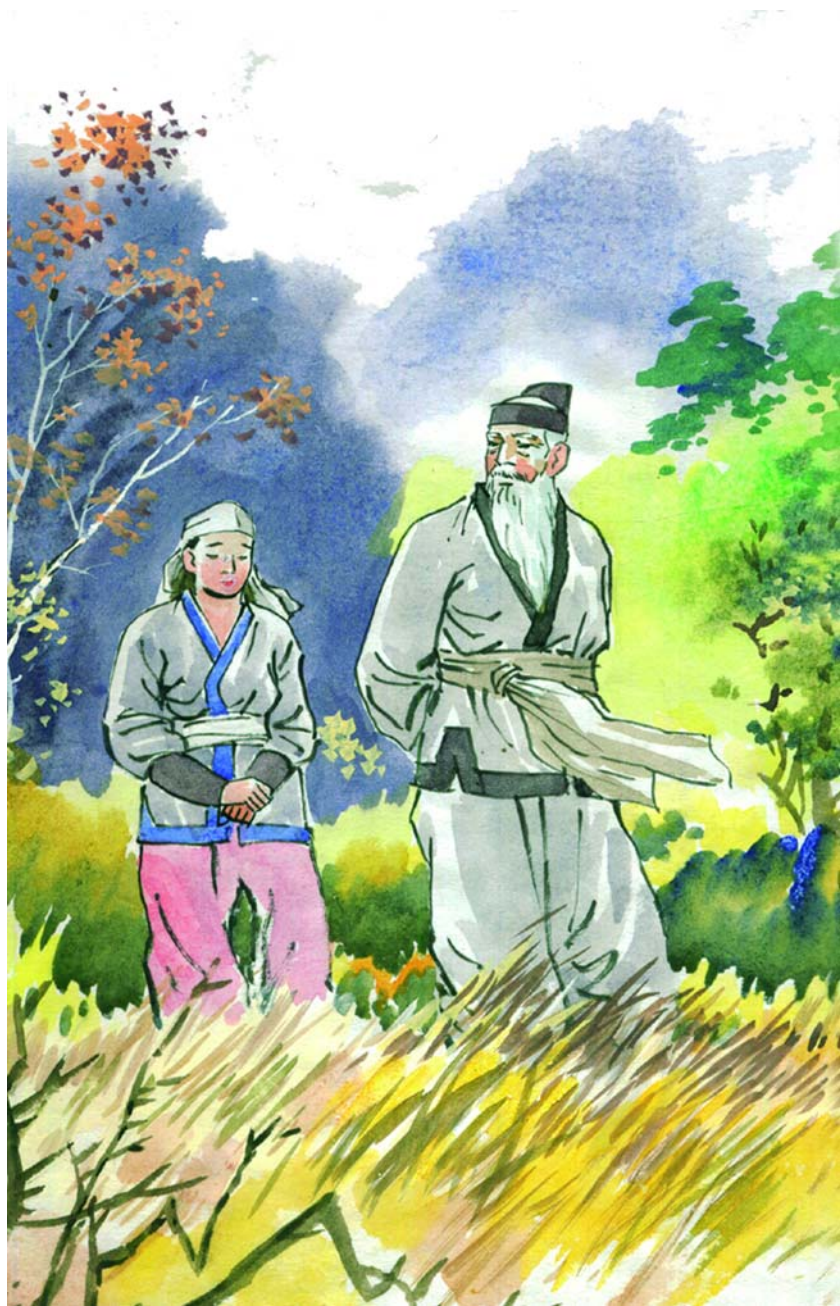
룡마를 받았다고 기뻐하던 첫째는 그만 어안이 벙벙해서 멍청하니 서있었습니다.

《빨리 떠나라구. 이제 해가 지면 곧 보름달이 솟아오를걸세.》

할아버지가 재촉하자 첫째는 그에게서 말고삐를 넘겨받아쥐고 룡마잔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첫째가 올라타자 룡마는 투레질을 하면서 껑충껑충 올리뛰였습니다.

첫째는 당황하여 뚱뚱한 몸뚱이를 가누지 못하고 비칠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고삐를 잡고 박차를 찼습니다.
그제야 룡마는 갈기를 날리며 앞으로 냅다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달려가는 룡마의 뒤를 바라보며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얼마동안 달려가던 룡마는 왜 그런지 머리를 하늘높이 쳐들고 또 요동을 쓰며 그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룡마는 끝내 첫째를 땅에 떨궈버리고야말았습니다.
《아이쿠!》
그는 엉뎅이를 슬슬 쓸면서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말이 왜 이럴가…》
그는 다시 룡마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룡마는 또다시 온몸을 마구 흔들어대며 첫째를 떨궈버리려 하였습니다.
그는 빨리 달려가려고 고삐를 힘껏 나꿔챘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룡마는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첫째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말목을 꽉 그러안았습니다.
룡마는 오호홍! 하고 새된 소리를 지르며 앞발을 껑충 쳐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바람에 첫째는 또 말에서 공중제비로 떨어지고말았습니다.
《이놈의 말이 왜 그래?》
성이 잔뜩 치밀어오른 첫째는 채찍으로 룡마를 마구 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기가 막힌듯 혀를 쯧쯧 차더니 첫째에게로 급히 달려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젊은이, 룡마는 왜 때리나?》
《말을 안듣고 너무 갈개서 그래요.》
첫째는 이마살을 찌프리며 볼부은 소리를 했습니다.

《뭐, 룡마가 갈갠다구?》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어 허구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당치 않은 소리를 말게. 임자는 말탈줄을 모르네. 룡마는 자기 주인될 사람을 알아본다네.》
《아닙니다. 집에서 공골말을 탈 때는 아무일 없었는데요.》
《그래 이 말이 임자가 타던 공골말과 같은줄 알았나? 한달음에 천리씩 달리는 룡마를 타자면 말타는 재주가 있어야지 욕망만 가지고는 안된다네. 어서 돌아가서 송아지나 얻어타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말고삐를 빼앗아잡았습니다.
첫째는 무어라 대답할 말이 없어 한참 어물대다가 자기 마을로 돌아오고말았습니다.
《아니, 네가 빈손으로 돌아오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버지는 맥없이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온 첫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룡마에서 떠…떨어졌어요.》
첫째는 부끄러운대로 아버지앞에서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털어놓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나는 네가 담이 큰걸 믿고 보냈더니 말탈줄을 몰라서 빈손으로 돌아왔구나!》
아버지는 기가 막혀 길게 한숨만 쉬였습니다.
첫째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마을사람들도 모두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주저앉아있을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에 쳐들어왔다가 겨우 살아간 놈들한테서 북채가 부러졌다는 말을 들은 외적들은 또 쳐들어올 기회를 노리고있었습니다.
북마을사람들은 한편으로 싸움준비를 갖추면서 다시 한

자리에 모여앉아 룡마를 타고 구룡산에 갈 젊은이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머리채를 길게 땋아늘인 키가 큰 둘째가 아버지앞에 꿇어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룡마를 타고 구룡산에 가서 북채를 가져오겠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 말 잘타는 둘째를 보내면 룡마를 탈수 있지 않을가?)

그는 한참 생각하던 끝에 드디여 입을 열었습니다.

《둘째야, 그럼 네가 갔다오너라. 외적들이 당장 쳐들어올것 같다. 지체말고 어서 떠나거라.》

《아버지! 제가 꼭 북채를 가져오겠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맹세를 다지고 마을사람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사슴골로 떠나갔습니다.

그는 첫째가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숲을 헤치고 벼랑바위를 치달아넘으며 걸음을 다그쳤습니다.

마침내 그도 사흘째 되는 날 점심무렵에 사슴골어귀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숲속에서 《뿌웅―뿌웅―뿌―》하고 구성진 뿔나팔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째는 나팔소리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할아버지를 만나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북마을에 사는 둘째입니다. 구룡산에 가서 북채를 가져오려구 하는데 룡마를 좀 빌려주십시오.》

사슴골할아버지는 그윽한 눈길로 그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이번엔 둘째가 왔단 말이지.》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둘째를 초막으로 데리고들어가 며칠동안 푹 쉬며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초막에서 쉬면서 사슴이며 노루, 토끼들이 한데 어울려 다정하게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줄곧 룡마가 어디에 있을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드디여 보름날이 되자 할아버지는 숲속으로 들어가 기름진 금빛룡마 한마리를 끌고나왔습니다.

《야! 룡마!》

둘째는 룡마를 보자 부쩍 마음이 끌려 고삐를 받아쥐고 얼른 말잔등에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가만, 룡마를 타고 구룡산에 가려면 내 말을 명심하여 듣게.》

할아버지는 그를 잠간 멈춰세우더니 첫째에게 말하던것처럼 달맞이산에 가서 보름달이 떠오를 때 피는 달맞이꽃을 꺾어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할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룡마우에 올라탔습니다.

《빨리 갔다와야지!》

그는 자신있게 고삐를 나꿔채며 두발로 힘껏 박차를 찼습니다.

룡마는 푸르르 투레질을 하면서 네굽을 안고 내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쏜살같이 달리는 룡마의 뒤로는 뽀얀 먼지발이 구름처럼 피여올랐습니다.

사슴골할아버지는 그것을 바라보며 만족한듯 싱글벙글 웃음을 지었습니다.

말고삐와 박차를 잘 맞춰가면서 달려가는 그의 말타기솜씨는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앞에 가파로운 벼랑이 나타나면 그것을 훌쩍훌쩍 뛰여넘고 깊은 골짜기가 나타나면 단숨에 씽씽 건너뛰였습니다.
갑자기 돌개바람이 터져나와 룡마와 함께 둘째를 날려보낼듯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람곬을 피해가며 용케도 말을 몰아갔습니다.
그가 룡마를 타고 달려가는 앞길에는 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찬 원시림이 앞을 막아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나무와 나무사이를 요리조리 누벼가며 숲을 헤쳐나갔습니다.
《야! 숲속에서 번개가 언듯언듯 지나가는것 같구나!》
《말타는 솜씨가 정말 대단한데!》
숲속에서 나무를 하던 사람들이 입을 하 벌리고 그를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둘째가 내려다보니 어느새 룡마의 두어깨우에 날개가 한뽐가웃이나 뾰조롬히 돋아났습니다.
《야! 날개가 돋아나누나!》
둘째는 더 기세좋게 앞으로 내달리였습니다.
높은 고개를 날아넘어 밋밋한 산등성이를 내달리던 둘째는 갑자기 《쏴-》하고 들려오는 물소리에 깜짝 놀라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난데없는 큰강이 철썩철썩 물갈기를 일으키며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도모르는새에 겁이 나서 말고삐를 와락 잡아당겼습니다.
그의 발밑에서 바다처럼 넓은 강이 쏴 처절썩 절벽에 부딪쳐 물보라를 일으키며 빙글빙글 소용돌이치고있었던것입니다.
번개같이 달리던 말은 고삐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머리를 뒤로 젖히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자리에 뚝 멈춰섰습

니다.
그러자 둘째는 몸을 다잡지 못하고 그만 말고삐를 놓친채 깊은 강물속에 풍덩 곤두박질하고말았습니다.
《어푸푸!》
그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기슭으로 엉기엉기 기여나왔습니다.
둘째는 정신이 얼떨떨하여 강가에 멍청하니 앉아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속에는 불쑥 이러다가 죽으면 어쩌나 하는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괜히 다시 덤비다가 또 떨어지면 어쩔려구. 이번에 떨어지면 영낙없이 죽고말거야.》
둘째는 겁먹은 눈으로 룡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였습니다. 룡마의 어깨우에 돋았던 날개마저 가뭇없이 사라지고말았습니다.
머리를 기웃거리던 둘째는 할수없이 말을 되돌려세우고 사슴골로 돌아왔습니다.
물에 빠져 후줄근해서 돌아온 둘째를 보자 사슴골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아니, 임자가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우물쭈물하다가 떠듬거리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넓은 강이 막아서서 더 가지 못했습니다.》
《뭐라구? 강때문에 못가다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안타깝게 울렸습니다.
둘째는 머리를 숙이고 자기가 겪은 일을 죄다 말하였습니다.
《임자 형은 말탈줄을 모르더니 임잔 겁쟁이구만. 말은 꽤 타는것 같은데 제몸을 끔찍이 아끼는 겁쟁이가 돼서 틀렸네.》

할아버지는 성이 나서 말고삐를 빼앗아잡았습니다.

《어서 되돌아가게. 마을에 가서 순한 하늘소나 하나 얻어타라구. 단숨에 천리를 달리는 말을 타고도 떨어져 죽을가봐 강 하나를 건느지 못하는 졸장부가 룡마는 해서 뭣하겠나?》

둘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자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뭐라고 사정을 해보려고 하였으나 사슴골할아버지의 엄한 눈빛에 그만 기가 눌려 목을 움츠리고말았습니다.

그는 할수없이 터벅터벅 마을로 되돌아왔습니다.

둘째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맥없이 걸어오는 그를 어이없게 바라보며 빈손으로 돌아온 사연을 물었습니다.

둘째는 얼굴이 뻘개서 갔다온 사연을 그대로 다 말하였습니다.

둘째의 말을 듣고난 아버지는 기가 막혀 쓴입을 다시더니 말하였습니다.

《대장부가 그렇게 제 한몸만 생각해서야 무슨 큰일을 하겠니? 밤마다 말타기훈련을 하기에 담도 키운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예? 밤에 훈련을 하다니요?》

둘째는 영문을 몰라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밤마다 말타기훈련을 한게 네가 아니란 말이냐?》

아버지는 이상하다는듯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모두가 시름에 잠겨 한숨을 쉬기도 하고 소리없이 눈물도 흘렸습니다.

담이 큰 첫째가 허탕치고 돌아온데다가 말 잘타기로 소문난 둘째마저 빈손으로 돌아오자 마을젊은이들은 기가 꺾여 더는 사슴골로 가기를 꺼려하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막내인 셋째가 아버지앞에 무릎을 꿇고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북채를 가져오겠습니다.》
아버지는 반가와하면서도 어째서인지 머리를 저었습니다.
《네 형들도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네가 어떻게 가져온단 말이냐?》
아버지는 셋째가 기특하기는 했지만 룡마를 타기에는 너무나 어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룡마가 뭐 보통말과 같은줄 아니? 얼마나 사납고 갈개는지 아니? 넌 어림두 없어.》
옆에 있던 첫째가 셋째에게 말하자 《네가 어떻게 그 넓은 강을 건는단 말이냐? 여북했으면 내가 못건넜겠니?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 하고 둘째도 그를 말리였습니다.
그러나 셋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마을이 위험에 빠졌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겠나요. 제가 한번 가보겠어요.》
《안된다, 안돼.》
아버지는 여전히 머리를 흔들며 한숨을 길게 내쉬였습니다.
《룡마는 있는데 룡마를 탈 젊은이가 없단 말인가?》
북마을에서는 룡마 탈 젊은이를 아직 찾지 못했는데 벌써 원쑤 몇놈이 가까운 바다에 나타나 마을을 살펴보고 갔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셋째는 또다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더는 지체할수 없습니다. 보름달이 솟아오를 날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안타까운듯 셋째를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어디 한번 가보아라.》 하

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엔 셋째가 사슴골로 떠나게 되였습니다.
그는 위험에 처한 마을을 생각하면서 멀고 험한 길을 잠시도 쉬지 않고 바삐 달음쳐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이틀동안에는 도저히 사슴골까지 가닿을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오듯 흐르는 땀을 씻으며 안타까와 자꾸만 해를 쳐다보았습니다.
(빨리 가야겠는데…)
이틀째 되는 날 아침 그가 높은 고개를 넘어 잔잔한 호수가를 달려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저쪽 나무밑에서 커다란 짐승 하나가 물을 마시고있는것이 보였습니다.
셋째는 흠칠 놀라 우뚝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대가리가 물동이만 하고 온몸에 붉은줄이 쭉쭉 간 커다란 갈범이였습니다.
셋째는 머리칼이 쭈빗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옳지! 저 날랜 갈범을 타기만 하면 사슴골로 빨리 갈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피뜩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심조심히 범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범이 돌아서서 따웅! 하고 산이 떠나갈듯 요란한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셋째는 날쌔게 몸을 날려 범의 잔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놈의 범은 넋을 잃고 요동을 쓰며 앞으로 냅다 뛰였습니다.
셋째는 범의 두귀를 꽉 틀어잡고 이쪽저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사슴골로 몰아갔습니다.
어느새 사슴골어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는 할아버지가 룡마의 금빛털을 다듬어주고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난데없이 달려온 범을 보더니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아니, 저 총각이 범을 잡아타고 왔구나.》
할아버지는 셋째가 대견한듯 풍채좋은 수염을 슬슬 내리쓸며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셋째가 범의 잔등에서 뛰여내리자 얼이 빠진 범은 꽁지가 빳빳해서 숲속으로 줄행랑을 놓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앞에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북마을에 사는 셋째입니다. 구룡산에 가서 북채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룡마를 좀 빌려주십시오.》
할아버지는 셋째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뭐 셋째라구, 그럼 첫째와 둘째의 동생이란 말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의미있게 머리를 끄덕이며 그에게 룡마를 내주었습니다.
룡마를 받은 셋째는 금빛갈기가 날리는 목덜미를 쓸어주기도 하고 말발통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임자, 무얼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나?》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탈 룡마인데 어떤 말인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암, 룡마를 타자면 룡마부터 알아야지.》
할아버지는 긴 수염을 내리쓸며 어쩐지 셋째가 하는 잡도리가 다른 젊은이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도 첫째와 둘째에게 하던대로 달맞이산에 갔다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는 룡마잔등에 날쌔게 올라앉아 박차를 힘껏 찼

습니다.
룡마는 네굽을 안고 바람처럼 내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룡마를 솜씨있게 몰아갔습니다.
룡마가 바위벼랑을 치달아오를 땐 말잔등에 어찌나 몸을 딱 붙였는지 사람은 보이지 않고 말만 날아가는것 같았습니다.
깊은 골짜기를 건늘 땐 채찍을 한번만 휘둘러도 룡마가 온몸에서 휘파람소리를 내며 하늘공중으로 솟구쳐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름드리나무를 뿌리채 뽑아던질듯 폭풍이 휘몰아치고 번개가 일더니 대줄기같은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룡마는 물속을 헤염쳐가는 고기처럼 비속을 뚫고 갈기를 날리며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던지 고개가 다섯개, 열개, 열다섯개 발고랑을 넘듯이 자꾸만 뒤로 물러갔습니다.
룡마의 어깨우에는 또다시 날개가 삐죽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다처럼 넓은 강이 앞을 가로막아나섰습니다.
둘째가 못건너간 바로 그 강이였습니다.
때아닌 소낙비에 곱절이나 불어난 강물은 셋째를 집어삼키기라도 할듯 쏴—쏴 우뢰같은 소리를 내며 세차게 흘러가고있었습니다.
그는 사품치며 흐르는 강을 내려다보며 이런 때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던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놈들의 철퇴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싸웠던것입니다.
그의 눈앞에는 원쑤놈들이 달려들어 마을을 불사르고 부모형제들이 그놈들의 칼에 맞아 무참히 쓰러지는 광경이 떠

올랐습니다.

(이러고있을수 없다. 어서 가야 한다.)

셋째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넓은 강을 건너다보았습니다. 강은 어찌나 넓은지 건너편기슭이 눈앞에 아물거렸습니다.

(어떻게 건늘가?)

셋째는 강복판을 살펴보았습니다.

파도가 일었다가 잦아들 때마다 시꺼먼것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물속에 잠겨있는 바위였습니다.

(옳지! 저 바위를 징검다리처럼 딛고 건느면 되겠구나.)

그는 룡마의 갈기를 쓸어주며 말하였습니다.

《룡마야, 너만 날아넘겠다면 나는 바다라도 건늘 생각이다. 마을과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이 한목숨 바치려는 내 마음을 알아주렴.》

룡마는 셋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듯 앞발을 텅텅 구르며 머리를 주억거렸습니다.

셋째는 두발로 힘껏 박차를 찼습니다.

룡마는 뒤발로 땅을 구르며 껑충 뛰여올라 강우를 날아갔습니다.

강을 절반쯤 날아간 룡마는 맥이 진했는지 점점 아래로 내리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셋째는 강아래를 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위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만에 바위가 보일듯말듯 솟으려다가 다시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는 룡마를 솜씨있게 몰아 물속에 잠긴 그 바위를 날쌔게 딛고 다시 강우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서슬에 물갈기가 뽀얗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날아가는 룡마의 어깨우에 삐죽이 돋

혔던 금빛날개가 수리개날개처럼 쫙 펼쳐졌습니다.
《야! 룡마가 날개를 펼쳤구나!》
셋째는 저도모르게 큰소리로 웨쳤습니다.
룡마는 마치 커다란 새와도 같았습니다. 훨훨 날개를 저을 때마다 몸에선 눈부신 빛발이 뿜어져나왔습니다.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날개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말을 몰아 곧바로 달맞이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달이 뜰것이고 달이 뜨면 달맞이꽃들이 피여날것입니다.
룡마는 허공을 가르는 번개처럼 단숨에 산봉우리들을 날아지나 달맞이산 등판에 뛰여내렸습니다.
등판에서는 탐스러운 꽃봉오리들이 달빛을 기다리며 바람을 안고 살랑살랑 춤을 추고있었습니다.
한참만에 은실같은 빛을 뿌리며 보름달이 서서히 솟아올랐습니다.
이 순간 제일 키가 큰 꽃포기에서 아름다운 꽃 한송이가 맑은 이슬을 머금고 방긋이 피여났습니다.
《야! 저 꽃이다!》
셋째는 소리치며 달려가 방금 피여난 그 꽃을 정성스레 두손으로 꺾어들었습니다.
꽃을 꺾어든 셋째는 곧 말머리를 돌려 사슴골로 향했습니다.
《오호홍! 오호홍!》
우렁찬 말울음소리를 듣고 할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셋째에게서 구슬같은 이슬방울이 그대로 맺혀있는 달맞이꽃을 받아들고 《장하네, 장해. 말을 타고 번개처럼 달려오면서도 꽃잎에 맺힌 이슬방울 하나 떨구지 않았구만. 임자의 말타는 솜씨야말로 정말 대단하네.》하

며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임잔 형들보다 말도 더 잘 타고 용감하니 조금도 나무랄데 없는 룡마의 주인일세. 임자같은 사람이 타면 이렇게 룡마가 날개를 활짝 펼친다네.》

할아버지는 말다래를 바로 잡아주며 그에게 꽃송이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자, 어서 떠나라구. 구룡산에 가려면 저 산을 넘어 달려가면 되네. 거기 가면 높은 벼랑이 앞을 가로막아나설걸세. 그 벼랑앞에는 돌부엉이가 눈을 감고있을거네. 그 부엉이 입에다가 이 꽃송이에 맺힌 이슬 한방울을 떨구어주게. 그러면 그 돌부엉이가 푸시시 잠에서 깨여날걸세. 바로 그 부엉이가 임자에게 바위문 열쇠를 줄거네.》하며 할아버지는 셋째에게 구룡산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대주었습니다.

셋째는 할아버지의 말을 주의깊게 새겨듣고 룡마에 채찍을 얹었습니다.

룡마는 별안간 갈기를 곤두세우고 《푸르르!》 하고 요란하게 투레질을 하며 거침없이 하늘로 씽 날아올랐습니다.

쏴—

룡마는 구름을 헤치고 거침없이 날아갔습니다.

구룡산은 산넘고 강건너 수천리 먼길이였지만 룡마를 탄 셋째는 반나절에 가닿을수 있었습니다.

룡마가 구룡산기슭에 이르자 높은 바위벼랑이 앞을 막아나섰습니다.

그앞에는 할아버지의 말그대로 정말 돌부엉이가 지켜서있었습니다.

셋째는 꽃송이에 맺힌 맑은 이슬 한방울을 돌부엉이의 입에 떨구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잠들었던 돌부엉이가 푸시시 깨여나 눈을 번쩍 뜨더니 끔뻑끔뻑하며 셋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또다시 이슬 한방울을 입에 떨구어주자 이번엔 그 돌부엉이가 기지개를 켜며 왼쪽날개를 쭉 펼쳤습니다.

이때 그 날개깃밑에서 무엇인가 반짝 빛을 뿌리며 쟁그랑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눈부시게 새하얀 은열쇠였습니다.

셋째는 은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돌부엉이는 《부엉부엉》하고 목청을 가다듬더니 《어디서 온 젊은이요?》하고 물었습니다.

《난 북마을에 사는데 셋째라고 한다. 북채를 가지러 왔으니 어서 문을 열어다오!》

셋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벼랑을 울렸습니다.

《그럼 날 따라오시오.》

셋째는 부엉이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한곳에 이르러 돌부엉이가 멈춰서더니 《저 바위문을 열고 들어가시오. 그 은열쇠를 오른쪽으로 세번 돌리면 열릴거요.》하고 위엄있게 말했습니다.

셋째는 바위문으로 다가가 돌부엉이의 말대로 은열쇠를 바위구멍에 꽂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렸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번쩍거리고 꽈르릉! 하고 요란한 우뢰가 울더니 바위벼랑이 쭉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앞에 또 새로운 바위문이 나타났습니다.

셋째는 꽃송이에 맺힌 이슬 한방울을 돌부엉이의 입에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돌부엉이가 이번엔 오른쪽날개를 쭉 펴더니 황금빛이 나는 금열쇠를 내주었습니다.

《이 금열쇠를 저 바위구멍에 꽂고 왼쪽으로 세번 돌리시오. 그러면 열릴거요.》

부엉이의 말대로 금열쇠를 꽂고 왼쪽으로 세번 돌리자 꽝 꽈르릉— 하고 산이 무너져내리는듯한 소리와 함께 두번째 바위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일곱색무지개빛발이 눈

부시게 쏟아져나왔습니다.
동굴안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셋째는 눈이 부시여 한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서있다가 손으로 빛을 가리며 그안으로 뛰여들어갔습니다.
그는 빛을 뿌리는 보석들가운데서 북채처럼 생긴 보석방망이를 하나 골라들고 기뻐서 《북채다!》하고 소리쳤습니다.
셋째는 밖으로 뛰여나와 돌부엉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다음 룡마에 올라타고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룡마는 다시 금빛날개를 쫙 펼치고 뭇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로 쏴— 하고 날아올랐습니다.
룡마는 구룡산으로 갈 때보다도 훨씬 더 빨랐습니다.
어느덧 북마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북마을에서는 큰 싸움이 한창 벌어지고있었습니다.
원쑤놈들이 북마을에 기여들어 집에다 불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였습니다.
여러곳에서 울음소리, 통곡소리가 터져올랐습니다. 마을 젊은이들이 놈들과 칼을 맞찧는 소리도 들리였습니다.
《이놈들!》
셋째는 달리는 룡마우에서 고삐도 잡지 않고 우뚝 일어선채 북채를 높이 추켜들고 힘껏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산울림을 하며 마을에 쩡쩡 울려퍼졌습니다.
놈들을 맞받아 싸우던 마을사람들이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셋째가 돌아온다!》
그들은 북채를 휘두르며 밤하늘을 날아오는 셋째를 알아보고 기뻐서 환성을 올렸습니다.
《셋째가 룡마를 타고 온다!—》
이윽고 마을에 날아내린 셋째는 북채를 들어 기운차게 북바위를 두드렸습니다.

둥둥 두리덩덩!
둥둥 두리덩덩!

북소리는 하늘땅을 흔들며 요란하게 울려퍼졌습니다.

오래간만에 울리는 북소리를 들은 마을사람들은 온몸에 우쩍우쩍 장수힘이 솟구쳐올랐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와— 함성을 지르며 원쑤놈들을 맞받아 달려나갔습니다.

북소리를 들은 원쑤놈들은 귀가 멍멍해서 정신을 잃고 갈팡질팡 헤매다가 창에 찔리고 화살에 맞아 죽어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다기슭 도래굽이에 모여선 사람들이 갑자기 《뎅! 뎅!》무쇠항아리를 두드리며 《적들이 도망친다.》하고 소리쳤습니다.

셋째는 더 요란하게 북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도망치던 배들이 금시 뒤집힐듯이 가랑잎마냥 기우뚱거리더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자리에서 맴돌이쳤습니다.

이때 마을사람들이 배우에서 갈팡질팡하는 놈들에게 활을 쏘아 모조리 쓸어눕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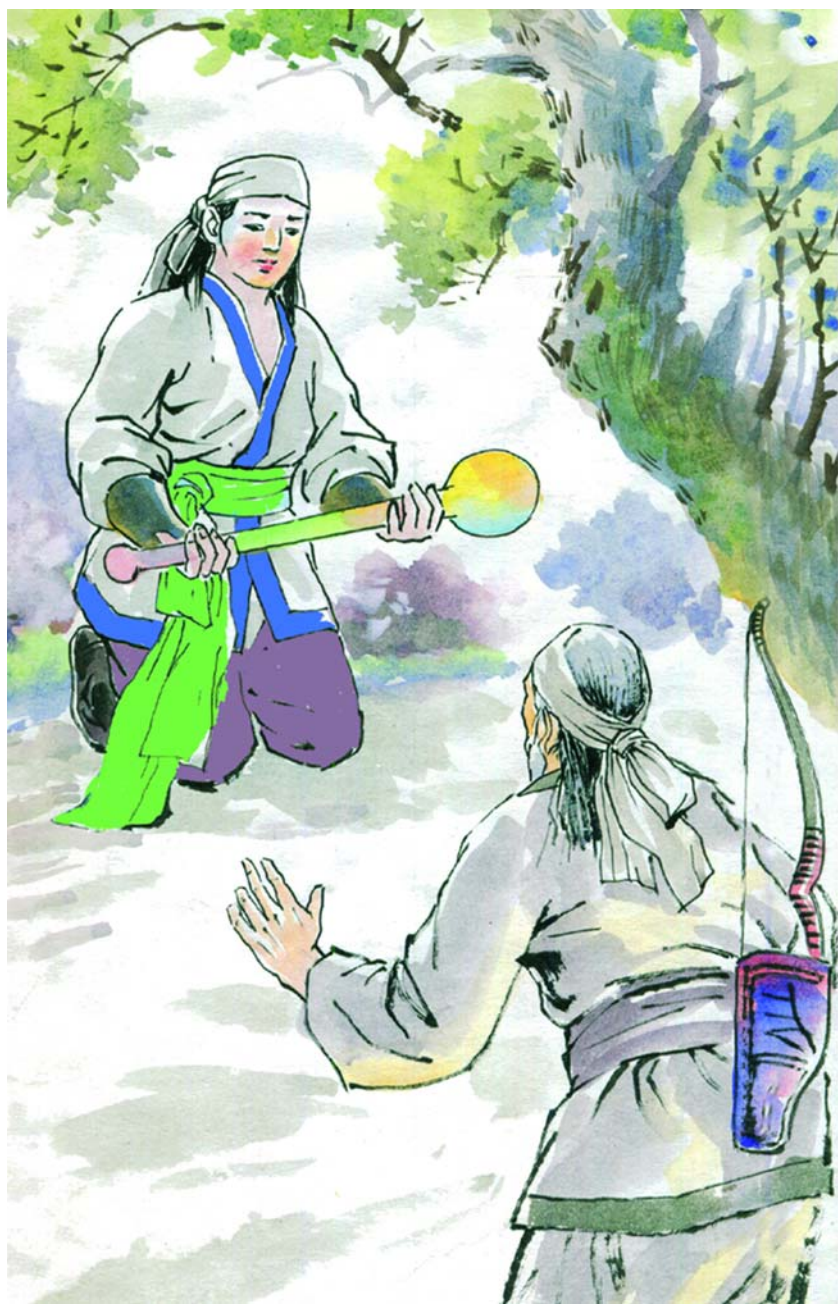
원쑤놈들을 바다물속에 처넣은 마을사람들은 북바위로 달려가 땀을 흘리며 북을 치고있는 셋째를 빙 둘러쌌습니다.

《셋째야, 정말 용쿠나. 나이는 어리지만 네가 우리 마을 룡마장수로구나.》

그들은 너무도 놀랍고 기뻐서 한동안 멍하니 서있다가 셋째를 목마에 태워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셋째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속에서 빠져나와 아버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두손으로 북채를 바쳤습니다.

《아버지! 새 북채를 받으십시오.》

《첫째도 둘째도 못가져온 북채를 네가…》

아버지는 목이 꽉 메여 말끝을 맺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룡마를 타고갔기때문에 이 북채를 가져올수 있었습니다.》

《암, 그렇구말구. 그러나 룡마도 룡마려니와 말 타는 재주와 용감성이 없이야 아무리 좋은 말도 쓸모가 없지. 네 형들은 룡마가 있어도 탈줄을 모르고 겁이 많기때문에 구룡산엘 못가지 않았니!》

이렇게 말하던 아버지는 언젠가 깊은 밤에 건너편산에서 들려오던 말울음소리가 생각나서 《밤마다 말타기훈련을 한게 혹시 네가 아니냐?》하고 물었습니다.

《예, 제가 숲속에 들어가서 훈련을 좀 했습니다.》

《옳지. 그게 너였단 말이지.》

아버지는 그제야 알겠다는듯 연신 머리를 끄덕이며 미더운 눈길로 셋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평소에 말타기훈련을 잘하고 담을 크게 키워온걸 내 미처 몰랐구나.

장하다. 장해! 이 북채를 너에게 주련다. 자, 어서 이 북채를 다시 받아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그에게 북채를 안겨주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후부터 북마을에서는 멎었던 북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셋째가 울리는 북소리였습니다.

북마을사람들은 북소리를 더 힘있게 울리며 마을을 그 어떤 원쑤도 덤벼들지 못하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나갔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늙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성품이 고지식하고 대가 바르고 아첨을 모르는 그는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는 임금앞에서도 《그러면 안되옵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옵니다.》 하고 자기 생각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아뢰군 하여 왕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첨을 일삼는 간신들은 그를 질투하여 임금에게 거짓을 꾸며 상소를 하고 갖은 모함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직한 늙은 신하는 자기의 고지식한 성품그대로 임금앞에서 옳고그름을 당당하게 까밝히군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해 봄 이웃나라에서 사신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임금을 찾아왔습니다.

《폐하! 귀국과 화목을 도모하고저 저희 나라 임금님이 선물로 보내는 신기한 활을 가져왔소이다!》

사신은 무릎을 꿇고 두손으로 임금에게 활을 바쳤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임금은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활은 물론 화살통과 화살이 모두 보석처럼 번쩍번쩍 눈부신 빛을 뿌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였습니다.

《폐하를 공경하여마지않는 저희 나라 임금님은 소인에게 이 보물을 전해드리라고 하시면서 하늘같은 공덕을 쌓으신 폐하께서 남은 여생을 사냥으로 한껏 락을 누리시게 하라고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사신은 그 활의 신통력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 활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사용하면 백발백중하지만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 쏘면 한대의 살도 맞히지 못하는 신기한 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은 그길로 사신과 함께 신하들을 거느리고 사냥터로 나갔습니다.
한 아첨쟁이신하가 임금에게 아뢰였습니다.
《해와 달처럼 밝은 지혜와 천리를 내다보는 혜안을 지니신 상감마마께서 이 활을 쏘시면 분명 백발백중하실줄로 아옵니다.》
임금은 활을 받아들고 앞에 나섰습니다.
몰이군들이 임금이 서있는 골짜기아래로 범을 몰아왔습니다.
임금은 화살통에서 화살 한대를 뽑아들고 범을 향해 쏘았습니다.
피익— 피르륵!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와 함께 따웅— 하는 소리가 골짜기를 울리더니 황소만한 범이 공중 뛰여올랐다가 피를 뿌리며 쿵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야!—》 하고 탄성을 내지르며 때를 만난듯이 저저마다 한마디씩 여쭈었습니다.
《참으로 명궁이로소이다. 아니 신궁이로소이다. 이는 상감마마께옵서만 지닐수 있는 신비한 궁술이옵니다.》
《현명하신 상감마마께옵서 이 활을 쓰시는것은 하늘의 뜻이 분명하오이다.》
온갖 아양을 다 떨며 춰올리는 신하들의 칭찬에 마음이 흡족해진 임금에게 이웃나라 사신이 간사한 웃음을 지으며 또 찬양의 말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오나 수수천년 전해내려오는 이 보

물을 쓸 사람이 여적 없었나이다.

보석처럼 빛나는 슬기와 지혜를 지니신 페하께옵서만이 오직 이 활의 진짜주인이로소이다. 이 보물의 참주인을 만난 소인의 기쁨 한량없소이다.》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고 신하들을 둘러보던 임금은 기쁨에 넘쳐 사신에게 말했습니다.

《과인도 오늘 참으로 기쁘도다. 그대 나라 임금에게 짐의 인사를 전해주기 바라노라.》

그런데 이렇게 말하던 임금의 얼굴에선 웬일인지 갑자기 웃음이 사라지고 눈살이 쪼프려졌습니다.

그것은 모두 임금을 극구찬양하며 기뻐하는데 유독 늙은 신하만이 얼굴에 괴로운 빛을 짓고 묵묵히 서있는것을 보았기때문이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임금에게 사냥을 적게 하고 나라일을 돌보라고 말해주군 하던 늙은 신하는 가뜩이나 사냥을 좋아하는 임금이 신기한 《보배활》까지 선물로 받았으니 사냥에 더 극성을 부릴것 같아 걱정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 그대는 기쁘지 않은고?》

임금은 늙은 신하에게 마깝지 않은 투로 물었습니다.

《상감마마,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부디 사냥을 삼가하시고 국사를 돌보소이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국력은 쇠진하여졌나이다.

오랑캐놈들이 호시탐탐 우리 나라를 엿보고있사오니 나라의 정사를 돌보소이다.》

《뭐라구?》

불그락푸르락해진 임금의 얼굴에선 검은 눈섭이 금시 하늘을 날을듯 치솟아올랐습니다.

임금이 늙은 신하에게 이처럼 성을 내보기는 처음이였습니다.

기회를 놓칠세라 아첨쟁이신하들이 때를 만났다고 또 겨끔내기로 임금의 비위를 맞추며 늙은 신하를 모함하였습니다.

《참으로 방종하고 경망스럽기 그지없는 언행이옵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에 감히 뉘앞이라고 그런 요설을 늘어놓는단 말이오이까. 웃는 얼굴에 침을 뱉는 무례하기 그지없는 망동인줄 아옵니다.》

《밝은 지혜와 어지고 높은 덕망을 지니신 상감마마의 슬하에서 만백성이 태평성대를 노래하며 복락을 누리고있는데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국력이 쇠진하다니 이는 임금님의 과도한 신임에 오만방자해졌음을 그대로 말해주는것이옵니다.》

가뜩이나 노한 왕은 간신들의 말에 성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선대임금때부터 언제나 충실해온 신하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선뜻 궁리가 떠오르지 않아 망설이였습니다.

이때 이웃나라 사신의 말소리가 임금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폐하, 하늘같은 덕망을 지니신 폐하의 슬하에 저런 신하가 있다는것은 참으로 놀랍고 유감스러운 일이옵니다.

덕을 덕으로 대하는것은 인간이 지녀야 할 도리인즉 하나밖에 없는 나라의 보물을 폐하에게 아낌없이 드린 저희 임금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가슴아프시겠나이까. 두 나라간에 의가 상하면 두 나라 백성들이 다같이 화를 입을것인즉 그 죄 어찌 가볍다 하겠나이까.

속히 엄벌을 내리시여 두 나라에 불행이 없도록 옳은 처사를 하여주옵소서.》

그 말에 주저하던 임금은 용기를 내여 당장 늙은 신하를 멀리 변방으로 류배를 보내라고 엄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류배지로 떠나게 된 늙은 신하는 라졸들에게 끌리워가면서도 안타깝게 소리질렀습니다.

《상감마마, 부디 사냥을 삼가하시고 국사를 돌보시오이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인차 허공중에 사라지고말았습니다.

그후 임금은 이웃나라에서 보내온 활을 가지고 아첨쟁이신하들과 함께 매일 사냥과 유흥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보배활》은 임금이 쏘면 범이든 메돼지든 보이는족족 영낙없이 들어맞아 날마다 많은 짐승들을 잡아오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온갖 아양을 다 떨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여마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냥에서 잡아오는 짐승마리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귀가 점점 안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가는 귀가 멀더니 나중엔 아예 절벽이 되여 귀머거리가 되고말았습니다.

그와 함께 눈까지 차츰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눈과 귀가 멀게 되자 임금은 그토록 즐기던 사냥을 더는 나갈수 없게 되였습니다.

어의(임금을 치료하는 궁중의원)를 불러들여 치료를 하였으나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전국에 방을 내려 용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다 궁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의원들이 구름처럼 왕궁으로 몰려들었으나 임금의 눈과 귀는 조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멀리 변방 류배지에서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신하는 가슴을 치며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였습니다.

《아, 끝내 변고는 생기고말았구나. 장차 이 나라는 어

찌될고?》

늙은 신하는 비록 류배살이하는 몸이였으나 어수선한 나라방비를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마음으로 변방백성들에게 무술훈련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 산성을 보수하고 필요한 곳에 새로 쌓기도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이웃나라에 사람을 몰래 파하여 동정을 살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웃나라에서 선물로 보낸 《보배활》에는 사냥을 좋아하는 임금이 나라일을 못하게 하여 국력을 약화시키고 침략하려는 놈들의 흉심이 깃들어있음을 알게 되였습니다.

교활한 놈들은 일부러 마술사를 시켜 그런 괴이한 활을 만들어보내여 임금의 마음이 한껏 들뜨게 하였던것입니다.

늙은 신하는 먹을 갈아 붓을 들고 임금에게 올릴 상소문을 썼습니다.

그는 상소문에 쓰기를 상감마마의 눈과 귀는 곧 나라의 눈과 귀요, 임금님의 옥체에 생긴 병은 나라의 불행이라고 쓰고 이웃나라에서 보낸 활에 대하여 자상히 아뢰였습니다.

《상감마마, 부디 그 요물같은 활을 버리시고 국사를 돌보소이다.》

이렇게 쓴 상소문이 왕궁에 닿자 아첨쟁이신하들은 갈가마귀 끓듯 법석 소란을 피우면서 갖은 악담을 다하였습니다.

《상감마마께서 병상에 누워계시는데 나라일을 보라는것은 임금의 신상을 해치려는 검은 속심이 그대로 드러난것》이라느니, 《이웃간에 불신을 조성하고 서로 싸우게 하여 나라에 화를 끌어들이려는 역적행위》라느니 하면서 저마다 왕의 침전에 찾아가 고자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임금에겐 그 아첨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여 아첨쟁이신하들은 저희들끼리 모여앉아 늙은 신하를 죽일 음모를 하였습니다.

태평세월에 백성들에게 무술훈련을 시키고 성을 쌓는것은 반변기도요, 이웃나라의 호의를 악으로 갚으려는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극악무도한 역적행위라고 하면서 왕의 어명으로 사약을 내리도록 모략을 꾸미였습니다.

류배지에서 사약을 받아든 늙은 신하는 사약그릇에 눈물을 떨구며 찾아온 마을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아, 간신들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되였으니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그대들에게 부탁하노니 나의 시신을 상감마마께서 사냥터로 가시는 길옆 산기슭에 묻어주기 바라오.》

늙은 신하는 사약을 마시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누구도 모르게 그의 유언대로 장례를 치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한해가 지나갔습니다.

의원들의 극진한 치료를 받은 효험인지 아니면 그동안 사냥을 가지 않은탓인지 임금은 점차 다시 눈이 보이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첨쟁이신하는 임금에게 또다시 사냥을 가자고 부추겼습니다.

《상감마마, 지금은 만산에 단풍이 든 천고마비(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찐다는 뜻.)의 계절이라 사냥하기에 알맞춤하옵니다. 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시여 가을경치를 즐기시며 사냥을 하심이 좋을가 하나이다.》

그러지 않아도 사냥하고싶은 생각이 간절하던 임금은 가랑잎에 불이 일듯 부쩍 마음이 동했습니다.

《내 심정을 알아주는 그대들의 마음 참으로 갸륵하도다. 어서 그 보배활을 가져올지어다.》
임금은 그날 아침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오래간만에 궁성밖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새들의 지저귐소리를 들으며 늙은 신하의 무덤이 있는 산기슭모퉁이를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한줄기 바람이 휘—익 불어오더니 산기슭의 나무숲이 쏴—쏴 설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숲의 설레임소리와 함께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금도 신하들도 말을 멈춰세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상감마마, 이웃나라에서 보내온 활을 버리시고 부디 사냥을 삼가해주사이다.
문란한 국사를 수습하시고 도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임금과 신하들은 서로 마주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누굴가? 누가 하는 말일가?)
그것은 분명 늙은 신하의 목소리였습니다.
임금이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당황해하는데 한 신하가 나서서 아뢰였습니다.
《상감마마, 저것은 숲이 설레이는 소리외에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어서 사냥터로 가시여 그간 쌓인 심로를 푸시옵소서.》
그리하여 임금의 사냥행렬은 다시 사냥터로 달려가게 되였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그 《보배활》로 사냥을 하여 범 두마리와 곰 한마리 그리고 여러마리의 메돼지를 잡은 임금은 몹시 흥분하여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이 보배활의 신통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구나.》

임금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사냥터를 떠나 궁성으로 되돌아오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산기슭모퉁이를 지날 때였습니다.

아침과 같이 한줄기의 바람이 불더니 숲이 설레이며 사람의 말소리가 울리였습니다.

그러거나말거나 사냥물이 많아 기분이 들뜬 그들은 말을 내처 달려 궁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임금은 사냥터로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산기슭 굽인돌이에서는 숲이 설레이고 《상감마마!— 상감마마!》하고 안타깝게 임금을 찾는 애절한 목소리가 울리였습니다.

그러나 임금과 신하들의 귀엔 그 말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기를 몇달이 지나자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임금의 귀가 다시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것이였습니다.

궁성안은 소란해졌습니다.

이게 웬일일가? 아무리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불러다 치료를 하였으나 이번엔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갑자기 왕궁으로 파발마가 달려오고 봉화대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변방에서 올라온 장계를 보니 《보배활》을 선물로 보내온 바로 그 이웃나라에서 수만군사가 침략해온다는것이였습니다.

임금은 손에 들었던 장계를 떨구며 《아— 내가 교활한 오랑캐놈들에게 속았구나.》하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후회였습니다.

임금은 그 《보배활》을 당장 가져오게 하여 산산쪼각을 내더니 활활 타오르는 불길속에 처넣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임금의 귀가 다시 열리고 어디선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늙은 신하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왔습니다.

모든것을 깨달은 임금은 급히 신하들을 편전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누가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 국난을 평정하겠는고?》

임금의 침통한 목소리가 몇번이나 반복하여 대궐을 울렸으나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평세월》엔 저저마다 충신이라고 조아리던 신하들이 전란이 일어나자 입이 얼어붙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슬슬 눈치만 보면서 꽁무니를 뺄 차비를 하였습니다.

《음, 인제야 네놈들의 속심을 알았도다.》

신하들을 경멸에 찬 눈으로 내려다보던 임금은 《여봐라, 직접 짐이 전장에 나가겠으니 차비를 서두르라.》하고 령을 내렸습니다.

갑옷을 떨쳐입은 임금은 왕궁의 군사들을 이끌고 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변방에 다달으니 임금의 눈앞엔 너무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랑캐놈들은 모두 쫓겨가고 승리한 군사들이 여기저기서 승전고를 울리며 덩실덩실 흥겨운 춤판을 벌려놓고있었습니다.

영문을 알수 없어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임금은 춤판에서 땀을 씻으며 나오는 한 군사를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대로 말할지어다.》

그제서야 임금을 알아본 군사는 황급히 땅에 꿇어엎디여 모든 사실을 죄다 아뢰였습니다.

군사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난 임금은 더 깜짝 놀랐습니다.

늙은 신하에게서 무술훈련을 받은 백성들이 튼튼한 성새에 의지하여 오랑캐놈들을 모조리 쳐물리쳤다는것이였습니다.

《참으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한 충신이로다.》

궁성으로 돌아온 임금은 어명을 내려 늙은 신하의 묘를 다시 크게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늙은 신하의 공적이 길이길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묘앞에 비를 세우고 거기에다 이런 글을 새겨넣게 하였습니다.

《그대의 충정에 하늘땅이 감복했거늘 의로운 혼백이여, 편안히 잠들지어다.》

그때부터 숲의 설레임소리와 함께 울리던 늙은 신하의 애절한 목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두산3대장군동화전집
2

편 집 박춘선
그 림 안영호 장 정 박철남
편 성 정향애 교 정 박경옥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1(2012)년 1월 10일
발 행 주체101(2012)년 1월 15일

ㄱ－16526 값350원

ISBN 978－9946－21－303－3